

襄陽文化

제31호



襄陽文化院

양양 8경



1경 남대천



남대천의 발원은 오대산 두루봉이며 후천은 점봉산과 구룡령에서 발원하여 약 54Km의 하류 서문천에 합류하여 동해로 흘러가는 청정수역이다. 봄에는 바다에서 온어, 황어 가을에는 연어가 소상하고 겨울이면 시베리아에서 크고니(백조)가 찾아오는 희귀 본능의 강이며 양양군민의 식수원이다.



5경 하조대



양양군 명승 제68호로 지정된 하조대는 고려 말 명관인 하륜과 조준이 한 때 은거했던 곳이라 하여 두 성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가람철벽위인 우측 솟아 있는 육각정자와 애국송은 동해 일출의 명소로, 조선 숙종 때 양양부사 이세근이 정자 앞 바위에 하조대라고 쓴 암각문이 남아있다.



2경 대청봉



국립공원 설악산 주봉인 대청봉(1,708m)은 서면 오색리 산변지이다. 조선 정조 때 문인 상해응의 '동국명산기'에 '그 봉우리가 높아서 높고 푸른 하늘을 만질 듯하여 그 최고 정상을 가리켜 청봉이라 이름 하였다고 하며 정상에서 동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6경 죽도정



죽도정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양도호부편에 죽도는 부 남쪽 45리 관란정 앞에 있으며 푸른 대나무가 온 섬에 가득하다. 설 밑 바닷가에 구유같이 오목한 돌이 있는데 '동근 돌이 그 속에서 이리저리 구르고 달아서 오목하게 됐다'는 전설이 있으며, 최근 해변에는 수상리저를 즐기는 마니아들로 북적인다.



3경 오색령



원래 이름은 소솔령 所率嶺이었으나 조선 선조(1596년) 때부터 오색령(1,004m)으로 고쳐 불려졌으며, 현재 44번 국도로 영동과 영서의 분수령이다. 우리나라 아름다운 경관도로 제54선으로 선정되어 가을철이면 많은 관광객이 운집한다.



7경 남애항



남애항은 양양군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아름다운 3중 국가항이며, 강원도 3대 미항 중 하나이다. 조선시대에는 인근의 양양산(陽陽山)에 봉수대가 있었으며, 어판장에는 마을 어민들이 직접 잡은 싱싱한 생선이 넘쳐나 많은 관광객이 찾는 어촌 체험항이다.



4경 주전골



오색 약수터에서 선녀탕을 거쳐 점봉산(1,424m) 서쪽 비탈에 이르는 계곡이며, 무염스님이 12세에 출가한 오색석사와 주유에 독주암, 만물상, 만경대, 선녀탕, 용소폭포, 12폭포가 있어 운치를 더해 주며 가을 단풍이 백미이다.



8경 의상대



의상대는 낙산사를 창건한 의상대사의 좌선 수행처이다. 매월달 김사습이 낙산사 주지에게 보낸 시문과 단원 김홍도의 '해동명산도첩'을 미루어 볼 때 16세기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강원도 유형문화제 제48호와 양양군 명승 제27호로 지정된 동해 일출의 명소이다.

襄陽文化

제31호

襄陽文化院

행복한 오늘, 희망찬 내일을 위해 늘 함께하는 양양새마을금고

언제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이웃처럼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금융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MG양양새마을금고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59

TEL : 033) 671-4413 , 4414

FAX : 033) 671-4415

양양양수발전소는 친환경 발전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홍보관(양양에너지팜) 개관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 견학신청 및 문의전화 : 070-4034-2344~7(무료 관람)



 한국수력원자력(주) 양양양수발전소

플라이강원

대만 갑니다



국제선 첫 신규취항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에는

대만 가져!!

2019.12.26 부터
양양공항에서 매일 타이베이로 모시겠습니다

양양(YNY) - 타이베이(TPE)

운항기간: 2019.12.26~2020.03.28

편명	양양출발	타이베이도착	편명	타이베이출발	양양도착	운항요일	운항일
4V201	09:40	11:40	4V202	12:35	16:15	월	Daily
	10:05	12:05		13:00	16:40	화	
	08:35	10:35		11:30	15:10	수	
	09:50	11:50		12:45	16:25	목	
	08:50	10:50		11:45	15:25	금	12/27
	10:05	12:05		13:00	16:40		1/3,10,17
	08:00	10:00		10:55	14:35		1/24
	09:45	11:45		12:40	16:20		1/31
	08:00	10:00		10:55	14:35	토	2/7~3/27
	10:10	12:10		13:05	16:45		12/28
	11:55	13:55		15:10	18:50		1/4~25
	10:35	12:35		13:40	17:20		2/1~29
10:45	12:45	13:40	17:20	일	3/7~28		
08:00	10:00	10:55	14:35		Daily		

미래의천년大界 성우건설이 책임지겠습니다.



회사소개

- 시설물 유지관리업
-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주요 공사업종

- 건물신축
- 리모델링공사
- 인테리어 공사



주성우건설
SUNGWOO CONSTRUCT CO., LTD.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안산1길 70
Tel.033-672-0401 Fax.033-672-0402
e-mail. yesgada007@naver.com

PHOTO CLUB



양양문화원 정기총회



문화학교 개강식



4.4 만세운동재현행사



제41회 양양문화제 만세운동재현행사



제41회 양양문화제 읍면농악 경연대회



제9회 전국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문화원회원 및 수강생 유적지답사



제24회 강원도사물놀이 경연대회 참가



강원문화대축제 참가



제2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향토문화교육-이규대교수 특강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현지답사



청소년과 함께하는 도자기 체험



문화학교수강생 작품전시회 테이프컷팅식



문화학교 수료식



대금배우기 강좌 종강식

목차 Contents

발간사 양양문화원장 윤여준	9
신년사 양양군수 김진하	12
신년사 양양군의회 의장 고제철	14

향토사료

● 중국전승 양양팔경가의 전파와 정착	16
----------------------	----

향토문화교육

● 〈특강〉 선비 전주이씨 행장으로 본 여성의 생활상	29
16세기명작 “호송설(護松設)”의 감동 강릉원주대학교 이규대 명예교수	36
● 양양의문화유적 진전사와 삼층석탑	40
양양의 선사문화 향토사연구소 이철수 소장	49

2019 문화학교 소개

● 2019년도 문화학교 소개 및 학생 수상, 공연내역 편집실	55
● 2019 천재음악가 허억봉 선양사업 대금반 편집실	61

양양소식지 자료(숨어있는 향토사이야기)

● 양양의 3.1만세운동[이석범와 임천리외(1월~12월)] 편집실	63
--	----

제4회 전국한시백일장(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입선시

● 장원,차상,차하,참방 편집실	104
---------------------	-----

양양 구석구석

● 서핑	126
------	-----

건강상식

● 복막염	141
-------	-----

2019 양양문화원 언론홍보 현황

발 간 사

“2020년 경자년 황금빛 태양이 솟았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과 문화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해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심에 머리 숙여 고마움과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문화원의 면모를 제31호 양양문화를 통하여 양양군민과 문화가족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으로 4월 4일 양양만세운동의 재현행사를 통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하였으며 “양양 3·1만세운동사”라는 책을 발간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은 물론 군민들에게 애국심과 민족정기를 선양함은 물론, 양양인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양양문화원에서는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조사하고 발굴하여 유공자에 걸 맞는 서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양지역은 만세운동 당시 수많은 희생자가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유가족이나 정확한 자료와 기록을 찾지 못해 수훈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원에서는 각종 자료들을 발굴 조사하여 꼭 독립유공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입니다.



양 양 문 화 원 장
윤 여 준

그리고 문화원의 많은 행사 중에 양양문화제는 장소를 종합운동에서 잠시나마 힘든 농사일을 내려놓고 옛 향토문화를 느끼고 군민모두 화합의 장이 되었으며, 전국한시백일장과 전국동구리전통민요 경창대회는 잊혀져가는 옛 시 문화와 소리를 발굴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전승하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사랑하고 아낄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문화탐방과 향토문화교육을 통해 문화회원과 문화학교 수강생들이 역사와 문화를 좀 더 접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 많은 행사들을 충실한 내용으로 진행하여 마무리를 잘하여 어느 해보다 보람되고 기쁜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과 문화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분야가 문화입니다.

수강생들께서 평소에 간직한 예술적 소질과 재능을 발휘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예술과 문화를 통해 진정한 참 행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즐거움과 행복한 삶이 여러분들을 젊게 만들 것입니다.

문화가족 여러분들께서도 문화 활동을 통해 행복함과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문화적 도량을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좌를 개설하여 많은 배움과 문화예술을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지역의 찬란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문화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소망하신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년사



양양군수
김진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속에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군민 모두가 활력이 넘치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미년 3·1만세운동 100주년이었다던 지난해에는 경제, 문화, 환경, 복지 등 군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양양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재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은 군민이 힘을 합쳐 강원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와 양양송이·언어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세 번의 도전 끝에 마침내 플라잉강원이 취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인회관, 장애인회관, 치매안심센터 등 소외계층의 복지기반 확충과 웰컴센터의 작은영화관 개관 및 유관 기관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군민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양양군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드높였습니다.

올해는 CCTV통합관제센터의 본격적인 운영과 육아통합지원센터 설립, 양양경찰서의 조속한 유치를 통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플라이강원 취향과 더불어, 지역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도시 인프라를 더욱 더 굳건히 구축해 가겠습니다.

올해 6월에는 150만 강원도민의 축제인 제55회 강원도민체육대회가 우리 군에서 개최됩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는 양양군 역사상 가장 큰 대회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양양군의 저력과 자긍심을 대내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새해에도 군정에 대한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좀 더 멀리 세상을 내다보고 웅대한 포부를 갖는 봉정만리(鵬程萬里)의 뜻으로 우리 양양군을 동해안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자년(庚子年)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기쁨과 행운이 넘쳐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년사



양양군의회 의장
고 제 철

안녕하십니까! 양양군의회 의장 고제철입니다.

양양군 향토문화의 명맥을 이어주는 「양양문화」제31호 발간을 축하드리고, 양양문화원 윤여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의 변함없는 열정에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고향을 떠나 계시지만 마음만은 늘 고향 양양을 응원해주시는 출향군민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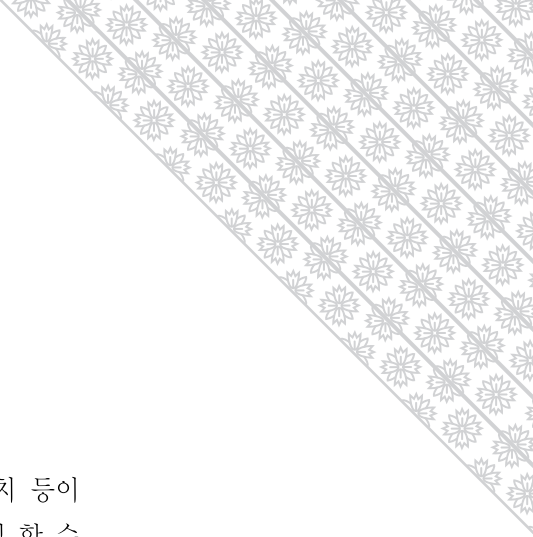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경자년의 해가 다가옵니다.

다른 어느 해보다 2020의 숫자가 주는 느낌이 특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가야 될 때라는 것을 말해주는 듯 합니다.

제8대 양양군의회의 지나온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아쉬움도 남지만, 그 아쉬움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새해의 과제일 것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하여 성원과 충고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의 마음을 받들어서 새해에는 더욱 심기일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2020년은 우리군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주춧돌이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흔들림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대천르네상스사업, 양양종합터미널 이전, 육아통합지원센터 설치 등이 적기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양이 서프시티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양레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 관심을 쏟을 것입니다. 플라이강원 취향이 양양군 지역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을 맞이하며 집행부와 서로 지혜를 모아 정제되고 투명한 소통으로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양양의 미래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중국 전승 양양팔경가의 전파와 정착

양양팔경가는 양양에서 전승된 신민요다.

이 민요는 발 없는 말처럼 흔적 없이 국경도 넘고 사상이나 이념을 초월하여 멀리 중국 땅 조선족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1930년대 양양에서 불린 양양팔경가는 설악산 사진과 함께 현재 중국조선족 각종 민요집에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아래의 중국조선족 5학년 의무교육조선족 학교 음악교과서 하권(연변교육출판사 간행)에 실릴 정도로 조선족사회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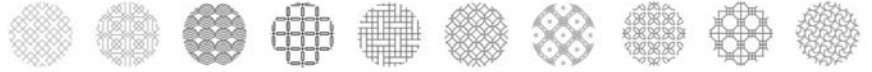
이 노래가 중국 동북지역 뿐만 아니라 러시아 연해주와 중앙아시아까지 어떻게 퍼졌을까하는 궁금증이 남는다.

이 노래는 북한에서 불리다가 1970년대 가사만 개사되고, 곡조는 여전히 북녘땅에 남아 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가 만난 연변조선족작곡가에 의하면 “양양팔경가는 곡조가 아름답고 가사가 단순하여 부르기 쉬워 연변조선족까지 전파되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하였다.

양양팔경가의 존재성이나 강인한 전파력은 그것이 단순히 부르기 쉽다는 이유만이 아닐 것이다.

양양팔경가에 등장하는 팔경(八景)은 이른바 아름다운 8가지의 경치를 칭하는 것이나, 그 상징성은 우주의 삼라만상인 삼원(三元)과 오행(五行)을 합친 도교적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방팔방(四方八方)의





용례와 같이 팔경문화는 시적(詩的) 자아를 중심으로 천지수(天地水) 삼원사상과 동서남북 중앙의 오행에 산재한 경관을 노래한 것들이다.

이를 중국의 소상팔경에서 유입된 것으로도 해석하나 한국인 나름의 팔경사상에 입각하여 자아의 관찰적 시점을 설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원도에는 그 유명한 관동팔경이 전해오고 있으나 그것은 여덟 가지의 어떤 대상을 한정하여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정한 시점이나 관찰자의 시적해석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다. 일례로 양양팔경가에는 관동팔경 가운데 양양 의상대와 고성 청간정이 들어 있는데 속초 청초호도 한때는 관동팔경에 들었다.

한편으로 지역에서는 여덟 가지의 빼어난 경관을 설정함으로써 경관에 대한 자긍심과 역사성, 향토성을 널리 알리고 자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국 팔경은 단지 지역에 산재한 여덟 가지의 정태적(靜態的) 대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과된 시적자아의 동태적, 정서적, 감흥적 상황을 오감(五感)으로 수용하여 풀이한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실제로 귀로 듣는 빗소리나 종소리, 눈으로 보는 저녁노을 등의 자연현상이나 고깃배의 불빛이나 저녁 밥 짓는 연기 등 생활풍습, 아침 해와 저녁달 등 천제우주관이 들어간 것이 이를 방증한다.

따라서 양양팔경가는 양양지역의 빼어난 경관가운데 우수성을 담보하고 향토성을 선양할 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과거 고성지역까지 양양지역에 속하였던 관계로 낙산사, 설악산 뿐 아니라 동해안, 하조대, 의상대, 청간정, 운봉산이 고루 가사에 적용되고 있음이 그러하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지역선양의 필수적 과제로 양양팔경가의 역사성과 가창성을 계승하고 그것이 지닌 향토애를 선양하여 누구나 함께 양양팔경가를 구가함으로써 자연 사랑과 향토애를 견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양팔경가는 1930년대에 처음 제작되어 불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 노래는 양양에서 불리던 것으로 일제강점기의 강압을 피해 중국 연변지구나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양양사람들에 의해 불려 졌으며, 1973년 월북작가인 조명암에 의해 개작되었다.

양양팔경가는 중국쪽의 조선족, 러시아쪽에 이주한 연해주의 고려인들에게도 비슷한 시기에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1937년 스탈린에 의해 17만 명의 연해주 한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면서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고려인과 함께 양양팔경가도 전파된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조선족 이주 역사를 보면 제1기(1846~1909)는 생계목적의 농민이주가 대부분이었다. 대부분으로 쪽박을 차고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들어와 맨손이나 호미, 뿔 도끼로 풀뿌리를 캐면서 헐벗은 땅을 개간하던 시기다.

제2기(1910~1931)는 항일목적의 애국지사들이 이주한 시기로 학교를 건립하고 반일교육을 하는 등 무려 6만 여명이 중국으로 집단이주하였다.

제3기(1931~1945)는 일제에 의한 강제 이주기로 집단부락을 형성하고 강제노동을 하는 등 200만 명의 한국인들이 중국땅으로 월경하여 조선족 사회를 형성하였다. 양양출신들 가운데 대부분이 3기 무렵에 연변 지구로 집단 이주하여 양양 마을 뿐 아니라 강원도 마을, 원주촌, 고성촌 등을 형성했다고 분석된다. 이에 따라 양양팔경가의 중국전파기도 1930년대 초에서부터 해방 이전까지 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양양지역에서 이 노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가창하는 분은 이종우 전 교장선생님이다. 이 교장 선생님은 1947년 당시 양양초급중학교 2학년 때 학교 합창부 클럽활동에 참여하면서 작사자 최용대 교장과 작곡자 김태선 선생님에게 직접 배우고 ‘양양팔경가’를 보급하는 일에 참여했었다고 증언하였다. 지난 2009년 10월 필자가 직접 듣고 녹음한 이종우 전 교장선생님이 부른 양양팔경가는 다음과 같다.

지난 2011년 연변 조선족자치주에 있는 연변대학에서 만난 전화자 교수(음악전공)도 두 살 때 양양에서 이곳으로 이주했는데, 어려서 어머니에게 들었다며 양양팔경가 가사를 적어주었다.

[자료1]

양양팔경가

(최용대 작사, 김태선 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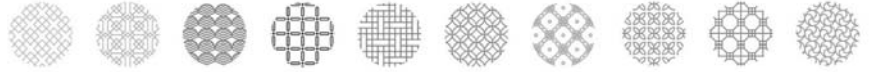
1절 : 산 좋고 물 맑은 양양이라네. 우리- 자라는 팔경이로다.

앞뜰엔 동해안 뒤뜰엔 설악산. 해안을 끼고 도는 낙산사로다
에헤- 좋구 좋다. 팔경이로구나.

2절 : 놀기 좋고 물색(物色) 맑은 양양이라네. 우리-

자라는 팔경이로다.

남으로 하조대, 북으로 운용산 청간정을 바라보는 의상대로다.
에헤- 좋구 좋다. 팔경이로구나.



최근 양양지역에서는 ‘양양팔경가’에 대한 각계 논의가 있어서 소중한 향토사 발굴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필자가 그동안 수집한 몇 가지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엄경선 기자가 『설악신문』(2009년 4월 27일, 제904호)에 기고한 ‘80년 전 우리지역의 풍류와 풍광’에 의하면 이 팔경가는 북한과 연변조선족, 러시아를 거쳐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사이에서도 불렸다.

북한 측 자료에 의하면 양양팔경가는 1930년대 작곡된 신민요로서 1970년대 초까지 북한에서도 원가사로 불렸다고 한다. 그러다가 1973년 월북 작가 조명암(趙鳴岩, 일명 趙靈出, 1913~1993)에 의해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가사로 개사되고 제목도 ‘명승가’로 바꾸었다.

조영출은 고성 건봉사 봉명학교 출신 시인으로 1948년 월북하였으며 ‘꿈꾸는 백마강’, ‘신라의 달밤’, ‘목포는 항구’ 등 일제 강점기에 많은 대중가요를 작사했다.

2004년 북한 조선문학예술총동맹 기관지『조선예술』 8월호는 이와 관련된 기사가 실렸는데 “민요 명승가는 신민요 양양팔경가를 개작해 만든 노래”라고 언급하면서 “광복 전에 창작된 양양팔경가는 1970년대 초까지 원전 그대로 불리다가 1973년 작가 조영출이 가사를 개작하고 제목도 명승가로 고쳤다”고 밝혔다.

또한 “양양팔경가는 험소한 울타리를 뛰어 넘어 우리 조국은 어디 가나 살기 좋은 명승지라는 사상을 확고히 세운 데 기초해 그것을 구체적인 대상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사회주의 조국의 현실을 예찬한 명승가로 개작됐다”고 하였다.

“명승가는 시대적 미감에 맞게 재 창조돼 우리 조국의 아름다움을 긍지 높게 노래한 것으로 우리 인민들의 사상 속에 널리 불리고 있는 귀중한 민요유산”이라고 덧붙였다.

2009년 북한 노래방에서 불리는 계몽기 가요 인기 순위에도 명승가가 9위에 올랐다고 한다.

1위는 김영춘이 부른 흥도야 울지마라, 2위는 김정구의 눈물젖은 두만강이 차지했고, 10위는 고복수의 타향살이었다.

따라서 지난 1973년 개작된 양양팔경가인 명승가의 인기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양양팔경가가 중국 조선족 사회에 전파된 정확한 경로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북한과 교류가 빈번했던 중국

명 승 가

서양시계 보통속도로



※ 이 노래는 1930년대에 창작된 신민요 (양양팔경가)를 현대적 미감에 맞게 가사를 고친 것임.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이를 수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으로 연변지구에 양양주민 집거 마을이었던 조양촌의 주민들이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끼면서 이 노래를 부른 것이 전 연변지구에 전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양양팔경가는 1981년에 출간된 『중국조선족민요집』에 수록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중국조선족 5학년 음악교과서에 ‘조선민요’로 수록되어 있으며 양양지역에는 현산문화, 양주지 등에 소개되어 있다. 『현산문화』 제1집(양양문화원, 1989, 144쪽)에는 최용대 작사, 김범소 작곡, 최만섭 노래로 소개하였는데 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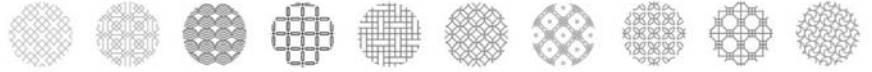
[자료2]

산 좋고 물 맑은 양양이라네
살기 좋고 물색 좋은 양양이라네
우리 자라는 팔경이로다
우리 자라는 팔경이로다

앞에는 동해안 뒤에는 설악산
남에는 하조대 북에는 운봉산
해안을 끼고 도는 낙산사로다
청간정 바라보는 의상대로다
(후렴) 에헤에 좋구좋다 팔경이로구나

『양주지』(양양군, 1990, 577쪽)에 수록된 양양팔경가 가사는 작사 최용대, 작곡 김범소로 되어 있으며 가사는 위의 『현산문화』에 소개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고 그 순서도 바뀌었다.

작사자 최용대는 1925년 양양신청년동맹을 시작으로 양양청년동맹과 신간회 양양지회를 이끈 대중운동가였다. 그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삼척에서 영동기자단이 주최하는 시사강연 연사로 나서기도 했으며 1937년부터 2년 동안 동아일보 양양지국장을 맡기도 했고 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였다.



이종우 전 교장선생님이 전하는 이야기로는 당시 이 학교에 근무하던 속초 출신 시인 황금찬 선생이 양양 팔경가를 작사했으나, 당시 교장이었던 최용대 선생 이름으로 대신 소개되었다고도 하는데, 정확한 것인지는 황금찬 시인에게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자료1]과 [자료2]에는 작곡자가 김태선과 김범소로 달리 나오고 있으며 [자료2]에는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최만섭으로 기록되어 있다. 작사자는 동일하나 작곡자가 김태선, 김범소로 다르게 기재된 이유나 가수 최만섭에 대한 별도의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3]

산 좋고 물 맑은 양양이라네
우리자랑은 팔경이라네
앞에는 동해안 뒤에는 설악산
해안을 끼고 도는 낙산사로다
(후렴) 에헤에 좋구 좋다 팔경이로구나

살기 좋고 물색 좋은 양양이라네
우리자랑은 팔경이라네
남에는 하조대 북에는 운봉산
청간정 바라보는 의상대로다

『중국조선족민요집』에 수록된 양양팔경가 가사는 다음과 같다. 이 민요집에 수록된 민요는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중국 조선족이 살던 연변일대, 길림, 요령, 흑룡강 등 3성의 집거마을에서 수집한 것으로 [자료 4]는 김태갑·조성일의 『민요연구』(연변인민출판사, 1981, 146쪽)에 수록된 것이고 [자료5]는 중국음악가협회 연변분회 『민요곡집』(연변인민출판사, 1982, 404쪽)에 수록되어 있다. 후자에는 악보가 들어 있다. ()안은 필자가 바른 표기로 고친 것이다.

[자료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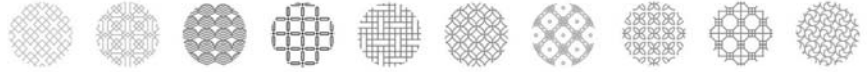
산 좋고 물 맑은 양양이로구나
우리 자랑인 팔경이로구나
앞뜰엔 동해안 뒤(뒷)뜰엔 설악산
해안을 끼고도는 약(낙)산사로다

산 좋고 물 맑은 양양이로구나
우리 자랑인 팔경이로구나
남으로 화주대(하조대) 북으로 운봉산
청가(간)정 바라보니 의상대로다
에헤야 좋구 좋다 팔경이로구나

[자료5]

산 좋고 물 좋은 양양이로구나
우리 자랑인 팔경이로구나
앞뜰엔 동해안 뒤뜰엔 설악산
해안물 찌고(끼고) 드는(도는) 락산사로다
에헤야 좋구 좋다 팔경이로구나

위에 나오는 하조대, 운봉산은 1930년대 당시 양양군 행정구역이 속초시와 고성군 토성면까지 포함되어 양양 하조대, 고성 청간정과 운봉산 지명이 수록되었다. 1930년대 북한에서 불렀던 개작하기 전의 양양팔경 가 가사는 다음과 같다.



[자료6]

산 좋고 물 좋은 양양이로구나
우리 자랑인 팔경이로구나
앞뜰엔 동해안 뒤뜰엔 설악산
해안을 끼고도는 락산사로다(1절)
에헤야 좋구 좋다 팔경이로구나(후렴)

산 좋고 물 좋은 양양이로구나
우리 자랑인 팔경이로구나
남으로 화주대 북으로 운봉산
청간정 바라보니 의상대로다(2절)

이상의 전승 양양팔경가에는 반드시 후렴이 들어가 있는데 “에헤야 좋구 좋다 팔경이로구나”라고 하였다. 1970년대 북한에서 조명암(조영출)에 의해 개작된 후의 ‘명승가’를 참고로 보면 1절에는 동해안, 백사장, 해당화가 들어가 있으며 2절에는 서해안이 지상낙원임을 강조하고 3절에는 “산천이 좋아서 명승이라더냐, 살기 좋으니 낙원이다”라고 개작하여 북한사회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명승가는 1절을 빼면 양양팔경가와 전혀 달라진 사회주의 조국의 현실을 예찬한 명승가로 개작, 체제선정용으로 바뀌었다고 하겠다. ‘명승가’ 전체 내용을 읊기면 다음과 같다.

[명승가]

산 좋고 물 맑은 이 강산이로구나
우리 자랑인 동해안이로다
앞에는 백사장 해당화 피구요
뒤에는 푸른 숲에 백학이 난다네

에헤야 좋구 좋다 명승이로구나(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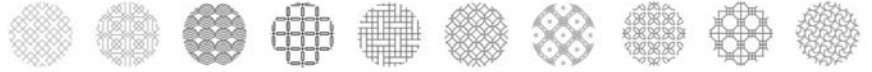
산 좋고 물 좋은 이 강산이로구나
우리 자랑인 서해안이로다
봄이면 과수원 사과꽃 피구요
가을엔 황금파도 출렁인다네
에헤야 좋구 좋다 지상락원일세(2절)

산천이 좋아서 명승이라더냐
살기 좋으니 락원이로다
하늘은 사시절 맑기도 하구요
밤에는 달과 별이 보석을 뿌린 듯
에헤야 좋구 좋다 금수강산일세(3절)

중국에 사는 조선족 아동들도 ‘양양팔경가’ 를 불렀는데 이것이 의무교육 조선족학교교과서 음악 5학년 하권(연변교육출판사, 2006, 39쪽)에 작사자, 작곡자, 가수가 밝혀지지 않은 채 조선민요로 수록되기에 이르렀다. 중국 조선족민간음악집에도 악보가 수록되었다.

연변조선족자치주에는 강원도 이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강원촌, 조양촌(조선 양양), 고성촌 등이 있는데 이들에 의해 강원도 민속과 민요가 전승되고 있다.

양양팔경가는 북한, 조선족뿐 아니라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에 따라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재소 한인인 고려인들에 의해서도 불렸다. 김병학 채록편저, 『재소고려인의 노래를 찾아서』(화남, 2007) 258쪽에는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이 부른 양양팔경가가 수록되어 있다. 가창은 1~2절, 필사본 1~3절로 되어 있다. 양양팔경가와 개작된 명승가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재소 고려인의 양양팔경가는 다음과 같다.



[자료7]

(1절)

산 좋고 물 좋은 양양이로구나
우리 자랑인 팔경이로구나
앞뜰엔 동해안 뒤뜰엔 설악산
해안을 끼고 도는 낙산사로다
(후렴) 에헤야 좋구 좋다 팔경이로구나

(2절)

산 좋고 물 좋은 이 강산이로구나
우리 자랑인 동해안이로다
앞에는 백사장 해당화 피구요
뒤에는 푸른 숲에 백학이 난다네

(3절)

산 좋고 물 좋은 서해안이로다
우리 자랑인 서해안이로다
봄이면 과수원 사과꽃 피구요
가을엔 황금파도 출렁인다네

(* 낙산사로다 : 필사본과 녹음테이프에는 '약산사로다' 로 나와 있다, 채록자 주)

상기의 고려인들이 부른 양양팔경가는 1절이 대동소이하고 2절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3절은 필사본에만 수록된 것으로 후에 개작된 명승가를 더 보탠 것이다. 각 자료에 수록된 2절을 차례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4]에는 2절이 누락되어 있어 양양과 관련된 팔경가는 아래와 같이 전체 5편이 된다고 하겠다.

앞에는 동해안 뒤에는 설악산
남에는 하조대 북에는 운봉산
해안을 끼고 도는 낙산사로다

청간정 바라보는 의상대로다
(후렴) 에헤에 좋구 좋다 팔경이로구나(자료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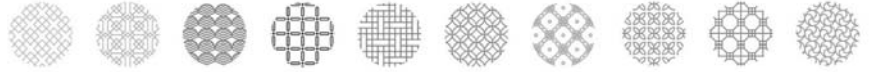
살기 좋고 물색 좋은 양양이라네
우리 자랑은 팔경이라네
남에는 하조대 북에는 운봉산
청간정 바라보는 의상대로다(자료2)

산 좋고 물 맑은 양양이로구나
우리 자랑인 팔경이로구나
남으로 화주대(하조대) 북으로 운봉산
청가(간)정 바라보니 의상대로다
에헤야 좋구 좋다 팔경이로구나(자료3)

산 좋고 물 좋은 양양이로구나
우리 자랑인 팔경이로구나
남으로 화주대 북으로 운봉산
청간정 바라보니 의상대로다(자료5)

산 좋고 물 좋은 이 강산이로구나
우리 자랑인 동해안이로다
앞에는 백사장 해당화 피구요
뒤에는 푸른 숲에 백학이 난다네(자료6)

상기 5편의 민요 각 편에서 볼 수 있듯이 2절 가사는 남쪽 양양의 하조대와 의상대, 북쪽 고성의 운봉산과 청간정이 팔경에 들어 있다. 그러나 [자료6]은 백사장, 해당화, 푸른 숲, 백학 등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어 러시아 한인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창작과 개작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73년 북한에서는 양양팔경가를 '명당가'로 개작했듯이 민요의 특성상 다양한 각 편이 나올 수 있다고 볼 때, 양양팔경가의 본래적 원형은 북한, 연변조선족, 연해주 고려인들에 의해 지속되었다고 하겠다. 끝으로 조선족 초등학교에 실린 양



양팔경가 내용을 전재하고자 한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민요곡집』에 실린 가사와 동일하므로 민요곡집을 전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 좋고 물-맑은 양-양이로구나
 우리 자랑인 팔-경이로구나
 앞뜰엔 동해안 뒤뜰엔 설-악-산
 해안물- 찌고도는 락-산-사로다
 에헤야-종구 좋다
 팔경이로구-나

중국연변조선족자치주에는 이른바 양양마을로 전하고 있는 안도현 영경향 조양촌은 조선 양양출신들이 많
 다하여 불린 이 마을은 민족의 영산 백두산으로 가는 길에 위치하고 있는데 웅기종기 모여 있던 초가집들이
 지난해 수해로 거의 떠내려가 버렸다. 도로가 끊겨 임시로 길을 내어 다니고 있지만, 그나마 남아 있던 조선
 족들조차 이제는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의 가난을 피해서 오로지 살기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찾아온 중국의 연변지
 구와 러시아 연해주는 이른바 재중동포인 조선족과 재소동포인 고려인의 고향과도 같았다. 이들은 고향 양
 양을 그리워하며 양양팔경가를 부르고, 이를 따라 부르면서 언젠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날을 기다렸다.

중국땅이나 러시아 어디든지 강원도 사람이 많이 살던 곳에서는 아라리가 늘 불렸고, 특히 양양출신들은
 양양팔경가를 즐겨 불렀다고 전한다. 1931년부터 45년까지 일제의 강제이주정책으로 중국땅에 옮겨 앉은
 조선족들은 험벗고 굶주림 속에서도 고향땅을 그리워하면서 한가닥 희망을 잃지 않고 씩씩이 개간하여 문전
 옥답에는 벼농사를 짓고 산비탈에는 사과배를 심으면서 강인한 민족성을 발휘하였다.

또한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로 인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떠난 17여 만명의 고려인들도 가난과
 추위의 고통에서 푸른 바다 동해안과 산자수명한 양양땅을 그리워하며 이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고통과 통
 한의 역사적 희생자이지만 그들은 기적과 감동의 역사를 창조하였다. 중국조선족들은 1966년 5월부터 1976
 년 10월까지 중국에 불어 닥친 문화대혁명 10년 동안 양양팔경가를 제대로 부를 수 없다가 1970년대에 들
 어와 비로소 중국조선족 민요집에 수록되어 우리들에게 알려지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양양팔경가는 1930년대에 제작되어 불렸으며 한민족이주사와 맞물려 북한땅, 중
 국땅, 러시아땅으로 흘러갔다.

일제강점기의 중국연변지구로 집단이주한 양양사람들에 의해 중국 조선족사회에서 불렸으며, 북한에서는

청년기에 강원도 고성 건봉사에 머물렀던 월북 작사가 조명암(조영출)에 의해 1973년에는 북한체제선정용 노래로 개작되었다.

양양팔경가는 중국의 조선족, 러시아에 이주한 연해주의 고려인들에게도 1930년대 집단이주와 함께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며 1937년 스탈린에 의해 17만 명의 연해주 한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면서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고려인과 함께 전파된 것으로 생각된다.

1930년대에 소리의 고장 양양에서 창작된 신민요 양양팔경가는 일제강점기 동안에 중국으로 건너간 양양 출신들에 의해 중국조선족 사회에 구전 되었으며, 이 시기 러시아로 이주한 고려인들도 부르다가 1937년 이후에는 중앙아시아까지 퍼져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양양팔경가는 팔경의 경관을 노래한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고향을 그리워한 해외동포들의 망향가로 불리고, 신민요조의 애향가로 그 국제적 생명력을 이어나간 것은 문화전파사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으로 80여년이 넘는 양양팔경가의 역사성과 국경을 넘어 간단(間斷)없이 이어진 역사를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선비전주이씨행장』으로 본 여성의 생활상

강릉원주대학교 | 이규대 명예교수

서론

조선시대 여성생활사는 특성상 가족제도의 특질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16세기 가족제도의 특질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일찍부터 주목되었으며, 근년에 이르면서 재산·제사·가계상속, 혼·상례 등의 주제에서 개별적인 검증이 이루어지면서 양측적 친족구조에서 부계 친족중심의 가족제도로 이행되는 변화 구조를 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연구 성과에 힘입어 여성생활사 연구 또한 이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남편의 재주권(財主權)을 공유하는 부인권(婦人權)의 문제와 양자제도의 초기적 형태로서 주목받는 총부권(家婦權) 변화 문제 등 보다 여성사적 시각에서 주제가 확장되면서 여성의 사회적 입지와 지위문제가 귀납적으로 정리되는 실정에 있다.

한편 조선후기 가족제도의 특질은 16세기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발달되어 심화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시기 여성 생활사는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출산과 육아는 물론 본제가(奉祭祀)·접빈객(接賓客)을 비롯하여 자녀교육·가사노동·가정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가 개발되면서 여성의 역할과 의미가 규명되어 왔다.

근년의 연구 성과는 보다 다양한 자료가 활용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일기·분재기·호적·행장·문집·족보 등의 자료가 활용되면서 계층별·신분별 양태를 구체적으로 검증하려는 작업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한 규제와 억압에 편중된 시각을 지양하고 사회경제적 변화와 맞물린 역동적인 생활상을 주목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성의 역할을 사회경제적 구조와 연계하여 재해석하고 여성 지식인들의 학문적 성과와 그 의식세계가 새롭게 주목받는 것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관련하여 몇 가지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가족제도의 특질상 16세기 사회상은 여성 생활사의 분기점이 되고 있다. 여기서 16세기 이후 여성의 사회적 입지와 지위의 발전적 의미는 어떻게 규정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은 여전히 과제가 되고 있다. 그 지위와 입지가 보다 열악해 졌다는 인식도 그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전의 시대상과 비교 검증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리고 보다 발전적으로 여성 생활사를 정립하려는 노력도 아직은 여전히 소수의 여성 지식인에 대한 연구 성과에 의존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분별·계층별로 폭넓은 검증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최근에 강릉지역에서 발굴된『선비전주이씨행장(先妣全州李氏行狀)』자료를 이용하여 전주이씨의 생활상을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 사회질서 체득과 그 주체적 실천이라는 시각에서 여성생활사의 논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전주이씨는 1751년(영조 27)에 반가에서 태어나서 1822년(순조 22)까지 생존하였으며, 그의 삶은 족보상에서는 “여중군자(女中君子)”로 평가되고 있다. “여중군자”를 당대의 바람직한 여성상 내지는 그 지향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전주이씨의 생활상을 재구성하고 그 의미를 규명함으로써 조선 후기 여성 생활사의 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전주이씨의 성장과 혼인

전주이씨는 반가에서 출생하였다. 4조의 경력에서 고조는 사의(司議)로 관직에 나아갔고 증조는 산계(散階)로 정9품 종사랑(從仕郎)을 가졌고, 조부는 진사(進士)에 올랐고 부는 산계로 정5품 통덕랑 품계를 가졌다. 이처럼 전주이씨는 반가에서 출생하였으나 어린시절 부친의 사망으로 무남독녀로서 모부인(母夫人)을 모시고 음죽현(陰竹縣) 고작동(古作洞) 외가로 이적하였다. 이로부터 20여 년 동안을 외가댁에서 생활하면서 성장하였다.

1766년(영조 42) 16세에는 보다 외가댁의 형편에 따라 강릉 향호리(香湖里)로 이주하였다. 양자로 영입된 외삼촌이 초계정씨(草溪鄭氏)와 혼인하여 부인의 고향인 강릉 향호리로 이주한데 따른 것이었다. 이렇듯 전주이씨의 성장기 생활환경은 보다 외가의 생활형편에 따라 규정되고 있으며, 이로서 그의 성장환경은 부계 친족구조의 연망으로부터 이탈되어 있었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생활환경은 이씨의 혼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당시의 결혼적령기 보다 늦은 22세에 18세 연상이면서 산계로 통덕랑 품계를 갖춘 강릉최씨 최창익(崔昌翼)(1733~1789)의 계실(繼室)로 혼인하였다. 이 사실은 생활환경과 부친의 산계가 이씨의 혼인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혼인에는 단아하고 정숙했던 이씨의 성품이 일차적인 변수였을 테지만, 이에 못지않게 생활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친족집단의 질서와 단혼직계의 생활상태

남편 강릉최씨 일족은 증조 때 양양으로 이주한 이래 3대에 걸쳐 문과에 등제하는 등 중앙관직에 출사한 자손을 배출하였고, 한편으로 향리에서 동족마을을 이루어 친족·문중적 조직과 질서를 구축하면서 사회적 입지를 제고해 갔다. 특히 대가제(代加制)에 의거해 형제들이 산계로 정5품 통덕랑 품계를 확보하고 있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양자영입도 일상화 되어 있으며, 문중의 족보편찬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부계 친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가 구축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남편 최창익은 소박하고 포용력을 갖춘 성품으로 수묵화에 능통하였다. 부인은 남편의 잠교(箴教)로 성리학적 소양을 쌓아갔다. 즉 남편은《소학(小學)》과《내칙(內則)》을 언문(諺文)으로 필사하여 부인에게 제공하였고, 부인은 이를 고람하면서 부학(婦學)과 부덕(婦德)을 쌓아갔다. 또한 비록 실천되지는 않았지만, 부인을 고향인 경기도 양·광주(楊·廣州)로 이주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듯 전주이씨는 남편의 배려 속에서 장남부부와 함께 생활하였으며, 혼인한 지 12년 만에 1남 1녀를 두어 단혼직계가족의 생활을 영위하였다.

최씨 일가는 양양 위천(渭川) 상하방(上下坊)의 동족마을에 정주하였다. 최씨 일가의 경제적 기반은 일정하게 농토와 노복(奴僕)을 소유하여 노비노동력을 이용한 소농경영이었다. 자산의 규모는 확인되지 않으나 노복은 1가족 5구를 소유하였다. 가족들의 식량이 모자라는 형편이었으나 가용을 위해 판곡(販穀)을 하였고, 노복들은 임노동을 하였다. 이점은 최씨 일가의 소농경영이 불안정한 상태였음을 시사한다. 즉, 산계로서 정5품 상계인 통덕랑 품계를 확보한 일가였지만 소농경영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이에 동족마을에서의 생활은 불안정한 경제적 기반을 보완할 수 있는 생활구조로서 의미를 갖는다.

3. 미망인의 생활자세

전주이씨는 결혼 한 지 17년 만에 미망인이 되었다. 이른바 “관동대림(關東大斂)”으로 명명된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집안의 가산을 탕실(蕩失)하였고 전염병으로 남편과 장남을 잃었다. 이로서 부인은 어린 남매를 양육하고 극빈한 가사 전반을 꾸려가면서 무려 33년 동안 미망인의 삶을 영위하였다.

미망인의 생활일상으로서 먼저 주목되는 점은 인리친척간의 관계설정에서 살필 수 있다. 즉 대소사를 막론하고 집안의 일은 일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솔들을 단속하며, 인리와 친척을 막론하고 경연(慶宴)같은 호화스럽고 소리 내어 웃고 즐기는 자리는 기피하였으며, 친척간의 서문(書問)과 정례(情禮)에 명분이 엄정하고 규모가 절연(截然)하였으며, 빈궁한 생활에서도 도울 수 없으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생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설정은 자기 처신의 관리, 집안 가솔의 단속적 성격이 짙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성격은 수신이 강조되는 시대정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며, 여성의 보다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자세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전주이씨의 이러한 생활 자세는 미망인으로서 보다 철저하고 엄격하게 이행하였다는 데 그 특성이 있다. 호화연소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기피하는 생활 자세는 만년에 이르도록 한결같았다고 하며, 비록 매우 빈한한 상황에서도 친인척의 두곡의 도움마저도 전혀 반기는 기색이 없이 되돌려 보냈다고 한다.

미망인의 이러한 생활 자세는 일견 매우 폐쇄적인 성향으로 비취질 수 있지만, 서문과 정례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명분과 규모가 절연하고 엄정한 자세로 이해될 수 있다. 이점에서 전주이씨의 미망인으로서 삶은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원천은 문자 활동에서 시사되듯 성리학적 소양을 터득하고 있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미망인의 생활일상에서 주목되는 점은 봉제사(奉祭祀)이다. 봉제사는 접빈객과 함께 이 시기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만, 미망인의 생활에서 봉제사는 그 본연의 기능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전주이씨는 양부모와 남편의 제사를 기일(忌日)과 절일(節日)에 받들고 있다. 그리고 친정부모의 제사는 기일제만 간소하게 받들고 있다. 부계친족중심의 가족구조에서 시가(媿家)의 제의는 예제(禮制)로 체화되어 있으며, 친부모 제의는 정의(情誼)에 따른 자의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자손이 한미하여 예제를 갖추지 못하고, 살림이 빈한하여 풍성한 제수를 마련하지 못하는 것에 강한 죄의식을 느끼고 있다. 더욱이 시부모를 한번도 뵈지 못하고 봉양하지 못하였다는 사실과 딸자식으로서 친부모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사실로 강한 죄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祭酒)만은 맑고 단 것으로 확보하여 치제하였으며, 제실은 손수 소제하였고, 제수 역시 손수 노작하였고, 제일에는 한숨도 눈을 붙이는 일 없이 곡을 하는 것으로 정성을 다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은 만년에 이르도록 한결같았다. 이렇듯 전주이씨는 미망인으로서 봉제사 의식이 남다르게 강렬하였다는 데 특징을 갖는다. 이것은 남편의 유지와 미망인의 성숙된 효 의식, 그리고 체화된 성리학적 소양에 따른 가계계승의식이 그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미망인의 생활일상에서 주목되는 점은 노복의 관리이다. ‘관동대령’으로 인자한 아버라도 그 자식마저 보호하기 어려운 지경에서도 부인은 아침 저녁의 전죽(饘粥)에서 반드시 먼저 2~3홉을 털어서 가솔들 몰래 노비 가에 보내어 2년 동안 함께 보명(保命)하였다. 그리고 노비가 자식을 낳으면 함께 유양(乳養)하였다

고 할 정도였지만, 만년에 이르러서도 장성한 남자 노비들을 내어 보내고서야 뜰 안마당을 소요(逍遙)하였고, 비록 소해(小溪)라고 하더라도 방에서 시식(侍食)하지 못하게 하여 내외의 구분을 엄격하게 이행하였다.

이렇듯 노복을 대함에는 은혜와 위엄을 겸하였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로서 노복들은 충성을 다하였고 심지어 농시에 고용활동을 하면서 오엽(午飮; 들밥)을 주인 집 남매를 위해 들여보내기까지 하였다. 은혜와 위엄을 함께 갖추는 것은 보편적인 행동양식이었지만 부인은 미망인으로서 보다 엄격하게 이행하였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4. 미망인의 자녀교육

전주이씨의 자녀교육에 대한 의식은 매우 강렬하였다. 자녀교육은 어미의 마땅한 도리라는 보편적 의식을 가졌고, 여기에 미망인으로서 자식의 선교(善敎)를 당부한 남편의 유지를 받드는 의미와 아들의 입신출세를 통해 남편의 사망으로 영락(零落)해진 일가의 번창을 도모하겠다는 의지가 겹쳐지면서 그 의식은 매우 강렬했다.

전주이씨는 어린 자녀에게 선한 심성과 효·가계계승의식을 키우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언(俚言)은 입에 담지 말며, 오언(惡言)은 남에게 하지 말며, 미물의 원소(冤巢)라도 훼손치 말며, 미물이라도 혈류(血類)는 상하게 하지 말며, 잡기(雜技)는 근접치 말며, 식탐(食貪)을 자제하라. 이러한 규제는 근원적으로 악을 배척하고 선을 향하게 하는 생활자세로 귀결된다. 그리고 선친의 수적(手蹟)과 집안에 대대로 전해지는 물건들을 소중히 다루도록 하여 효와 가계 계승의식을 키우고, 서책을 경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편간(片簡) 파지(破紙)까지도 유월(踰越)하지 못하게 하여 학문하는 자세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아들이 11세 되던 해에 종부(從父) 교관(敎官) 공(公)이 운영하는 학당에 보냈다. 이것은 귀농(歸農)과 구별되는 학문의 길로 접어 든 것으로 인식되면서 전주이씨는 아들에게 정성을 다하면서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빈한한 살림에도 반드시 조반을 챙겨서 보냈고, 쇠를 녹이고 숨이 부러질 것 같은 한서(寒暑)에도 혹여 중도에서 유랑할까 걱정하여 동산에 올라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배웅하곤 하였다. 그리고 아들이 받아 온 일과(日課)는 경사(經史)를 막론하고 연송(燃松)해 놓고 강학(講學)하도록 하였으며, 함께 자리하여 계구(戒懼)와 탄상(歎賞)하는 것을 일상으로 삼았다. 한편 교우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친구를 새로이 사귀에는 반드시 그 인물의 현부(賢否)를 물었으며,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다는 속언(俗言)과 《소학》의 “취우필단(取友必端)”을 강조하여 막연하게 친구를 쫓아다니는 것을 경계하도록 하였다.

특히 전주이씨는 과정(科慶)에 집착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백일장(白日場)에 임해서는 지필묵(紙筆墨)

을 챙겨 일찍 출발토록 독려하였고 종일토록 참방(參榜)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과거에 임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반비(盤費)를 마련해 주면서도 구차한 얘기를 한 적이 없으며, 3일 전부터 재계하고 축원하는 것으로 일과를 삼았다.

자녀교육에는 늘 단장(端莊)하고 엄격한 자세를 견지하였고, 미망인의 자식이기에 익애(溺愛)를 경계하여 자애로움을 드러내지 않았다. 취할만한 행동에는 칭찬으로 권면하였고, 과실에는 정색(正色)하고 엄하게 문책하고 달초(撻楚)로 엄히 규제하였다. 독서하기에 염증을 내면 가업의 흥망성쇠가 자신의 일신에 달렸음을 각성시켰고, 지행(知行)이 이루어지지 않는 학문은 ‘불여귀농(不如歸農)’이라 하여 자의식에 의거해 반성을 촉구하곤 하였다.

결론

이상에서 전주이씨의 생애와 삶의 내력을 살펴보았다. 전주이씨는 어린시절 부친이 사망하고 외가댁에 이접한 성장환경으로 계실(繼室)로 혼인하였지만, 결혼초기에 소광한 성품으로 수묵화에 능통했던 남편의 잠교(箴教)로 터득한 문자생활은 그의 생애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비록 《소학》이나 《내칙》과 같은 생활 지침서였지만, 부인은 평생토록 이 서책들을 고람하고 궁구하면서 성리학적 부덕과 부학을 터득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쌓아 갔다.

전주이씨의 시가(媿家) 일족은 3대에 걸쳐 출사자(出仕者)를 배출하면서 대가법(代加法)에 의거해 동생형제(同生兄弟)들이 산계(散階)로 통덕랑(通德郎) 품계를 확보하고, 양자를 영입하여 가계를 계승하고 동족마을을 이루어 전형적인 부계 친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를 구축하면서 사회적 입지를 제고해 갔다. 그러나 단혼 직계가족을 이루어 동족마을에 정주한 전주이씨의 생활은 노비노동력을 이용한 소농경영이었으며, 친족집단의 변창과 남편의 산계에도 불구하고 소농경영은 불안정한 상태였다.

전주이씨의 일상은 궁핍한 생활이었지만 생활전반에 걸쳐 명분과 규모가 엄정하고 절연한 삶이었다. 가사노동, 가정관리, 봉제사, 자녀교육, 노비관리, 친인척관계 등에서 투영되는 이러한 생활자세는 성숙한 성리학적 삶이었으며, 그것은 단아하고 정숙했던 성품과 성리학적 부학(婦學)과 부덕(婦德)을 갖춘 소양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비록 학문적 수준은 아니었더라도 성리학적 가치와 질서에 대한 이해가 생활의 기저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자세는 미망인이 되면서 한층 엄격해 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미망인의 이러한 생활 자세는 일견 폐쇄적이고 피동적인 생활자세로 비추어 질 수 있지만, 친인척 간의 서문(書文)과 정례(情禮)의 적절하고 곡진함에서 나타나는 생활 자세는 자존의식에 입각한 보다 주체적이고 적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주이씨의 생애는 ‘여중군자(女中君子)’로 평가되고 있다. 이 평가는 여성의 전형은 아니더라도 그 모범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이다. 그리고 그 모범성은 전주이씨의 순종적·종속적 생활 자세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명분과 규모가 엄정하고 절연했던 보다 주체적·능동적 생활 자세에 대한 평가였다. 이러한 양상은 비록 18세기가 부계 친족중심의 사회질서가 구축된 사회였지만, 여성들의 생활일상에서 순종적·종속적 생활자세가 평가받는 사회가 아니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16세기 명작 “호송설(護松說)”의 감동

강릉원주대학교 | 이규대 명예교수

1569년은 선조 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이다. 이 해 어느 날 강릉지방의 양반가에서는 솔향(松香)이 질게 배어나는 차상(茶床)을 앞에 놓고 두 사람이 만나고 있었다. 한사람은 이곳 성산면(城山面) 금산리(金山里) 양반가의 주인인 임경당(臨鏡堂) 김열(金說)이고, 또 한사람은 이 집을 방문한 울곡(栗谷) 이이(李珥)였다.

주위에서는 이 양반가를 임경택(臨鏡宅)이라 불렀다. 주인인 호(號)가 임경당이었고 별채의 당호(堂號)가 또한 임경당이였다. 뒷산인 정산(鼎山)에는 선대(先代) 분들이 식목한 소나무 숲이 울창하였고 집 앞에는 남대천이 흘렀다. 여기에 보(洑)를 설치하고 농수를 확보하여 문전옥답을 일구어 경제력도 갖추었다. 집주인은 강릉을 관향(貫鄕)으로 세거해 온 이 지역의 거성(巨姓)으로 학문에 정진하여 강릉처사(江陵處士)로 명망을 얻고 있었다.

울곡이 젊은 경세가(經世家)로서 명망을 얻고 있었다면 임경당은 향리(鄕里)에서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에 뜻을 두었던 처사로서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비록 삶의 방식은 다를 수 있었지만, 이들은 자기의 자리에서 보다 인간적인 삶을 모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울곡은 경세가로서 사회개혁을 강력하게 추구했고, 임경당은 향리에서 풍속을 교정하여 향풍(鄕風)을 진작(振作)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강릉시 성산면 정산(鼎山) 아래 터 잡은 임경당

이들의 개혁적 성향은 이른바 4대사화(四大士禍)를 경험하면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무오(戊午)·갑자(甲子)·기묘(己卯)·을사사화(乙巳士禍), 이 4차례에 걸친 정치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너무도 많은 젊은 선비들이 희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엄청난 희생을 치른 직후 그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려는 후폭풍이 몰아쳤고, 율곡 이이와 임경당 김열은 이러한 기류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 수차례의 커다란 정변(政變)을 겪고 조선 사회에서는 이른바 ‘사림정치(士林政治)’가 구현되었고, 그것은 희생에 따른 정치적 대안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사림정치의 본질은 도덕성과 명분론에 입각하여 공론을 형성하고 그것을 정치의 동력으로 삼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정치 주체인 사림(士林)들에게는 철저한 자기 수양에 기초한 도덕성 즉 ‘수기치인(修己治人)’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무렵 퇴계(退溪) 이황(李滉)과 율곡 이이를 중심으로 조선 성리학(性理學)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고, 이로부터 학문하는 방법이 새롭게 모색되고 인간의 본성(本性)·심성(心性)을 다시 천착(穿鑿)하려는 풍토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른바 이기론(理氣論)과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을 둘러싼 논쟁이 그것이다.

이로부터 사림정치의 논리적·이론적 기반이 구축되고, 그것은 일차적으로 구습(舊習)을 타파하는 것으로 출발하여 인간의 본성과 심성(心性)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가는 있었다. 이러한 성향에서 처사와 경세가의 삶은 둘이 아니었다. 자신들이 처한 생활환경 속에서 그 주변으로부터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소나무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여름날 율곡이 임경당을 방문하였다. 이 무렵 율곡은 외교관으로 중국을 다녀왔다. 천추사(千秋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明)나라를 다녀 온 것이다. 그리고 국가사업인 실록(實錄)의 편찬에 참여하였다가 사직하고 향리(鄉里)인 강릉 오죽헌(烏竹軒)에 돌아와 잠시 머물고 있었다. 이번에 향리를 찾은 것은 이곳에 계시는 외할머니의 병환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간병하면서 위로하고자 하는 뜻에서 내린 결단이었다. 외할머니와 도타웠던 정리(情理)와 외손자 율곡의 지극한 효성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강릉시 성산면 상(上) 임경당

율곡의 사직(辭職)을 두고 정가(政街)에서는 설왕설래하고 있었다. 근친도 아닌 외할머니의 간병을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직무를 소홀히 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율곡에 대한 비난은 급기야 파직을 소청하는 지경으로까지 치달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간쟁(諫諍)에도 불구하고 선조(宣祖) 임금은 비록 외할머니라 하더라도 정리가 도타우면 가능한 일이고, 효행에 관계된 일이라 파직할 것이 아니라는 뜻을 견지하였으니, 군신

(君臣) 간에 두터운 믿음이 흐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당시 율곡은 33세였고 임경당은 63세였으니, 이들의 만남은 잠시 고향을 찾은 율곡이 오랜만에 향리의 어른을 찾아뵙는 형식이었을 것이다. 두 사람은 모두 강릉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성장하였다. 연치(年齒)로 보아 임경당은 출중한 문재(文才)를 타고난 율곡의 어린 시절을 익히 보아 왔을 터이고, 율곡은 성장하면서 학문과 인격을 갖추고 향리에서 명망을 얻고 있었던 임경당을 찾아뵙고 가르침도 받았을 법하다. 후세 사람들은 학문과 덕망으로 일가를 이룬 이들의 만남을 “도의지교(道義之交)”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다.

60대의 임경당이 30대의 율곡에게 던진 화두는 소나무였다. 물론 명나라를 다녀 온 여행담과 실록편찬 이야기도 중요한 화두였겠지만, 이 자리에서 율곡은 집주인인 임경당의 요청으로 ‘호송설’을 지었다. 이 ‘호송설’은 535자로 현재 가로 105cm, 세로 50.5cm의 목판으로 판각되어 가문의 보배로서 별채인 임경당에 게시되어 있다. 근년에는 송림이 우거진 강릉고등학교 교정에 그 원문과 변안문을 새긴 석비(石碑)가 세워졌고, 이제는 강릉 시정 당국으로부터 “솔향강릉”이라는 도시 브랜드가 창출되면서 율곡이 지은 ‘호송설’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임경당 김열은 집 주위의 소나무를 바라보노라면 그것을 식목한 선조(先祖)들이 생각나고 사모하는 정이 생긴다고 하였다. 그리고 후손들도 당신의 이 같은 마음을 가져주기를 간절히 바라노라고 하였다. 임경당의 이 마음이 어찌 한갓 초목으로서 소나무를 보존하려는 뜻이었겠는가? 한 줄기의 소나무 가지에서도 선조들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효성을 자손들에게 일깨워 주고, 그 효성을 근본으로 삼아 백세토록 가업이 전승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었다. 출사(出仕)를 접고 향리(鄕里)에 머무는 처사(處士)로서의 삶을 살아 온 임경당이었고 더욱이 63세의 연치였으니 이 같은 심정은 더욱 절실했을 것도 같다. 이런 심정으로 임경당은 자손 대대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몇 마디 말씀을 남겨주기를 율곡에게 부탁하고 있었다.

주인으로부터 뜻밖의 요청을 받은 율곡은 겸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몇 마디 말이 어찌 도움이 되겠습니까? 부친의 뜻이 아들에게 전해지고 아들은 다시 그 뜻을 자손에게 전한다면 그 뜻은 반드시 백세토록 잊혀 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로써 가르치는 것은 몸으로써 가르치는 것만 못하고, 글로써 전하는 것은 마음으로써 전하는 것만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율곡이 사양하는 자세를 보이자 임경당은 “보통 사람의 성품이란 경계하여 주면 양심이 일어나고 경계하여 주지 못하면 어두워지게 되나니, 나는 보통 사람을 계발시켜 어둡지 않게 하려는 것일 뿐이요.”라는 말로 글을 지어 주기를 재차 요청하였다.

아주 짧은 대화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누가 옳고 그르냐



임경당에 게시된 호송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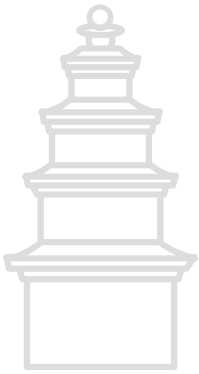
의 차원을 넘어서는 두 사람의 삶의 자세가 배어나고 있다. 중앙 조정에 출사(出仕)하여 구습(舊習)을 타파하고 국가 경영의 새로운 틀을 모색하려는 경세가(經世家)로서 율곡의 원칙론적 입장과 고향에 은둔하면서 향리(鄕里) 서민들의 생활 자세를 일깨우려는데 뜻을 두었던 처사(處士)로서 임경당의 실용적 입장이 대비될 수 있으며, 또한 30대 율곡의 강렬하고 직설적인 입장과 60대 임경당의 자애롭고 온유한 입장으로 대비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율곡은 임경당의 경륜과 인품에 감동하면서 ‘호송설’을 짓는 것으로 화답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심에 그분이 보시던 서책을 차마 읽지 못하는 것은 그분의 손때가 묻어 있기 때문이요, 어머니가 돌아가심에 그분이 손수 쓰시던 그릇을 감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그분의 입김이 남아 있기 때문인데, 하물며 드리워져 있는 소나무는 선대에서 손수 심은 것이 아니던가? 비와 이슬을 머금고 성장하였고 서리와 눈으로 다져져 튼실하게 되었으니, 잠깐만 눈길이 스쳐도 감회를 일으켜 아버이 생각이 불현듯 나고, 비록 한 가지 한 잎의 작은 것이라도 상처나 해를 입지 않을까 삼가고 두려워하며 전전공공할 터인데 어찌 지나 즐기기를 범할 수 있겠는가? 진실로 짐승의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경계할 줄 알 것입니다.”라고 하여 늘 후손들을 염려하는 집주인의 걱정을 위로하고 있다.

그리고 ‘호송설’의 말미에서 율곡은 임경당의 처사적 삶에서 느낀 바가 매우 지대하였음을 강조하면서 후손들에게 경계하는 말을 남기고 있다. “선조들이 고생과 노력을 쌓아서 한 세대 30년을 기약하고서야 가업(家業)을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손이 불초(不肖)하면 가업이 무너지는데 한 해를 기다릴 것도 없다. 이 소나무를 북돋아 심은 지 수 십년을 기다려서야 비로소 큰 나무로 성장하였는데 도끼로 벤다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것이니, 이 어찌 가업을 이루기는 어렵고 파괴하기는 쉬운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니겠는가!”

선조의 체취가 배어나는 소나무이다. ‘호송설’에 담아내려는 정신이 어찌 한갓 소나무에 머물겠는가! 소나무를 돌보는 것이 조상을 돌보는 것일 테고, 소나무를 올곧게 키워가는 것은 선조가 일구어 놓은 가업을 올곧게 승계하여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호송설’은 선조를 사모하고 후손을 염려하면서 일구어 낸 삶의 방식을 인간 만사에서 제일의 가치로 규정하고, 이 방식을 삶의 지표로 삼아 가업을 계승하고 그 파급 효과를 일으켜 마을의 풍속을 진작하여 살맛나는 세상을 일구어 가려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

이렇듯 1569년의 여름, 별채 임경당에서는 60대 처사와 30대 경세가의 만남으로 당대 최고의 삶의 가치를 함축적으로 담아내는 ‘호송설’이 잉태되고 있었다. ‘호송설’을 남기고 임경당을 돌아 나오는 율곡은 정산(鼎山)의 소나무를 바라보며 처사와 경세가의 삶이 둘일 수 없음을 생각하였을지도 모르겠다.



양양의 문화유적 진전사(陣田寺)와 삼층석탑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 | 이철수 소장



진전사

- ▶ 장소 :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100-5번지.(물치에서 서쪽 7km)
- ▶ 문화재 : 강원도 기념물 52호, 국보 제 122호, 보물 제 39호

1. 조계종의 宗刹 陣田寺 (종찰 진전사)

우리나라 선종(조계종)의 종조인 도의선사가 신라 헌덕왕 13년(821년)에 주석(駐錫)한 사찰이며, 신라 구산선문의 하나인 가지산의 개산조인 도의선사가 821년 당나라에서 귀국하여 주석했던 곳으로 그 뒤를 이어 염거화상, 보조국사와 같은 고승들이 이어



삼층석탑



부도

갔고 선종을 받아들인 최초의 사찰이란 의미를 갖고 있으며 삼국유사를 집필한 일연선사가 구족계를 받은 사찰이다.(고려 21대 희종 2년(1206년 6월생으로 9세때 무량사에 입문, 공부하였고 14세때 진전사로 옴)

도의선사의 선법과 사상은 중국 당나라에서 西堂(서당)에게서 37년간 공부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경주일원에는 敎學(교학)사상이 크게 융성하였으므로 경주를 떠나 설악산 아래 진전사로 오신 것이라 한다. 도의선사의 법통은 선종의 2대조인 역성사의 염거화상에게 전하고 염거화상은, 3대조는 전남 장흥군 가지산 보림사의 보조선사(체징)에게 전수되어 선종의 법통을 이어갔다. 도의 선사가 당나라로부터 귀국하였던 8세기는 진전사는 널리 알려진 사찰이었으며 고려 때는 선종의 대 도장 가지산문의 근본도장으로 유서 깊은 곳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조선 세조 12년(1467년)까지 존속하였으나 이후 폐사되어 일제 강점기에 屯田寺(둔전사)로 불리다가 진전(陳田)이란 글자가 새겨진 기와편이 출토되면서 陳田寺라는 것이 밝혀졌다.

1965년 3월 단국대학교 정영호 박사팀이 일대를 답사하고 석탑, 부도 등을 발굴 조사하여 학계에 보고하여 알려지게 되었다. 기울어져 가는 석탑을 해체 하여 바로세우고 흩어져 있던 부도 파편들을 모아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1982년 11월 3일 국가 문화재로, 3층석탑은 국보 122호로, 석조부도는 439호로 지정하게 되었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부도탑이 있는 상부 영역을 전면 발굴하여 원형대로 남향한 정면 3칸 측면 2칸의 법당을 복원하였다.

진전사의 위치는 동쪽을 바라보며 멀리 동해가 굽어보이는 眺望(조망)이 절터 앞을 흐르는 계류와 잘 어울려 마치 경주 동해안의 감은사터를 연상케 한다.

한국에 전해진 선법은 6조 혜능의 법손들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다. 첫 전법자가 道義(도의)이다. 그는 선덕왕 5년(784)에 당으로 가서 마조, 도일의 고제자 서당 지장에게서 법을 얻고 현덕왕 23년(831)에 귀국, 선법을 일으키고자 했으나 신라에서는 그것을 이해못하고 오히려 魔說(마설)이라고 거부했다. 그래서 도의는 설악산에 은거 그 법을 염거에게 전하니 염거는 체징(804-880)에게 법을 전했다. 이렇게 해서 9산선문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2. 三層石塔(국보 제122호)

3층석탑은 신라식 일반형식으로 2층 기단을 갖추고 있으며 상륜부는 노반석까지 있고 그 이상은 결실되었

다. 2층 기단위에 3층의 탑신을 쌓아 올린 9세기 통일 신라시대의 석탑으로 1966년 2월 28일 국보 제 122호로 지정되었다.

높이 5m의 화강암 3층석탑은 8장의 장대석으로 구성된 후 2층 기단을 올렸는데 하층기단은 낮게 구성하였으며 양쪽에 우주와 중앙에 탕주를 1개로 입면을 구성하고 그 사이 면석에 연꽃 무늬 받침 위에 앉아있는 비천상 2구씩 새겼다.

면석에는 구름위에 앉아있는 팔부신중상 2구씩을 새겼는데 면석의 조각 수법과 하층에 비해 높은 입면을 구성한 전체적인 비례는 9세기 통일 신라 석탑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들 천인상은 공히 7엽의 연화좌상에 안좌하고 2층의 원형 단신은 구비하였으며 면천의를 날고 있었는데 수인은 합장을 하거나 천의를 잡고 있는 등 각이한 형태이다.

상륜부는 노반만 남아있고 사우는 유실되었는데 노반에는 직경 10cm, 깊이 10cm의 찰주공이 있어 정확한 높이는 알 수 없는 상태다. 낙수홈을 음각하여 세밀한 의장을 보이고 있다.



층석탑 모형

탑의 높이: 5m.

下基面高(하기면고) : 32.5cm

下基面幅(하기면폭) : 230.5cm

上基面高(상기면고) : 91.5cm

上基面幅(상기면폭) : 178.0cm

塔身部 단위 : cm

	身高(신고)	身幅(신폭)	屋蓋長(옥개장)
제1층	79.5	90.0	154.0
제2층	30.5	80.5	136.5
제3층	26.5	66.5	116.5



3. 진전사지 부도(보물 제439호)

전형적인 부도와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진전사지 부도는 사각형 2층기단 위에 팔각형 탑신부를 올린 특이한 형태인데 현존하는 부도 중에서 전기에 속하는 것으로 1966년 2월 28일 보물 제 439호로 지정되었다.

사각형의 낮은 지대석 위에 2층으로 구성된 4각형 기단을 올렸는데 하층기단 면석 중앙에 탕주가 없고 상하기단의 각 면에 초각이 없는 것이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조형은 유사하여 비슷한 시기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기단위의 탑신은 8각형으로 연꽃문양을 초각한 8각의 탑신몸돌 위에 놓여있고 정면에 문짝 모양을 초각하였을뿐 아무런 장식이 없다. 옥개석 처마는 수평이고 추녀는 안으로 휘어있고 상륜부의 구형 보주를 받치는 옥개석의 상부는 두 겹의 연꽃을 새겼으며 보주 아래 부분에도 연꽃무늬를 새겼다. 탑신을 받치고 있는 8각형 연꽃문양의 탑신몸돌 위쪽 중앙에 크기 26.5cm * 29cm, 깊이 9.5cm의 사리공이 확인되었다. 석조 부도에 연꽃모양의 몸돌을 별개의 돌로 만들어 사리구멍을 만든 예는 드물다. 전체 높이는 2.17m로 부도 앞에 원을 중심으로 8장의 연꽃이 새겨진 배례석이 놓여있다. 부도탑의 조성연대와 관련하여 진전사의 창건연대와 관련된 도의 선사의 부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 도의 선사의 부도로 확인될 경우 우리나라 부도의 시초가 되는 것으로 문화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부도사진 [석탑의 상층기단 신중암(동편)]

중앙 당주로 양분하여 한편에 각 2 座式(좌식)의 天人座上(천인좌상)을 양각하였다. 이들 천인상은 공히 7엽의 蓮花座(연화좌) 위에 安座(안좌)하고 2층의 원형 短身光(단신광)을 구비하였으며 天衣(천의)를 날리고 있는데 手印(수인)은 합장하거나 혹은 천의를 잡고 있는 등 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조각은 각 천인의 相好(상호)가 원만하고 美麗(미려)하며 천의자락이 잘 어울려 당대의 秀作(수작)이라 하겠다.

4. 신라 말기의 선종의 전래

35대 경덕왕(재위 742~765) 때까지 활발했던 신라 불교는 그 후 점점 침체되어 갔다. 이 무렵에 직절 간명한 선(禪)불교가 중국에서 들어오게 되었다. 이 새로운 선풍(禪風)은 중국에서 달마 이래 종풍이 확립되어 독특한 선종(禪宗)으로 성립·발전된 것이다. 중국의 선종이 6조(六祖) 혜능(慧能)에 이르러 남북으로 나뉘면서 그 기세가 극성할 무렵 신라 학승들이 선법을 배워왔다. 북선(北禪)은 흔적만 남을 정도로 미미했지만, 6조 혜능의 남선(南禪)은 크게 일어나 신라의 선종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한국에 전해진 선법은 6조 혜능의 법손들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다. 그 첫 전법자가 도의(道義)이다. 그는 선덕왕(宣德王) 5년(784)에 당으로 가서 마조(馬祖) 도일(道一)의 고제자 서당(西堂) 지장(智藏)에게서 법을 얻고 현덕왕 23년(831)에 귀국, 선법을 일으키고자 했으나 신라에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설(魔說)이라고 거부했다. 그래서 도의는 설악산에 은거, 그 법을 제자 염거(廉居)에게 전하니 염거는 다시 체징(體澄, 804~880)에게 법을 전했다. 이렇게 해서 9산선문(九山禪門)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5. 고려 전기의 선종 구산의 완성

고려 태조는 불교를 외호하는 데 있어서 종파에 차별을 두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무인적인 성격에서 자연 선종을 좋아하여 선승(禪僧)에게 귀의, 왕사(王師)와 국사(國師) 제도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958년에 관리등용을 위해 과거제도를 쓴 데에 견주어, 승려의 위계질서를 가리려고 승과(僧科)를 설치했다. 이것은 승려를 존경하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 그들을 통제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신라 말기에 형성되기 시작한 9산선문은 고려에 와서 이엄(利嚴, 866~932)의 수미산파의 성립으로 마침내 완성되었다.

6. 고려 중기의 선종의 부진

선종 구산의 성립에 따른 선법의 영향으로 여러 종파의 교학이 빛을 잃은 듯했으나 화엄교학만은 그 세력을 잃지 않았다. 남북국 시대에 의상이 화엄을 널리 펼친 이래 끊임없이 연구되어 고려에 계승되었다. 화엄교학은 고려조 전체를 통해 선종이나 교종을 막론하고 널리 연구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대승보살의 실천적 행동을 강조한 사상이었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에는 왕자들의 출가가 많았는데, 의천(義天: 대각국사(大覺國師), 1055~1101)은 문종의 제4왕자로 11세에 출가, 영통사의 왕사 난원(爛圓)에게서 화엄을 배웠다. 그는



송(宋)에도 유학하였으며, 그때 천태학(天台學)을 전수받고 귀국 후에는 천태교관(敎觀)을 널리 강설했다. 그는 또 교장도감을 설치, 국내외의 논저(論著)를 널리 수집하여 속장경(續藏經)을 출판했다. 고려는 초기부터 선(禪)이 성하였으나 천태교학이 들어온 뒤부터 중기에는 재래의 선종은 심히 부진하게 되었다.

7. 고려 후기의 선종의 증흥과 조계종의 성립

천태교학이 들어온 뒤부터 고려 중기에는 선종은 심히 부진하였다. 이때 고승 지눌(知訥, 1158~1210)이 나와 조계선종의 증흥을 이루었다. 많은 선승이 끊이지 않고 배출되어 고려불교의 후기는 선종 일색이 되었는데, 지눌은 9산선문의 교리를 종합하여 한국 불교의 정통인 조계종을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8. 선종 구산(禪宗九山)

선종구산은 남북국 시대의 신라 때부터 시작되어 고려 태조 때 완성된 불교 선종(禪宗)의 구산문(九山門)을 가리킨다.

중국에서 성행한 달마(達摩)의 선법(禪法)을 이어받아 한국 선종의 종풍(宗風)을 일으킨 아홉 산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가지산문·동리산문·봉림산문·사굴산문·사자산문·성주산문·수미산문·실상산문·희양산문이다.

이후 이들 9산문은 선적종(禪寂宗)에 속하게 되며 의천(義天)이 만든 선종 천태종(天台宗)에 대립하였다가 조계종(曹溪宗)으로 개칭되어 선종 2종과 중의 하나가 되었다.

9. 선종의 9산은 다음과 같다.

① 가지산문(迦智山門)

설악산에서 도의(道義, 825)의 법을 배운 제자 체징(體澄, 804-890)이 837년에 당에 건너갔으나 실패하고 840년에 신라로 돌아와서 장흥의 가지산(迦智山)에서 보림사(寶林寺)를 창건하고 도의의 종풍을 떨쳤다. 이로써 선종 9산의 일파로 가지산문이 최초로 성립되었다.

② 실상산문(實相山門)

홍척(洪陟, 830)이 당의 지장(智藏, 735-814)에게서 배워와 남원의 지리산 실상사(實相寺)에서 실상산문을 열었다.

③ 희양산문(曦陽山門)

도헌(道憲, 824-882)은 준범(遵範)·혜은(慧隱)의 법맥을 받아와 문경의 봉암사(鳳岩寺)에서 희양산문을 열었다.

④ 봉림산문(鳳林山門)

현욱(玄昱, 787-868)·심희(審希, 9세기) 등에 의해 창원의 봉림사(鳳林寺)에서 봉림산문이 형성되었다.

⑤ 동리산문(桐裡山門)

혜철(惠哲, 785-861)에 의해 곡성의 태안사(泰安寺)에서 동리산문이 형성되었다.

⑥ 성주산문(聖住山門)

무염(無染, 800-888)에 의해 보령의 성주사(聖住寺)에서 성주산문이 형성되었다.

⑦ 사자산문(獅子山門)

도운(道允, 798-868)·절중(折中)에 의해 영월의 흥령사(興寧寺)에서 사자산문이 형성되었다.

⑧ 사굴산문(闍崛山門)

범일(梵日, 810-889)에 의해 강릉의 굴산사(崛山寺)에서 사굴산문이 형성되었다. 사굴산문은 도굴산문이라고도 한다. 이로써 신라말에 8산이 형성되었다.

⑨ 수미산문(須彌山門)

이엄(利嚴, 869-936)에 의해 고려초에 해주의 광조사(廣照寺)에서 수미산문이 열려서 9산 선문이 정립되었다.

<참고자료>

※ **둔전 (屯田)** : 변경 지역이나 군사 요충지에 주둔한 군대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경작하는 토지이다. 그러한 제도를 둔전이라 한다.

화엄종

화엄경(華嚴經)을 주요경전으로 삼아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당초 인도에서는 화엄종의 시조는 용수(龍樹)·세친(世親)이었다. 중국에서는 창시자 법장(法藏)이 측천무후(則天武后)에게서 '현수'(賢首 : 보살의 이름)라는 법호를 하사받았으므로 현수종이라고도 하고, '법계연기론'(法界緣起論)을 주장했으므로 법계종이라고도 불린다. 화엄종의 특색은 법계연기론에서 이사무애법계(理事無碍法界)와 사사무애법계(事事無碍法界)



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理 : 본체)와 사(事 : 현상)는 서로 장애가 되지 않으며, 사와 사 또한 서로 원용하다고 본다. '하나가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여서 우주 만물이 서로 융통하고 화해하며 무한하고 끝없는 조화를 이룬다. 이 종파의 시조는 두순(杜順 : 法順이라고도 함)이며 2조는 지엄(智儼), 3조는 법장인데 법장의 저작이 매우 많다. <오교장 五教章> · <금사자장 金師子章>이 그의 대표작이다. 그는 현장(玄奘)의 교리를 받아들여 교판(敎判)을 완성했으며, 아울러 5대 화엄사찰을 건립하는 등 화엄종의 창립에 큰 역할을 했다. 4대 징관(澄觀)은 '청량국사'(淸涼國師)라는 칭호를 받았고, 그 문인인 종밀(宗密)은 선교(禪敎)의 융합을 꾀했으며, 유가 및 여러 사상을 조화시켜 이후의 화엄종풍의 기초를 이루었다. 당 무종(武宗)의 멸불(滅佛) 사건 이후 이 종파는 큰 타격을 입어 쇠퇴했다. 우리나라의 승려의상(義湘)은 지엄에게 화엄을 배운 후, 신라에서 화엄종을 열어 해동화엄종(海東華嚴宗)의 시조가 되었다. 8세기 신라의 승려 심상(審詳)은 일본에 건너가 화엄교리를 강의하고 일본 승려 양변(良辯)에게 법을 전하여 일본의 화엄종을 성립시켰다. 그후 우리나라의 화엄종은 고려초에 교종(敎宗)이 되었다.

교종

불심종(佛心宗)이라고도 함. 달마대사가 중국에 전한 종지(宗旨). 교외별전(敎外別傳)을 종(宗)의 강격(綱格)으로 하고, 좌선으로써 내관자성(內觀自省)하여 자기의 심성(心性)을 철견(徹見)하고, 자증삼매(自證三昧)의 묘한 경지를 체달함을 중요(宗要)로 하는 종. 선종이란 말은 부처님의 설교(說敎)를 소의(所依)로 삼는 종파를 교종(敎宗)이라 함에 대하여 좌선을 닦는 종지라는 뜻. 당나라 말기로부터 선종 · 교종의 세력이 대립하게 되며, 교(敎)밖에 선(禪)이 있다는 치우친 소견을 내고 교외별전의 참 뜻을 잃게 되어, 도리어 선종이란 명칭을 배척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됨. 이 종은 석존에게서 정법의 유족을 받은 가섭으로부터 보리달마까지의 28조가 있고, 제28조인 보리달마가 520년(양의 보통 1) 중국에 와서 혜가에서 법을 전함으로써 동토의 제5조 흥인에 이르러 그 문하에서 혜능을 제6조로 하는 남종(南宗)과, 신수를 제6조로 하는 북종(北宗)으로 갈리었다. 북종은 오래지 않아 후손이 끊어지고, 혜능의 1류(流)만이 번성하여 5가(家) 7종(宗)을 내었다. 원나라 · 명나라 때 이르러서는 다른 종파가 다 쇠퇴기에 들어갔으나, 이 종만은 오히려 번성하였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784년(신라 선덕여왕 5) 당나라 서당지장(西堂智藏)에게서 법을 받아 온 도의(道義)를 초조(初祖)로 하는 가지산문(迦智山門)을 비롯하여, 역시 지장의 법을 받은 홍척(洪陟)을 초조로 하는 실상산문(實相山門), 염관 제안(鹽官齊安)에게서 법을 받아 온 범일(梵日)을 초조로 하는 사굴산문(?堀山門), 지장에게서 법을 받은 혜철(惠哲)을 초조로 하는 동리산문(桐裏山門), 마곡 보철(麻谷寶徹)의 법을 받은 무염(無染)을 초조로 하는 성주산문(聖住山門), 남전 보원(南泉普願)의 법을 이은 도윤(道允)을 초조로 하는 사자산문(師子山門), 선종 혜은(禪宗慧隱)의 법을 이은 도헌(道憲)을 초조로 하는 희양산문(曦陽山門), 장경 회휘(章敬懷暉)의 법을 이은 현욱(玄昱)을 초조로 하는 봉림산문(鳳林山門)과, 신라 말기에 운거 도옹(雲居道膺)의 법을 이은

이엄(利嚴)을 초조로 하는 수미산문(須彌山門)의 9산문(山門)이 성립되어 한창 번성했으나, 고려 때에는 차츰 쇠퇴하여지다 고려 명종 때 불일 보조(佛日普照) 국사가 나서 조계산에 수선사(修禪寺)를 세우고, 정혜결사(定慧結社)를 설립하여 일으켰으나, 그뒤부터 승행(僧行)이 타락되면서 차차 쇠퇴하기 시작. 고려 말기에 이르러 태고 보우(太古普愚)는 중국 호주 하무산(霞霧山)의 석옥 청공(石屋淸瑋)의 법을 받아 왔고, 나옹 혜근(懶翁惠勤)은 강서의 평산 처림(平山處林)의 법을 받아 오프로부터 두 파가 갈리다. 나옹의 법계(法系)는 얼마 안되어 없어지고, 태고의 법계만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어 현재 조계종에까지 맥이 이어지고 있음.

양양의 선사문화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 | 이철수 소장

1. 자연적 배경

영동지방 중북부에 위치하는 양양지역은 동쪽은 동해, 서쪽은 태백산맥이 가로막혀 있다. 오대산 두류봉이 발원지인 남대천은 현북면 법수치리와 어성전리를 지나 양양의 중심부를 흘러 동해로 유입되고, 응복산과 오색령, 설악산 등지에서 발원한 계류들을 합류한 후천이 임천리에서 합류 남대천으로 흘러간다.

해안에는 파도에 의한 지표의 변환에 백사장이 발달해 있으며 해안선 부근에는 동해 사면의 하천으로부터 유수를 받아들여 다시 동해로 배수하는 지정학적으로 석호(潟湖)로 불리는 호수가 형성되어 특수한 경관을 이루고 있는데 양양 오산리의 쌍호와 현남면 포매리의 매호가 대표적이다.

기후는 태백산맥이 북서 계절풍을 막아주고 동해에 난류가 흘러 같은 위도상의 내륙이나 서해안 지역보다 기후가 온난하다. 연평균 기온 13℃ 내외이 1월 평균기온 0.7℃, 8월 평균기온 24℃ 이다. 연평균 강우량 1,300mm 정도이다.

이와 같은 자연환경을 갖고 있어 신석기 시대에는 고온 다습한 기후에서 건조한 기후로 변했고, 청동기 시대에는 다시 고온다습한 기후로 변했다. 철기 시대에 접어들어서면서 건조한 기후로 환원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기후변동은 선사시대 사람들의 주거 입지조건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2. 문화 환경적 배경

양양지방은 지형상으로 동해안의 해안선을 동북 및 동남지방과 연결되고 중부지방과는 태백산맥으로 가로 막혀 있으나 태백산맥의 곳곳에 있는 구룡령, 오색령, 미시령 등을 통하여 영서지방과 연결된다. 양양지방의 선사문화는 이러한 역사적 지형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동해안의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온 북방계 선사문화와 밀접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온 동북계 문화가 유입되었음이 고고 자료들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지금까지 발견, 조사된 선사유적들의 분포 입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선사유적들은 주로 동해바다와 인접한 하천이나 호수 주변의 사구지대와 낮은 구릉지대에 주로 해안단구의 평탄면에서 주로 발견되며 또한 주요 하천변의 낮은 구릉성 단구상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이렇듯 영동지방에서 발견되는 선사유적들의 자연적 입지조건은 시기마다 대체로 일정한 규칙성을 보이고 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주된 생업은 어로(漁撈)이고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주된 생업은 농경(農耕)이었기 때문에 주거의 입지조건을 달리했을 것으로 추정해 왔다.

이와 같이 선사문화의 환경적 배경에서 볼 때 양양지역의 선사시대의 각 문화상은 영동지방의 다른 지역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주민의 정착

1984년 손양면 도화리 일대에서 전기 구석기에 속하는 주먹 토기와 1,000여점의 땀석기가 출토되어 양양지역은 구석기 시대 이른 시기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동해안 지역 곳곳에서 다수의 구석기 유적들이 발견되었는데 땀 석기가 출토되는 구석기 유적들은 주로 동해안에 접한 해안단구나 주요 하천변의 구릉에서 발견되고 있는 입지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구석기인들의 주요 생활터전이 해안단구나 하천변의 구릉 지대였음을 알 수 있다.

신석기 시대의 주민들은 주로 식량자원이 풍부한 큰 강가 또는 하천변의 대지나 해안가의 모래언덕에 움집을 짓고 마을을 형성하여 정착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1981년~1987년 오산리 유적, 1994년~1996년 가평리 유적, 1995년 지경리 유적, 2002년 용호리 유적, 2006년 송전리 유적, 2006년~2007년 오산리 유적 등 일련의 발굴조사를 통해서 신석기 주민들이 이곳을 활동무대로 삼아 삶을 영위했음을 알 수 있다.

영동지방의 자연, 지리적 환경과 동일한 양상을 띠는 남대천, 동명천, 화상천 등 주요 하천 유역 및 석호 주변의 사구지대를 중심으로 신석기 주민들이 어로와 원시적인 농경을 하며 정착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구



석기인의 혈통이 신석기 시대까지 계승되었는지는 아직까지 불확실하다.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양하게 적용한 구석기인일 가능성이 높다.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서도 신석기를 뒤이어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살았음이 밝혀지게 되었으며 일정한 규모의 세력집단이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양양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청동기시대 유적들은 지금까지 영동지방에서 발견 조사된 유적의 입지 조건과 매우 부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주요 하천변의 낮은 구릉지대에 주로 입지(立地)하고 있다.

4. 한국의 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양양 오산리 유적

오산리 유적은 강원도 양양군 오산리 일원 동쪽 바닷가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1981년~1987년 동안 6차례의 발굴 결과 14기의 움집터와 함께 다양한 석기, 토기 등 4,000여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연대측정 등 연구·분석 결과 약8천년을 전후하는 신석기시대 유적으로 밝혀졌으며, 1997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94호로 지정되었다.

오산리 유적과 영동지방 유적에서 출토된 신석기 유물 등이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

5. 오산리 신석기 사람들의 생활 모습

1) 토기 제작

오산리 신석기사람들은 토기를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출토된 토기는 겉면에 무늬를 덧붙인 덧무늬토기를 비롯하여 무늬를 새긴 누른 무늬 토기, 빗살무늬토기, 무늬가 없는 민무늬토기 등 다양한 모양과 형태를 보여준다.

2) 어로 생활

오산리 신석기사람들은 바다나 하천, 호수 등에서 물고기 등을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출토된 고기잡이 유물은 주로 석기인데 낚시 도구(이음낚시), 작살 축, 그물추 등이 다량 발굴되었고, 배 또는 노의 일부로 추정되는 목재유물과 배 모양의 토기 등도 추가로 발굴되었다.

3) 수렵 생활

유적 주변에서 크기가 다양한 화살촉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오산리 신석기 사람들은 식량과 모피류를 얻기 위해 육지 동물을 사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채집 생활

오산리 신석기사람들은 나무나 식물의 뿌리, 과일, 도토리 등 열매를 채집하여 식량을 확보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돌갈, 돌도끼 등과 열매나 곡물을 갈 때 사용하는 갈돌과 갈판 등의 도구가 발굴되었다.

6. 오산리 유적 출토유물

1) 토제인면상(土製人面像)

사람 얼굴 모양을 표현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초기 신상(神像)의 하나로 보기도 한다.

2) 토기류

오산리 유적에서는 서해안 지역을 대표하는 빗살무늬토기와 동북지방의 납작밑바리 및 남해안 지역의 덧무늬토기, 두 귀 달린 항아리 등 각 지역의 특징적인 토기가 고루 출토되었다.

3) 흑요석(黑曜石)

화산폭발로 생성된 암석. 깨뜨리면 날카로운 날이 생기기 때문에 석기의 중요한 재료로 쓰인다. 원산지가 백두산 지역으로 밝혀져 이 지역과의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4) 뎨석기(打製石器)

직접 돌을 깨서 생기는 예리한 날이나 뾰족한 부분을 사용하는 생활도구로 구석기사람과 신석기사람들에게 중요한 도구였다.

5) 간석기(磨製石器)

돌의 날 부분 또는 표면 전체를 “갈아” 만든 도구로 주로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에 사용되었다.



6) 돌톱

길이 18cm 크기에 23개의 톱니로 이루어졌다. 대형 돌톱이 출토된 것은 국내외적으로 그 예를 찾기 어려운 경우이다.

7) 오산리형 이음낚시

낚싯바늘의 허리부분은 돌을 갈아 만들고 미늘 부분은 동물의 뼈를 섬세하게 갈아 끈으로 묶어 낚싯바늘을 완성하였다. 학계에서는 오산리형 이음낚시라 부르고 있다.

8) 갈돌·갈판

갈돌과 갈판은 한 조를 이루며, 나무 열매나 곡물 껍질을 벗기거나 갈아서 가루를 만드는 가공 도구이다. 돌로 만들어진 갈판 위에 갈돌을 이용해 상하 또는 좌우로 움직여서 식량 재료를 얻는 원시적인 방아 연장으로 땃돌이라고 할 수 있다.

9) 덧무늬토기(隆起文土器)

그릇의 표면에 점토띠를 덧붙여 여러 가지 문양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다양한 덧무늬토기가 출토되었다.

10) 곰모양 토우

곰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는데, 크기는 길이 5.5cm, 너비 2.3cm, 높이 2.2cm로 작다. 곰을 숭배하는 토테미즘 신앙과 연결되어 신석기시대 동물의례와 관련된 유물로 여겨지기도 한다.

11) 배모양 토기(舟形土器)

점토를 손으로 빚어 내부공간을 비우게 하였으며, 바닥은 편평하게 처리하여 배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었다.

7.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의 또다른 즐거움

1) 쌍호(雙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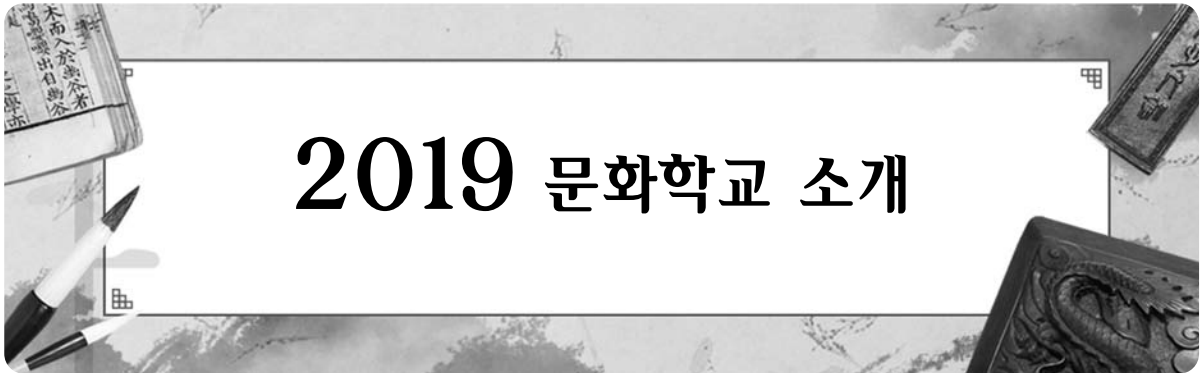
오산리 신석기사람들의 생활 터전이었던 쌍호는 사계절마다 색다른 모습으로 탐방객을 맞이한다. 쌍호 안에는 움직이는 갈대 군락지가 있어 바람의 영향으로 이동하여 “움직이는 갈대숲”이라고도 부른다.

2) 탐방로

쌍호와 유적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두갈래의 탐방로는 자연을 벗삼아 신석기사람들의 발자취를 느낄수 있는 체험장소이다.

3) 움집

오산리 유적을 6차례 발굴한 결과 14기의 움집터가 발견되었다. 바닥에 약5cm 정도 두께의 진흙을 깔고 불로 다진 후 기둥을 세워 갈대 등으로 지붕을 이어 덮었다. 움집 내부에는 1~2개의 화덕자리가 발견되었는데 불을 피웠던 것으로 보인다.



문화학교 교실별 수료자

교 실 명	강 사	수 료 자
한시교실	이종우	17
서예교실(한문)	함연호	24
서예교실(한글)	김광희	19
한국화교실	조정승	17
민요교실	이건남	19
통기타교실	강명근	21
사물놀이교실	홍이표	11
색소폰교실	이명재	17
난타교실	주동진	12
수채화교실	서순복	10
양양600 합창단교실	홍상기	40

우수 수강생

교 실 명	성 명	교 실 명	성 명
한시교실	김기송	사물놀이교실	윤종화
서예교실(한문)	윤지환	색소폰교실	이영순
서예교실(한글)	조덕희	난타교실	황명옥
한국화교실	최종봉	수채화교실	이효숙
민요교실	김영애	양양600 합창단교실	김봉자
통기타교실	권소현		



2019 문화학교 수강생 수상 및 공연내역

한시



수상

- ❖ 3·1운동 100주년 전국 한시백일장(양양군)
 - 가작 : 김구래, 김무풍, 추종삼, 황재권
- ❖ 시협풍아 48묵(한시협회)
 - 가작 : 안병대
- ❖ 제1회 전국한시백일장(지상백일장-한시협회)
 - 가작 : 김경일, 양동창
- ❖ 제27회 전국한시백일장(한시협회)
 - 장려상 : 김형래, 추종삼
- ❖ 제주문화원 굴림 추석전국백일장
 - 참 방 : 추종삼
- ❖ 수원 향교 한시 백일장
 - 장려상 : 추종삼

한문서예



수상

- ❖ 제41회 양양문화제
 - 최우수상 : 윤지환
 - 특선 : 김덕주, 박상울, 안병돈
- ❖ 제47회 강원미술대전
 - 입선 : 이광우, 윤지환, 신동우, 김덕주, 박만준, 박상울, 권순영
- ❖ 2019 운곡서예대전
 - 특선 : 이광우, 윤지환, 김덕주, 최용일, 고순재
- 대상 : 이광우
- 최우수상 : 윤지환
- 특선 : 고순재
- ❖ 2019 추천작가 제출
 - 이근천(운곡서예대전, 만해시)
 - 신동우(운곡서예대전, 강릉단오제)

전시

- 제41회 양양문화제 문화원 수강생 작품 전시회



한글서예



수상

- ❖ 대한민국 운곡서예문화대전
 - 삼체상 : 장영랑
 - 입선 : 박상혁, 홍의태
- ❖ 님의침묵 서예대전
 - 특선 : 고민숙
 - 입선 : 장영랑

❖ 영북지구 휘호대회

- 대상 : 고민숙
- 장려상 : 장영랑
- 특선 : 이주옥

전시

- 제41회 양양문화제 여성회관 · 문화원 수강생 작품 전시회

한국화



수상

- ❖ 19년 강원미술대전
 - 입선 : 최종봉
- ❖ 19년 신사임당 미술대전
 - 입선 : 김영한

전시

- 제41회 양양문화제 여성회관 · 문화원 수강생 작품 전시회

민요



수상

- ❖ 제37회 순창 전국 국악대제전
· 민요부분 종합대상 : 이건남 강사
- ❖ 삼척가사,가곡,시조창전국대회
· 을시부(시조부) 금상 : 송종석
- ❖ 평창 강원소리 경연대회
· 동상 : 단체부
- ❖ 강릉단오 슬향전국아리랑경창대회
· 대상 : 단체부
- ❖ 춘천 아리랑대회
· 개인 신인부대상 : 허옥환
- ❖ 부천 경,서도 전국민요대회
· 대상 : 김정순

공연

- 제4회 전국한시백일장
- 제9회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 제41회 양양문화제
- 2019 양양송이축제, 연어축제
- 제2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 2019 강원문화대축전
- 월 4회 양로원 봉사
- 양양 인제 고속도로 개통 축하공연
- 시장공연 봉사

통기타



공연

- 릴레이 자원봉사 공연(낙산요양원)
- 제41회 양양문화제
- 양양문화원 제2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사물놀이



공연

- 제41회 양양문화제
- 양양문화원 제2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 제9회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색소폰



공연

- 제41회 양양문화제
- 양양문화원 제2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 제4회 전국한시백일장

난타



공연

- 제41회 양양문화제
- 양양문화원 제2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 2019 양양전통시장활성화 문화공연

수채화



전시

- 제41회 양양문화제전시

600합창단



공연

- 제41회 양양문화제
- 양양문화원 제2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 연예인협회 예총공연
- 양양 맛있는 야시장

2019 양양출신 조선 천재음악가 허억봉선양사업 대금반



1. '허억봉'은 조선 후기에 통소와 대금 연주자로 당시 장악원(지금의 국립국악원) 총책임자인 전악까지 오른 천재 음악가로, 악인들이 악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금합자보'라는 악보 제작에 참여하였다. 금합자보의 서문에는 "허억봉은 대금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있다.



2. 강좌를 통해 익힌 연주법을 바탕으로 평생학습 및 여가생활을 지속하며, 문화원 및 타기관, 단체의 다양한 행사에 연주봉사를 다짐으로 우리 전통악기에 대한 인식 구축하고, 마땅한 취미활동이 없는 지역민들에게 적절한 취미생활과, 수강생들 간의 연주에 대한 소통, 연주 연습을 통해 지역민의 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합니다.



3. 대금연주는 호흡하는 방법부터, 악보를 읽는 방법까지 같이 익혀야 하기에 폐활량 및 집중력이 향상에 좋고, 오랜 시간의 곡 습득을 통해 작품 완성에 대한 성취감 및 봉사활동 등 공연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양양문화원에서는 허억봉 선생의 업적 선양을 위해 우리전통악기의 전수에 나설 계획을 가지고 지역민의 문화예술 평생학습 욕구충족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대금 연주 배우기’ 반을 운영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4. 비고

- 수 강 생 : 15명
- 공연내역 : 2019. 3. 1. 기미만세운동 100주년기념 함흥기열사 관련 연극 식전공연
 2019. 6. 20. 제41회 양양문화제 지역한마당잔치
 2019. 10. 23. 2019년도 양양문화원 가을밤의 문화공연
 2019. 12. 12. 2019년도 양양문화원 허억봉선양사업 대금반 수료식 공연

양양의 3·1만세운동 (이석범과 임천리)

2019년은 기미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19년 4월 4일 양양 장날에 일어난 양양3·1만세운동은 올해로 100주년이 되는 해로,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에서는 10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당시의 3·1만세운동에 관련 내용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양양지방의 3·1만세운동은 독립선언서의 입수가 단초가 되었는데, 하나는 유학자인 설초 이석범(雪樵 李錫範) 선생에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양양 감리교회 조영순 전도사의 외동딸인 조화벽(趙和璧:개성 호스돈여학교 재학) 성도가 버선목에 숨겨 대포항으로 들어왔다.

이석범 선생은 당시 도천면 중도문리(현재 속초시)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곳 만세운동은 동생인 이국범(李國範)과 아들 이재훈(李載勳·能烈)에게 앞장세우고, 도천면은 중도문리의 김영경, 이종국을, 강현면은 적은리의 장세환 등을 책임자로 맡기고, 본인은 고향인 함평이씨(咸平李氏) 집성촌인 임천리(林泉里)에 머물면서 양양의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이석범

쌍천서숙(학교)을 설립하여 후진 양성에 힘쓰다.

이석범 선생은 조선조 1545년 양양부사를 지낸 이춘령(李春齡)의 10대 손이며, 또한 1808년 부임한 양양부사 이광식(李光植·初名 英植) (현산공원 부사 석조비 23위 중 유일한 불망 양각철비)의 후손이다. 1859년 양양면 임천리 148번지에서 출생하였다. 1884년 25세에 초시에 합격하고 1899년에는 중추원 의관을 거쳐 1905년 군부주사 겸 군기창기수에 임명되어 국정 심의에 참여하였으나, 1910년 일제의 잔악무도한 병합



쌍천서숙(도문면 중도문리)

통치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그 후 1913년 도천면 중도문리에 쌍천서숙을 설립하여, 후진 양성과 항일 애국정신 함양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1919년 1월 21일에 고종 황제가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나돌자 이종만(李種萬)을 위시한 유림 20여 명이 2월 20일 밤 현산공원에 모여 망곡단을 설치하고 한성 쪽을 향하여 망곡제(望哭祭)를 올리며, 고종의 인산(因山)에 이석범 선생과 향리 10여 명이 참례하기로 결정하였다.

양양 3·1만세운동은 임천리에서 시작되었다.

이석범 선생은 고종의 인산에 참례 후 독립선언서를 3월 말 몰래 숨겨와 임천리에서 머물면서 4월 4일 양양 장날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러니까 사실상 양양 3·1만세운동의 진원지가 임천리라 할 수 있다.

사업가로 신망이 높은 이 마을의 최인식(崔寅植: 양양보통학교 1회)은 양양보통학교 출신의 각 마을 구장들과, 양양 감리교회 청년부의 김필선(金弼善), 김계호(金啓鎬)와 독립을 열망하는 지역 유림 등과 규합하였다.



임천리 전경

그리고 문중인 이교완(李敎完), 이교정, 이건충 등 몇 집에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몰래 만들던 중 4월 3일 밤 군수 이동혁과 군속 심운택이 급습하여, 이석범 선생과 마을 주민 22명이 체포되고 태극기 374매가 압수되는 사태가 발생한 마을이다.

그러나 다음 날인 4일 양양 장날에는 각 마을마다 계획대로 수천여 명이 장꾼을 가장하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일본 경찰에 항거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한 만세운동은 6개면 82개 동리의 남녀 노소 6,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4월 9일까지 6일 동안 계속되어, 13명의 사망자와 70여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구금 또는 수형자만도 172명 그리고 수 없는 사람이 태형을 받아 전국 지방에서는 가장 극렬하게 일어난 기미만세운동으로 기록되고 있다.



3.1운동기념비(양양읍 현산공원)

양양의 3·1만세운동 (조화벽 지사와 양양 감리교회)

2019년 己亥年은 기미 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양양 3·1만세운동은 1919년 3월 말에 독립선언서의 유입이 단초가 되었다.

유입 경로는 두 갈래로 하나는 이석범 선생이었고, 또 하나는 양양 감리교회 조화벽 지사였다.

지난달에는 이석범 선생과 임천리에 관한 내용이었고, 이달에는 개성 호스돈여학교 비밀 결사대원으로 개성 3·1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조화벽 지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조화벽 지사

조화벽과 양양 감리교회

조화벽(趙和璧:1895.10.17.~1975.9.3.)은 양양 감리교회 전도사였던 조영순(趙英淳)의 무남독녀로 양양면 남문리에서 태어났다.

양양 감리교회는 1901년 10월 5일 하디(R.A.Hardie) 선교사에 의해 강원도에서는 최초로 설립한 교회로, 항일운동에 앞장선 5대 김영학 목사, 8대 송정근 목사 그리고 조화벽 지사 등 걸출한 독립운동가를 많이 배출한 성지이다.

김영학 목사는 당시 인산인해를 이룬 군중들에게 대한독립에 대하여 일장연설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심한 고문을 당하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6개월간 복역했고, 송정근 목사도 독



양양감리교회 전경

립운동을 하다가 목사직을 박탈당하고 투옥되었으며, 6·25전쟁 때 납치된 후 학살되었다.

또한 조화벽 지사는 16세 되던 1910년에 유학을 떠나 원산 성경학교를 거쳐 루씨여학교(樓氏女學校)에서 수학한 후, 1919년에 개성 호수돈여학교 재학 중에 기미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학생 비밀결사대원으로 적극 참여하였다.

현재 28대 교역자로 31년째 시무하고 있는 담임 김한구(金漢九) 목사는 “양양 감리교회야말로 하디선교사의 영적 정신을 이어받은 민족구국제단”이라고 말한다.



28대 김한구 목사(출처-기독교타임즈)

양양 3·1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조화벽은 1919년 3월 5일 만세운동으로 개성 호수돈여학교의 휴교령으로 삼엄한 수색과 경계를 피하여, 독립선언서를 버선목에 몰래 감추어 원산을 거쳐 당시 양양 대포항으로 귀향하였다.

조화벽의 만머느리인 김정애(金貞愛,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장) 여사의 증언에 의하면 “대포항에 도착하자 일본 경찰이 소지품을 압수하고 검문을 하였는데, 버선목에 감춘 독립선언서가 발각될까 봐 굉장히 마음 졸였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숨겨온 독립선언서를 감리교인이며 면사무소 급사였던 김필선(金弼善)에게 전달하고, 이석범 선생을 중심으로 한 지역 유림과 양양 보통학교 동문 그리고 농민들을 규합하여 4월 4일 양양 장날을 기하여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조화벽 지사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은 김필선은 김주호, 김재구 등 동료들과 면사무소의 등사기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등사했고, 한편 임천리에서는 이교완, 이교정 집에서 수십 명이 모여 태극기를 만들던 중 장날을 하루 앞둔 4월 3일 일부가 발각되어, 이석범 선생을 비롯한 마을 주민 20여 명이 체포되고 제작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 374매가 압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최인식(崔寅植)을 비롯한 많은 주동자들이 거마리 김종태(金鐘台) 집으로 본거지를 옮



개성 호수돈여학교(출처-심옥주 소장)

졌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성내리 뒷산에 있는 곳집(喪具保管所)과 거마리 김중옥 집 뒷산 곳집에서 밤새 태극기를 제작하였고, 각 마을마다 책임자가 있었기 때문에 4일 장날 만세운동에는 지장이 없었다, 이때 조화벽 지사도 86매를 만들었다고 하니 당시의 사정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짐작하게 한다.

유관순의 오빠 유우석과 결혼 후 항일독립정신을 계승하다



조화벽은 1925년에 유우석(柳禹錫·유관순의 오빠)과 결혼하였고, 다시 귀향한 1932년에는 가난으로 정규학교를 다니지 못한 농촌의 학생을 위하여 양양 감리교회에 정명학원을 개원하여 13년 동안 배출한 600여 명의 졸업생들에게 항일독립정신을 계승시켰다.



양양정명학원 제2회 졸업기념.
1939.3.25



정명학원1,2회 졸업생(출처-국립여성사전시관)

그 후 유우석의 고모인 유정숙(柳貞淑)은 양양면 사천리에서 여생을 보냈고 가족들은 양양에서 은거 생활을 하였으며, 일부 친인척들은 지금도 양양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에 조화벽 지사는 1982년 대통령 표창과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았으며, 춘천의 윤희순, 철원의 광진근과 함께 강

원도의 3대 여성독립운동가로 꼽히고 있으며, 충절의 고장 양양의 근대 선각 여성이다.

양양의 3·1만세운동 (곳집과 태극기 제작)

1919년은 3·1만세운동이 일어난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4월 4일 양양 장날을 기하여 일어난 3·1만세운동은 이석범(李錫範) 선생과 조화벽(趙和璧) 지사가 몰래 가져온 독립선언서가 단초가 되었다.

설초 이석범 선생은 3월 말 고종황제의 인산(因山)에 참례하고 독립선언서를 몰래 가져왔고, 조화벽 지사는 개성 호수돈여학교 유학 중에 개성 만세운동 결사대원으로 적극 참여하였으며, 학교 휴교령이 내려지자 독립선언서를 버선목에 숨겨 원산을 거쳐 양양의 대포항으로 귀향하였다.

이렇게 3월 말에 입수한 독립선언서가 발단이 되어, 그동안 독립을 염원하던 지역유림, 신문화 교육을 받은 양양보통학교 졸업생, 양양감리교회 청년 지도자들이 농민들과 연합하여 극비리에 준비하여 양양의 만세운동은 시작되었다.

구장(이장) 집이나 서당에서 태극기를 만들다

4일 장날의 만세군중에게 배포할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었을까? 더구나 일본 경찰의 감시가 삼엄한 가운데 장날을 하루 앞둔 3일 밤에 임천리에서 일부가 발각되었다면 우리는 그때의 절박했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각 면별로 책임자를 정하고 구장 집과 서당에서 만들기가 한창이었는데, 임천리에서 이석범 선생의 주도에 이교완(李敎完), 이교정, 이진충 등 몇 집에서 만들다 장날을 하루 앞둔 3일 일부가 발각되어 이석범 선생을 비롯한 마을주민 20여 명이 체포되고 태극기 374매와 등사기가 압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면은 상평리 박춘실(朴春實)이 임천리에서 만든 종이 태극기를 이교학으로부터 전달 받아 집에서 수기로 만들었고, 현북면은 상광정리 김종대 집과 하광정리는 구장인 김진혁 집에서, 말곡리는 문종석 집에서, 도리는 김재한 집에서 각각 만들었다.

강현면도 구장 집과 서당 훈도였던 김철기(金鐵起·독립유공자)의 서당에서 만들었고, 도천면은 중도문리 이종국(李種國·독립유공자), 이종황의 집에서, 물치리는 김두영(金斗榮·독립유공자), 박제범, 김대순 등이 태극기를 만들며 계획에 참여하였다.

‘농자천하지대본’의 깃발을 들고 나오다

양양면은 양양감리교인이며 면사무소 급사였던 김필선(金弼善·독립유공자)이 조화벽 지사에게 받아 김계호(金啓鎬·독립유공자), 김주호, 김재구, 김규용 등 동료들과 면사무소의 등사기로 종이와 옥양목으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등사하였다.

그리고 거마리는 김종태(金種台:2018년 8월, 독립유공자 신규신청) 집에서, 감곡리는 이관진(李寬鎭·독립유공자) 주도하에 이상은 집에서 만들었다.

손양면에서는 가평리와 왕도리에서 제작하였으나, 주리와 우암리는 준비가 부족하여 태극기 대신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깃발을 들고 백가영감이 농약을 올리며 만세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거마리 전경



현재 거마리 곳집

상여를 보관하던 외딴 곳집에서 만든다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자, 다급해진 임천리 최인식(崔寅植)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거마리 김종태 집으로 피신하여, 각 마을 책임자들에게 긴급히 연락을 취하고 대책을 세웠다.

그러자 일본 경찰의 감시가 더욱 강화되자, 비상 대책으로 인적이 없는 안전한 장소를 선택한 곳이 바로 곳집[喪具保管所]이었다. 거마리는 김종옥 집 뒷산 외진 곳집으로 정하였고, 또한 성내리 뒷산에 있는 곳집

(성내리 47번지)에서도 밤새 태극기를 만들었는데, 이때 조화벽 지사도 86매를 만들었다고 하니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짐작케 한다. 이렇게 밤새워 만든 태극기를 다음 날인 4일 장날에 배포하여 전군민이 참여한 민족의거 운동으로 거세게 일어났다.



옛 성내리 곳집



현재 성내리 곳집 터

양양장날 만세운동과 함흥기 열사 (4월 4일)

1919년 4월 4일은 이석범(李錫範) 선생과 조화벽(趙和璧)지사가 몰래 가져온 독립선언서가 단초가 되어, 독립을 염원하는 지역 유림, 양양보통학교 동문, 양양감리교인 그리고 농민이 연합하여 양양면 남문리 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난 날이다.

양양 장날 만세운동이 시작되다

장날을 하루 앞둔 3일 밤, 양양면 임천리에서 태극기를 제작하던 중 일부가 발각되어, 이석범 선생을 비롯한 마을 책임자 22명이 체포되고 태극기가 압수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각 마을과 감리교회 책임자들의 철저한 준비가 있었으므로 장날 만세운동에는 지장이 없었다.

일본 경찰은 4일 장을 철시하고 사전에 경계태세를 강화하였지만, 장으로 들어오는 다섯 개 통로로 각 마을 만세 군중은 베와 옥양목으로 만든 큰 태극기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들어왔으며, 일부 장꾼들은 두루마기 속에 독립선언서를 숨기고 사방에서 모여들었다.

동면 송현리 등 만세 군중이 먼저 들어와 시장과 경찰서가 내려다보이는 구교리 뒷산에 모여,



함흥기, 권병연 추모비

최인식과 김필선 등이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신호탄을 울렸다. 동쪽에서는 조산리와 사천리
군중이 청곡리 군중과 합세하여 들어오다가 연창
리 대미소(현 터미널 앞)에서 경찰과 충돌하였으
나 계속 밀고 들어왔고,

남쪽에서는 함흥기 구장이 인솔하는 가평리와
손양면 군중이 함께 남대천 동운교(현 산림조합
옆) 앞에서 일경과 충돌하였고 또한 서면 상평리
와 북평리도 박춘실과 노용수가 선두에 섰고, 용
천리 군중은 노병례, 최선극이 큰 태극기를 높이
들고 들어왔으며, 임천리는 김명기와 최항식이
앞장섰고, 거마리는 김종태가 선두에서 태극기를
펼치며 만세운동에 참여를 독려하면서 들어왔
으며,

감곡리 군중은 북문을 통해 이관진, 이원도, 이
원희 3부자가 앞장서 들어오다가 체포되었으나
계속하여 밀고 들어왔다. 그리하여 이미 장을 보러 나온 장꾼들도 합세하여 11시 경에는 4천여 명이 모여 태
극기를 흔들며 울분에 찬 만세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다. 수여리 고 이준재(이종우 선생의 부친) 옹의 증언
에 의하면 “농사철이라 많은 사람들이 논에서 일을 하는데 만세소리가 20여 리 떨어진 수여리까지 들려서
삽과 괭이를 버리고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고 하니 얼마나 컸는지 짐작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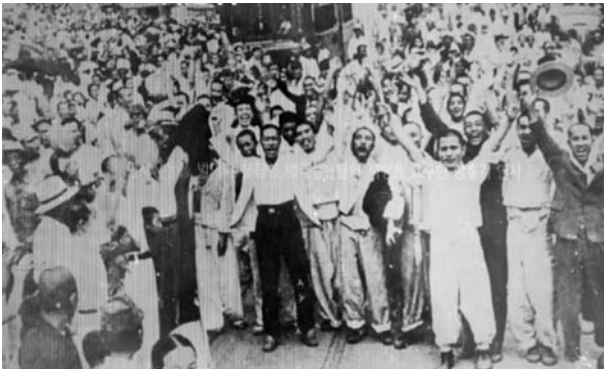


옛 양양시장

일경의 칼에 양팔이 잘리며 항거한 함흥기 열사

만세 군중은 오후가 되자 경찰서 마당에 모여, 전날 임천리에서 체포한 주민들의 석방을 요구하였으나 거
절당하였다. 이에 손양면 가평리 구장 함흥기(咸鴻基:당시 24세)는 경찰서장 실로 뛰어 들어가 항의하다가
땃대로 되지 않자, 서장에게 화로(火爐)를 집어던지려 할 때 옆에 있던 사법 주임이 칼로 팔을 내리치고 허리
를 찔렀다. 팔을 잃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면서도 계속 항거하다가 끝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어서 손양면 간리의 권병연(權炳淵:당시 26세)도 항의하자 일본도에 목을 맞아 쓰러졌고, 밖에서는 격분
한 군중들의 함성이 높아지면서 서면 상평리의 김학구(金鶴九)도 울분을 참지 못하고 또다시 항의하다 일경
이 연발총을 발사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때 가평리의 신영목, 북평리의 용조원과 이흥달은 턱뼈가 부러



만세군중

지는 등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으며 세 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전국 3.1운동사에 양양의 함흥기 열사처럼 일경에 팔이 잘려나가면서도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한 예는 없으며, 그 후 양양의 3.1만세운동은 4월 9일까지 일주일 간 질서있게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물치(物淄) 장날 만세운동 (4월 5일)

1919년 1월 21일 고종 황제가 승하하자, 양양에도 일제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설초 이석범(雪樵·李錫範) 선생은 유림 10여 명과 함께 고종의 인산(因山)에 참례하기 위해 2월 말 한성(서울)으로 떠났다. 한성은 거리마다 온통 전국에서 올라 온 사람들이 고종의 죽음을 애도하는 곡소리가 연일 북새통이었다.

그리고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기미독립만세운동을 직접 목격하고 독립선언서를 몰래 숨겨 3월 20일 귀향하였다. 당시 이석범 선생은 한일병합이 되자 대한제국 중추원의관의 벼슬이 버리고 도천면 중도문리에서 쌍천서숙을 건립하여 후배 양성에 매진하고 있었는데 누구보다도 독립에 대한 여망이 컸다. 도착 하자마자 동생 이국범과 아들 이재훈(이명·능렬)을 불러 강현면과 도천면의 만세운동을 맡기고, 본인은 태어난 양양면 임천리 함평이씨 문중 이교완 집에 머물면서 4월 4일 양양 장날을 기하여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사람들을 모았다. 양양 3·1만세운동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강현면 전경

가장 비폭력적이며 조직적인 만세운동을 하라!

이석범 선생이 임천리에서 장날을 하루 앞둔 3일 밤, 이교정, 이건축 등 집에서 태극기를 만들던 중 군수 이동혁에게 발각되어 마을주민 22명과 함께 체포되었다. 이렇게 되자 동생 이국범과 아들 이재훈은 긴장했고 서둘렀다. 급기야 강현면과 도천면의 유교세력, 쌍천학교의 졸업생, 물치리 감리교회 청년세력 그리고 각 마을 구장들과 연합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리고 일제가 1914년에 강현면은 원래의 강선면과 사현면을 통합하여 면사무소는 장산리에, 도천면은 소천면과 도문면을 통합하여 면사무소를 대포 항구 내에 두었다. 강현면 책임자로 장세환, 김두영, 양익환, 김철기 등으로 정하였고, 도천면 책임자로는 김경영, 이종국, 박사집, 이종순 등을 신속히 정했다.

이석범 선생이 구속된 가운데 4일 양양 장날 만세운동은 예상 밖으로 격렬하게 일어났다. 이날 아들 이재훈은 도천면 중도문리 이종황의 집에서 친목계를 가장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오늘 양양 장날에서 일어난 만세소식과 내일 물치 장날의 계획을 서둘러 짰다. 그리고 태극기는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중도문리 마을 언덕위에 있는, 당시 세도가 컸던 전주 이씨 종갓집인 이종국의 집에서 흰 옥양목으로 대형 태극기를 제작하고 만세군중이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그리고 폭력적인 만세운동이 일어날 경우 일제에 또 다른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비폭력적이며 조직적인 만세운동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드디어 4월 5일 물치장날 만세운동을 일으키다.

드디어 4월 5일 물치 장날이 밝았다. 이날이 양양 3·1만세운동 둘째 날로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



만세운동 재현행사



쌍천서숙(1913년)



도천면 대포항 전경



현 대포항

다. 전날 모임에서 강현면 만세군중은 물치 장터에 모여 만세를 부르기로 하였고, 도천면 만세군중은 대포리에 있는 경찰주재소로 가서 만세운동을 하기로 했다. 당시 양양은 서쪽으로 험준한 태백산맥에 막혀 한성으로 가는 육로는 왕래가 어려웠고, 대포 항에서 배로 원산항을 거쳐 개성과 한성으로 갔으며, 또한 대포 항은 영동에서 영서로 잇는 물류 항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이곳에 당시 도천면 면사무소와 대포금융조합 그리고 일본 경찰주재소가 모두 있었다. 이에 옆 마을인 물치리는 상업의 중심지로 번성했다. 그래서 양양 장 다음 날인 매 5일과 10일 자로 정해진 물치 장은 양양 장 만큼 큰 장이 섰다.

물치장터에는 아침 일찍부터 강현면 일부 만세군중이 물치 장터로 가다가 도중에 강현면 장산리에 있는 면사무소에 들렀는데, 면장과 직원들은 모두 도망가고 남아있던 서기 김남훈은 만세를 함께 불렀다. 그리고 도천면에서 온 군중들과 합세하였다. 김두영, 박제범, 김대선이 옥양목으로 만든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선두에 섰으며, 면민들은 작은 태극기를 손에 들고 물치 장터로 모여들었다.

한편 이국범이 인솔한 중도문리 주민들은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나무내 고개(세칭:만세고개)를 넘으면서 만세를 부르고 그 행렬은 장장 6km가 넘는 길을 걸어 계속 만세를 부르면서 물치 장터에서 강현 면민과 합세했다. 물치 장터 쌀가게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태극기를 높이 세워 흔들며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며 일본인은 돌아갈 가라고 주장하였다.



대포보통학교(1919년 4월 1일 개교)

만세를 불러 일본 경찰주재소를 완전 굴복시키다!

강현면 만세군중은 오전 11시경, 모두 물치 장터에 모여서 ‘대한 독립 만세’를 목이 터져라 부르고, 오후에는 하북리에 사는 이철우가 대형 태극기를 앞에서 높이 들고, 회룡리의 박봉래의 선창으로 독립만세를 계속 소리 높여 외치며 대포리에 있는 일본 경찰주재소로 행진하였다. 대포 항에 도착하니 이미 도천면의 군중들이 벌써 와 있었는데 그 수는 1천여 명이 넘었다.

두 면민이 모여 부른 만세소리가 천지를 뒤 흔드는 것 같았고 기세가 당당했다. 그리고 일본 경찰주재소 앞에서 모두 한 목소리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연신 외쳐댔다. 이미 겁에 질린 일본 경찰들은 일본인 가족들을 아침 일찍 배에 태워 바다로 피신 시켰고, 일부 직원들만 남아있었다. 겁을 먹은 일본 경찰주재소 수석(首席)은 만세 군중들 앞에 나와 “우리는 돌아 갈 테니 제발 조용히 만세만 부르고” 돌아가 달라고 간청했다. 날이 점점 저물어지자 만세 군중은 이제 독립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내일 양양에 가서 다시 만세를 부를 것을 약속하고 질서 있게 모두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3·1만세운동 직전인 1919년 4월 1일 개교한 대포초등학교는 지금도 대포 항 언덕 위 그 자리에서 올해로 100년 째, 그날의 만세 함성이 이 항구의 물결을 일렁거리게 한 대포항을 내려다보고 있다.

양양의 3·1만세운동

4월 6일 상평리 김학구 장례 만세운동

1919년 4월 6일은 양양 3·1만세운동 제3일 째 일어난 날로, 양양면·손양면·강현면·도천면·서면이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그 중 서면 상평리 김학구(金學九)의 장례 만세운동은 전국 기미만세운동 중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특이한 만세운동이었다.

첫 번째는 손양면, 강현면, 도천면의 군중이 양양면에서 와서 만세를 불렀고, 두 번째는 양양면 양양보통학교 4학년 졸업반 학생들이 경찰서 뒤 언덕에 올라가 만세를 불러, 어린 학생도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세 번째는 4일 장날 경찰서 마당에서 일경의 총탄에 숨진 서면 상평리 김학구의 장례식이 있었던 날이었다.



만세운동 재현행사

손양면·강현면·도천면 군중이 양양으로 들어오다

손양면은 상왕도리 구장 김종택(金鍾澤), 주리 구장 최한두(崔漢斗), 우암리 구장 김진렬(金振烈)이 주동이 되었다. '대한독립지기(大韓獨立之旗)'라고 쓴 깃발과,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농기를 들고 농약대까지 대동하고 남대천 다리에서 저지하던 일본 수비대를 뚫고 양양장터로 들어왔다.

또한 강현면과 도천면의 군중들은 5일 대포주재소에서 일본 경찰이 물러가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리고 6일은 아침 일찍부터 삼베주머니에 도시락을 싸서 망태에 넣고 15km 이상 되는 양양까지 만세를 부르며 걸어서 들어왔다. 어제는 대포주재소에서 일본 경찰 가족들이 이미 배를 타고 피신해 있는 것을 직접 보았기



만세운동 재연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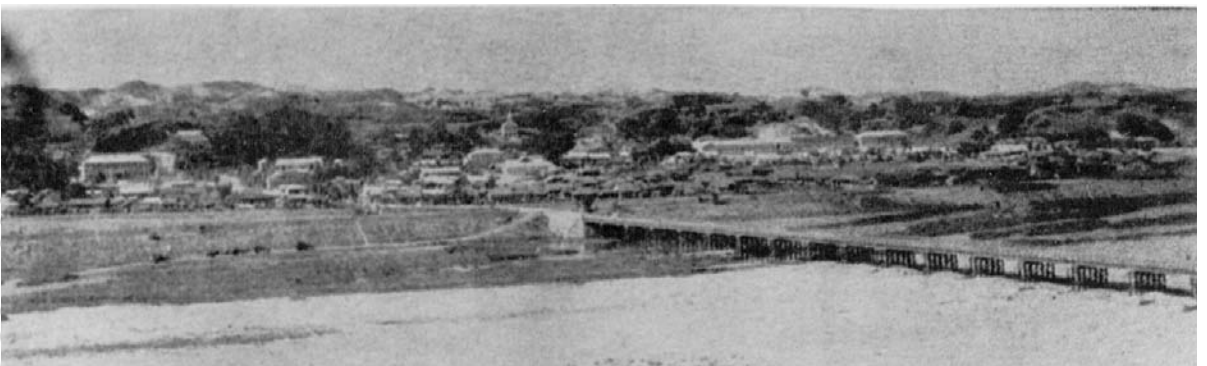
때문에, 만세를 부르면 정말 독립이 될 것 같아서 바쁜 농사일을 모두 미루고 양양으로 온 것이다.

그러나 오늘 양양면의 사정은 달랐다. 점점 거세져 가는 만세운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1개 소대 군 병력이 양양군에 주둔하였다. 이재훈과 김원식이 앞장선 군중들이 양양면 연창리에 이르렀을 때가 오후 1시경이었는데, 수비대는 새끼줄로 길을 막고 통과를 막았다. 한참 동안을 옥신각신 대치하다

가 새끼줄을 끊어버리고 만세를 부르며 양양장터로 의기양양하게 들어왔다.

이미 들어온 손양면 300여 명의 군중과 강현면과 도천면 만세군중이 합세하여 경찰서장과 군수는 “양양에서 떠나라”고 요구했고, 만세군중은 ‘대한 독립 만세’를 계속 외쳤다. 그러자 일본 경찰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행동으로 만세군중에게 ‘일본 사람은 돌아 갈 테니 군중도 돌아가라’고 허리를 굽혀 간유(懇諭·정성을 다하여 회유)하며 빌었다. 그리하여 일본 경찰의 물러가겠다는 설명을 듣고 만세 군중은 오후 늦게 모두 돌아갔다.

그러나 일본 경찰은 얼마 후에 만세운동 가담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검거하기 시작하였다. 피신한다고 해도 그들의 가족을 괴롭혔고, 또 한창 못자리철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수하여 태형을 받고 농사를 지어야 했다. 도천면 중도문리 이종인, 이정렬, 이재환 등은 자수하여 60대(2개월의 자유형)의 태형을 받았고, 정암리 김사만도 태형 180대를 나누어 받았다.



옛 양양 전경

양양보통학교 학생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이날 경찰서 뒤 군행리 언덕에서 양양보통학교 학생들이 모여 만세를 불렀다. 학교 후교령이 내려지자 4학년 졸업반 김억준(金億俊), 이창식(李昌植) 외 10여 명이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독립만세를 불렀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김억준 학생은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까지 끌려갔다가 나이가 어려서 풀려 나왔지만, 이렇게 양양 3·1만세운동은 남녀노소 어린 학생들도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겠다는 의지가 대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서면 상평리 김학구의 장례 행렬 만세운동이 일어난다

지난 4일 양양 장날 경찰서 만세운동에서 총살당한 김학구는 원래 강현면 침교리 사람이었는데, 서면 상평리 권성심에게 데릴사위로 와서 처가살이를 하였다. 그러나 장날 만세운동에 참가했다가 함흥기, 권병연은 일본 경찰의 칼에 맞아 숨졌고, 김학구는 경찰이 발포한 총탄에 경찰서 마당에서 숨졌다. 일본 경찰은 유혈이 낭자한 시신을 경찰서 뒷마당에 옮겨놓자, 서면 책임자 노용수가 “끌고 가자” 라고 소리치자 이형우가 업어 자기 집 뒷마루 밑에 멍석으로 덮어 안치했다. 다음날 가족이 찾아가 장례를 치렀는데 전국 기미독립만세 중 유래가 없는 특이한 만세운동으로, 나라를 잃은 민족의 눈물 속에 치러진 장례 만세 사건이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는데 통곡의 행렬이었다. 상평리 마을 사람들은 상여를 메고 서면사무소로 갔는데, 이미 상여가 도착하기 전에 격분한 주민 100여 명이 먼저와 만세를 부르면서 면사무소를 습격하자 면장과 면 직원들은 도망쳐 버렸고 면사무소는 텅 비었다. 만세운동은 바쁜 농사철에 일어났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참여하여 ‘대한 독립 만세’를 불렀고, 상여를 맨 사람들은 상엿소리로 원통한 영혼을 위로하다가 다시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며 울부짖었다.


상여는 면사무소를 떠나 외진 산길을 따라 30여리 되는 그의 고향 침교리로 상엿소리와 만세를 부르며 강



장례행렬



농자천하지대본 농기



현면 물갑리 고개에 이르렀다. 이때 강현면 침교리에서도 상여를 메고 이곳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양 마을 사람들은 통곡을 하며 관(棺)을 서면 상여에서 강현면 상여로 옮겼다. 마침 양양면 만세 현장으로 가던 강현면과 도천면의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함께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며 통곡하니 눈물바다를 이루었다고 한다.

후일 중도문리 이종인의 증언에 의하면 “어느 동기가 죽은들 그렇게 눈물이 나겠습니까?”라며 눈시울을 적시며, 이렇게 침교리로 와서 장례를 지냈는데 일본 경찰은 여기까지 찾아와 사설묘지에 묘를 썼다고 하여 다시 파내어 공동묘지로 옮겼다고 한다.” 또한 서면 구룡령 넘어 조개리 지식화(池石化)는 장례식 군중이 먹을 음식 100여 명분을 준비하여 걸어서 상평리로 왔다가 경찰에 결국 체포되었다.

이에 울분을 참지 못한 마을 사람들은 다음날 다시 면사무소 앞에서 격렬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는데, 4월 11일자 강원도장관의 보고를 보면 “사흘 동안 면사무가 중지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양양 3·1만세 운동과 종교계 활동

1919년 3·1만세운동 당시 양양군은 7개면으로, 상업의 중심지는 양양면 양양장터와 강현면 물치장터였다. 동해안을 따라 만들어진 도로는 교통수단으로 발달하지 못했고, 영서지방과의 교류는 오색령이나 구룡령 산길을 도보로 넘어 다녔다.

그러나 양양의 문호인 대포항에서 뱃길로 원산항을 거쳐 경원선 철도를 이용하여 경성(서울)으로 쉽게 오갔다. 또한 러시아 연해주까지도 연결되어 있어 대포항은 교통의 요충지였다. 이에 인근 마을에 있는 물치장터는 상업으로 크게 번성하였다.



옛 양양장터

유교 중심의 유림사회가 주도하다

당시 양양은 보수적인 경향이 강한 유림중심의 사회였다.

고려조부터 향교를 중심으로 한 유학의 고장으로, 유림들은 씨족과 집성촌을 이루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중 대표적으로 임천리 함평이씨와 광주노씨, 손양면 수여리 전주이씨, 조산리 강릉최씨, 현남



현 물치장터

면 한양조씨 등이었다.

양양 3·1만세운동은 1919년 3월 말에 유림의 대표인 이석범(李錫範) 선생이 향리 10여 명과 함께 고종황제 인산(因山)에 참여 후 독립선언서를 몰래 숨겨 오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종교인, 양양보통학교 출신의 마을 구장들과 농민들을 규합하여 4월 4일부터 9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조직적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했다.

기독교인이 독립운동에 참여하다

1901년 10월 5일 하디 선교사가 강원도에서는 최초로 양양면 성내리 17번지에 성내리교회(양양감리교회)를 설립한 후, 1908년 경 전도부인 백설화에 의해 양양면 조산리에 조산교회를 설립, 1910년 경에는 충청도에서 안순학이 강현면 물치리로 이사 오면서 물치교회를 설립하였으며, 또한 현북면 기사문리에서 태어난 이풍운 목사도 1910년 4월 5일 세례를 받고 현북면 상광정리에 광정교회를 설립하였다.

또 한편으로 양양감리교회 조영순 전도사의 딸 조화벽(趙和璧)은 1919년 3월 3일 개성 호수돈여학교 재학 중에 비밀결사대원으로 어윤희, 권애라 등과 함께 개성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만세운동이 확산되자 3월 5일 휴교령이 내려졌고, 조화벽은 독립선언서를 버선목에 숨기고 경원선 열차로 원산을 거쳐 배편으로 고향인 양양 대포항으로 들어왔다.

대포항에 도착하자 일경은 소지물을 전부 압수하고 조사하였지만 가방 속에 숨겨온 독립선언서는 발각되지 않았다. 조화벽은 청년지도자인 김필선에게 독립선언서를 인계하고, 당시 유림의 지도자인 이석범 선생과 연결되어 만세운동을 함께 계획하였다.

그리고 양양교회 김영학牧사는 1918년부터 1922년까지 시무하면서 조산교회, 물치교회, 광정교회를 순회하며 독립사상을 고취시켰다. 또한 만세운동에 모인 군중들에게 입장연설을 하다가 일경에게 잡혀가 무수한 매를 맞고 서대문 감옥에서 6개월 간 복역하였다.

민족대표 만해 한용운 스님 낙산사에 기거하다

양양은 통일신라시대 이후 불국정토(佛國淨土)의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웠다. 삼국시대 신라가 강성해 지



현 양양감리교회

면서 양양을 중심으로 불교의 성지로서 면모를 갖추었고 많은 사찰과 문화유적이 전해 오고 있다. 기미년 3·1독립만세운동 당시 양양의 신흥사에 원적을 둔 만해 한용운(萬海 韓龍雲) 스님이 낙산사에 주소를 두고 기거하고 있었다.

그는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서 독립선언서의 공약삼장(公約三章)을 기초하였고, 자주 독립을 위해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는 죽음을 무릅쓴 각오로 3·1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에 일경에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3년간 옥고를 치르고 출옥 후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현 낙산사 의상대

4월 7일 만해 한용운의 민족정신에 감응된 낙산사 스님들은 저녁 술시정각(戌時正刻:오후 8시 정각)에 범종을 울리는 것을 신호로 고각에서는 법고소리를 계속 울렸다. 이에 모두 오봉산 정상에 올라 바라소리를 울리면서 햇불을 들고 삼천대천세계(三千大天世界)에 이르도록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다시 절로 내려와서는 법당에서 자정까지 대한독립을 염원하는 불공을 올렸고, 각 면에서는 산위에서 봉화를 올려 전군민이 봉화를 바라보며 조선독립을 염원하는 만세를 불렀다.

최재우가 창시한 동학사상이 전파되다

양양의 천도교는 1860년 최재우(崔在宇)가 창시한 동학사상이 2대 교주인 최시영에 의해 전파되었다. 1869년에 김경서, 최해근이 경상도 영양군 일월산에 있던 최시형에게 다녀온 그해 3월부터 1870년 10월까지 양양 산중에 은거하면서 포교하였다. 그 후 1908년 4월경에는 천도교 회당 1개소가 세워졌으며, 교구장 및 교역자 2명과 신도 213명으로 창립하였다.

만세운동 첫날인 4월 4일 오후에 경찰서장실에서 함흥기와 함께 뛰어 들어가 화로를 던지려던 간리의 권병연도 일경의 칼에 목을 맞아 쓰러졌는데, 당시 신분이 확실치 않던 권병연 외에도 서면 상평리 박춘실, 도천면 논산리 손계원, 서면 조개리 지식화는 모두 의병이나 천도교인으로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4월 6일 조개리 지식화는 상평리 김학구의 장례식에 먹을 음식 100여 명분을 준비하여 걸어서 왔다가 일경에 체포되자, 다음날 4월 7일 이에 격분한 천도교인들과 양양면 만세군중 300여 명이 합세하여 양양장터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만세를 크게 불렀다.

<당시 일경이 강원도장관의 전화보고문은 다음과 같다.>

「양양군 7일 오후 2시 반 천도교도(七日 午後 二時半 天道教徒)를 중심(中心)으로 약 3백명(約 三百名)의 군중(群衆)이 운동(運動)을 개시(開始)하여 양양읍내(襄陽邑內)에 압기(押奇)하여 부수모자 4명(付首謀者 四名)을 체포(逮捕)하여 해산(解散)시켰다.」라고 보고하고 있다.

위와 같이 양양 3·1만세운동은 유림 대표 이석범 선생과 기독교인 조화벽과 김영학 목사와 애국 독립사상을 가진 권병연과 지식화 같은 의병 출신이나 천도교인, 그리고 불교계의 거장 만해 한용운 스님 등 종교계의 걸출한 독립 운동가들이 목숨을 바친 구국운동으로 전국에서는 유래가 없다.

양양 3·1만세운동과 현산학교

양양지방은 한반도 동해안 중심에 위치하면서, 양양의 진산인 설악산에서 남대천이 동해로 접하는 농촌지역으로, 동해를 접하고 있으나 어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농업에 주력하여 농촌 중심으로 계 문화와 두레가 발전하였다.

그러나 80%가 산악지대로 생활은 넉넉하지 못했으나 산수(山水)가 수려하여 풍요로운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나라에 변고가 생기면 애국 충정하는 충절의 고장으로, 기원전 예국(濊國) 때부터 문화와 예술, 가무를 즐기면서 살아왔다.

일경의 무차별 총살로 반일감정 악화

1905년 을사조약 체결로 국권을 빼앗기자 일제의 강압으로 농민들은 핍박으로 시달렸다.

1908년 6월 17일 한낮에 손양면 송전리 쌍호에 오리사냥을 나온 일본 순사가 집에서 베를 짜는 송전리 고씨 부인을 희롱하므로 마을 서당 훈장인 고익주가 분개하여 일본 순사를 꾸짖었다.

일본 순사는 소지한 총으로 그 자리에서 무참히 사살하였으며, 또한 이를 목격한 고혁주와 고광하도 항의하자 역시 차례로 사살하여 조용했던 마을에서 갑자기 3명이 숨지는 치욕적인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양양 농민들은 반일감정이 점차 높아져 갔으며 그 분노가 3·1만세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강원도 최초의 사립 현산학교가 설립되다

남궁억(南宮穉)은 1905년 12월 26일 양양군수로 임명받고 1906년 2월에 부임하였다. 이것이 양양에 일찍이 신문화 교육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남궁 역 선생 동상

남궁역은 근대의 대표적인 개화파 지식인으로 독립협회와 황성신문을 통하여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서는 민족의 자각과 교육을 통한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한 인물이었다.

남궁역은 부임하자 학교를 세우기 위해 기부금을 모으기로 하였다. 하지만 유교를 숭상하는 대부분의 지방 유림들은 비협조적 일수 밖에 없었다. 남궁역 군수는 국권 회복과 민족 부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본인의 사재(私財)와 문중을 설득하여 기부금을 모으니, 결국 유림에서도 1만량의 기금을 출연했고 이를 기본금으로 현산 학교를 세웠다.

1906년 9월 8일 현산학교가 인가되었고, 1910년 4월 1일 양양공립보통학교로, 1951년 9월 1일 양양국민학교로, 1996년 3월 1일 양양초등학교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00년이 넘는 역사를 계승한 영동지역의 초등교육의 산실인 것이다.

이렇게 강원도 최초의 사립학교인 현산학교를 세우고 학생을 모집하였으나 입학을 지원하는 학생이 없어 이별 방문을 통해 설득해 보았고, 자녀가 있는 집마다 의무적으로 한 명씩 학교에 강제로 보내도록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점차 고성과 강릉, 삼척 등 각 지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들어 약 200여 명의 학생을 모집하게 되었고, 학제는 3학년 과정으로 학생들의 나이는 17~8세까지 상투를 튼 학생도 있었다.



옛 현산학교 터

남궁역 군수는 학생들에게 직접 영어와 음악을 가르쳤고 산수, 역사, 일어, 체조, 국문과 한문도 가르쳤다. 수업료는 없었고 공책과 연필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국권갱생(國權更生)의 길은 오직 교육 밖에 없으며, 민족주의 정신을 함양시키는데 교육의 목표를 두고 구국교육을 실시하여 후일 양양 3·1만세운동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

현산학교 출신들이 만세운동의 주역이 되다.



옛 현산학교 터 만세운동 재현

양양 3·1만세운동 당시 남궁역 군수가 설립한 현산학교에서 신문화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각 마을 구장을 맡고 있었으며 또한 지역 유지로서 활동하고 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3·1만세운동은 각 마을 마다 급속도로 조직화 되어 만세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다.

유림 대표이며 3·1만세운동의 주모자인 이석범 선생은 양양보통학교(전 현산학교) 1회 졸업생인 최인식(崔寅植)을 계획에 참여시켜, 유림이 접근하기 힘든 청장년층과 농민, 종교인 그리고 각 마을 구장들과 신속히 연결되었다.


같은 시기에 양양감리교회에서는 3월 하순 조화벽이 가지고 온 독립선언서를 당시 교회 청년지도자이며 양양보통학교(전 현산학교) 8회 졸업생인 김필선에게 전달되었다.

당시 양양보통학교 출신인 최인식, 김필선, 김계호, 김주호 등은 선후배 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유림 세력, 감리교 세력과 그리고 민족의 독립을 열망하는 농민 세력과 서로 일치되어 연합 세력이 빠르게 형성되었다.

또한 양양 3·1만세운동에서 가장 장열(壯熱)하게 순국한 손양면 가평리 구장 함흥기(咸鴻基)는 양양보통학교(전 현산



현산학교 졸업증서



학교) 출신으로 양양면의 동창들과 각 마을 구장들과도 인맥이 폭 넓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렇게 양양 3·1만세운동은 남궁역 군수가 설립한 현산학교 졸업생들이 주도적으로 유림, 종교인, 농민들과 연합하여, 1919년 4월 4일부터 4월 9일까지 연인원 1만 5천여 명이 참여하여, 전국 지방에서는 그 유래가 없는 가장 극렬하고 조직적인 만세운동으로 기록되고 있다.

양양 3·1만세운동과 현북면 만세운동 (기사문리 만세운동)

1919년 4월 9일은 양양 3·1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엿새째로, 현북면 기사문리(其士門里) 관 고개(만세운동 이후 만세고개라 부름)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만세운동의 마지막 날이 되었다.

현북면 만세운동 계획은 양양 장날인 4월 9일 양양 장마당에 가서 만세운동을 하기로 하였는데, 4월 6일 원일전리 박원병이 등사하려고 소지한 독립선언서가 발각되어 일경에 체포되면서 일이 처음부터 꼬였다.

그러자 그의 형 박규병은 장리 훈장인 이성운과 함께 원일전리 주민 40여 명이 모인 가마터에서 이 사실을 알리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리고 7일 박규병이 원일전리, 장리, 도리에서 수백 명의 군중을 동원하여 양양경찰서에 구속된 박원병의 석방을 요구하는 만세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일경의 감시는 더욱 강화되었다.

면민대회와 같은 분위기로 만세운동을 시작하다

현북면 만세운동은 상광정리 오세옥과 이응렬이 광정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주동이 되었고, 도리 김재한, 오익환, 박원병, 오정현 등 한학자들은 각 마을 구장들과 합세하여 극비리에 추진하였다.

9일 아침이 되자, 상광정리 김종대는 며칠 동안 만든 태극기 34개와 대형 태극기 1개를 마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대치리(大峙里) 구장 김중성(金鍾聲)을 비롯한 각 마을 구장들이 앞장을 서서 현북면 사무소로 갔다. 군중이 모이자 먼저 도착한 말곡리 문종석, 김익열, 김창환, 권광식, 김종성, 한운성, 이희원, 오



현북면 기사문리 만세고개



3.1절 기념행사

와 같은 자유롭고 단결된 분위기였다.

기사문 주재소로 방향을 바꾸다



기사문리 마을 벽화

를 만세 군중과 함께 구경나온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줄을 서서 노래도 부르며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넘었다, 그러나 이미 기사문 주재소에도 만세운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강릉 수비대가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만세 군중이 주재소 전방 다리 부근에 이르렀을 때 주재소 순사 이홍근이 나와 선두를 막았다. 한참 동안 군중과 옥신각신하였는데, 이를 무시한 하광정리 구장 김진혁의 선창으로 만세를 크게 외쳤다. 곧이어 군중이 따라 부른 만세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그러자 주재소 옆 개울 언덕에 숨어 있던 수비대가 갑자기 탕~탕~탕 발포하기 시작하였다. 순식간에 선두

정현, 김우근 등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군중을 독려하기 시작하였다.

농촌에서는 한창 바쁜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먹밥을 싸가지고 집집마다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씩 나왔으며, 인근 마을에서는 아이들도 만세 소리를 듣고 구경하러 거리로 몰려나왔다.

대략 1천여 명의 군중이 신작로까지 가득 메운 가운데 명지리 운명종과 황선극의 선창으로 “대한 독립 만세!”를 연창하니 군중 모두가 따라 외쳤다. 이 광경은 일제에 항거하는 만세운동이라기 보다 마치 면민대회

현북면 사무소 주변에서 한창 격양된 분위기로 대한 독립만세를 부르며 양양으로 가려고 할 때, 평소 지역에서 신망이 높은 김익제(金翼濟)가 찾아와 군중을 저지 시켰다. 그가 양양에서 이곳으로 급히 온 이유는 지금 양양에는 일본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많은 군중이 몰려간다면 인명 피해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이를 만류하러 왔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자 부득이 계획을 바꾸어 기사문 주재소 앞에 가서 만세를 부르기로 결정하였다. 하광정리에서 기사문 주재소 사이에 나지막한 관 고개(현 만세고개)

에 섰던 주민들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리고 온통 피비린내와 화약 냄새와 적막이 한참 동안 감돌았다. 잠시 후 사방에서 신음소리와 함께 군중들은 흩어졌다.

<당시 상황을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강원도장관이 보고한 전화보고문은 다음과 같다.>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야소교도(襄陽郡 縣北面 下光丁里 耶蘇教徒)를 중심(中心)으로 한 600명 4월 9일 오전10시(限600名四月九日午前10時) 지개 봉(棒)을 휴(携)하고 만세(萬歲)를 고창(高唱)하면서 기사문경찰관주재소(其士門警察官駐在所)를 습(襲)하여 폭행(暴行)하다 때마침 강릉수비대(江陵守備隊)로부터 래(來)한 보병 5명(步兵 五名)과 공력(共力)하여 발포진압(發砲鎮壓)에 노역 폭민사자 9명(努力 暴民死者 九名)을 출(出)함 외(外)에 부상자 약간(負傷者 若干) 있는 모양(模樣)이나 불명(不明)”

전국에서 가장 극렬하게 일어난 만세운동으로 기록되다

이렇게 현장에서 9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순식간에 벌어졌다. 당시의 피살자는 전원거(金元擧, 하광정리), 임병익(林秉翼, 중광정리), 홍필삼(洪必三, 어성전리), 김석희(金錫熙, 어성전리), 고대선(高大先, 어성전리), 황응상(黃應想, 어성전리), 문종상[文鍾祥, 말곡리:2018년 11월 문종희(文鍾熙)로 조사됨], 진원팔(陳元八, 어성전리), 이학봉(李學奉, 명지리) 등 9명이다.



만세운동 재현 행사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위 사망자 중 문종상(1912년생)은 당시 8세로 만세운동에 구경나간 어린아이였으며, 1979년 3월 7일 양양읍 구교리에서 사망하였다. 그의 형 문종희(文鍾熙 · 1902년생)는 당시 18세로 만세고개에서 일경이 발포한 총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고 남평 문씨 족보에 기록이 남아있다. 현재 기록상 문종상은 문종희의 오류임을 밝히고자, 2018년 11월 국가보훈처에 문종희를 독립유공자로 신청을 하였다. 또한 1923년 12월 1일 자 ‘개벽 42호’에는 사망자 총 10명으로 기록하고 있어 앞으로 사실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양양 3·1만세운동은 1919년 4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매일매일 6개면 82개 마을에서 남녀노소 연인원 1만 5천여 명이 참가하였다. 총 12명의 사망자와 43명의 부상자, 체포 142명 중 69명이 실형을 받았고, 후일 일제는 참가자 명부를 작성해 놓고 수없이 많은 주민을 체포하여 태형을 가하였다.

이에 전국 지방에서는 가장 조직적이며 비폭력적으로 일어났지만, 무고한 희생자가 많았던 기미만세운동으로 기록하고 있다.

탁장사(卓壯士) 떡 마을 이야기

1. 탁장사의 탄생

오색 굴아우 맞은편에는 장군바위가 있다. 이 바위는 장수가 말을 타고 투구를 쓰고 달리는 형상을 하고 있어 장군바위라 부르고 있다. (현 장군바위 주유소 뒷산)

송천리는 광산 탁씨의 집성촌인데 탁씨의 22대조가 사망하여 묘를 쓸 때 지관이 초청하여 묘지를 정하기를 부탁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 자리는 “장군바위를 바라보는 이곳에 산소를 쓰면 후손 중에 장사가 태어날 것ियो.”라고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들은 탁씨 후손들은 은근히 장수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고대하였다.

그런데 조선 순조 때 탁씨의 24세손인 탁세주와 전주이씨 부인 사이에 둘째로 태어난 아기가 기골이 장대하여 집 안에서는 이 아이가 장차 장수가 될 것이라고 기뻐하고 그 이름을 탁구삼(卓龜參)이라 지었다.

그 후 장수가 태어난다는 말을 들은 일제는 우려하여 투구모양의 바위를 떨어뜨려 아래로 굴러 버렸고 쇠말뚝을 박아 장수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2. 탁장사의 성장

龜參(구삼)은 낳을 때부터 기골이 장대하여 성장하면서 감히 누가 힘겨루기를 할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음식을 다른 아이보다 2~3배의 양을 먹었고 특히 떡을 좋아하여 할머니(경주 김씨)가 자주 떡을 해주면 엄청 많은 떡을 먹어치웠다. 겨울철에 마을 사람들이 떡 추렴을 하면 2~3되의 찰떡을 먹어치웠다. 그래서 떡보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어느덧 성장하여 힘이 장사여서 어떤 일도 남보다 3~4배로 일을 했다.

3. 탁장사의 힘자랑

가) 통방아를 수렁에 쳐 박다.

탁장사가 양양에서 장을 보고 가던 중 어느 마을에 당도하니 마을 청년들이 모여 큰 나무를 베어 깎아 통방아(큰 나무를 1/2를 속을 파내어 물이 차면 내려가서 방아가 되는 것)를 만들고 있었는데 마침 참을 먹으며 막걸리도 한잔씩 마시고 있었다.

먼 길을 가다가 탁장사도 막걸리를 한 사발 마시고 싶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본체도 안하고 자기들끼리만 먹었다. 이를 괘씸하게 생각한 탁장사는 주막에 들러 식사를 하고 마을 사람들이 돌아간 밤에 그 장소에 가서 만들던 통방아(4~5명이 들어야 하는)를 들어 멀리 논 수렁에 쳐 박아 놓았다.

다음날 아침 다시 모인 마을 사람들은 방아를 찾아다니다 수렁에 박혀있는 통방아를 찾아내고 낮에 지나던 탁장사가 한 짓이라고 생각했다. 탁장사의 힘을 알아본 그 마을 사람들은 탁장사를 찾아와 음식을 대접하고 잘못을 사과하였다. 사과를 받은 탁장사는 수렁에 박혀있던 통방아를 꺼내 제자리에 놓고는 유유히 갈 길을 갔다.

나) 강릉 권장사와 힘겨루기

조선시대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이태조가 창건한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타버린 후 국가 재정이 부족하여 270년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있었던 경복궁 중건에 착수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목재를 모아들였다. 당시 개자니골(현북면 어성전 2리 서남쪽, 일명 개잔리)과 가마소골(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사이 바다재에 아주 큰 황장목이 있었다. 이곳은 양양과 강릉의 접경으로 많은 주민들이 나라에 바칠 별목 부역에 나와 일을 하게 되었다.

이때 공교롭게도 제일 큰 한그루 나무가 경계부근에 서 있어 서로 차지하려는 데서 내기를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나무를 베면서 쓰러뜨릴 때 경계 북쪽으로 쓰러지면 양양이 차지하고 경계 남쪽으로 쓰러지면 강릉이 차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나무가 경계 중간에 쓰러지므로 주인을 가릴 수 없게 되자 또 다시 내기로 이 나무를 지고 가는 편이 갖기로 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통나무를 여럿이 들어 지게에 올려놓고 강릉의 장사와

양양의 장사를 뽑아 내세웠다.

당시 강릉(현 퇴곡리)에 힘세기로 이름난 권장사가 뽑혔고 양양은 송천 탁장사가 나섰다. 먼저 강릉의 권장사가 지고 일어서다가 그대로 주저앉고 말자 다음 양양 서면 송천리에 사는 탁구삼의 차례가 되었다. 탁장사는 나무를 지고 일어나서 걸어내려 왔다.

주위의 숨을 죽이며 바라보던 양양 사람들은 환호성을 쳤고 강릉 사람들은 놀라 혀를 찼다. 마을에 돌아오자 소래(송천리)사람들은 떡을 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 후부터 卓龜參(탁구삼)씨는 卓壯士(탁장사)로 널리 이름이 알려져 매년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탁장사 후계자를 뽑는 놀이로 큰 잔치가 베풀며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였다.

매년 열리는 양양문화제 때도 큰 나무 토막을 지고 일어서서 멀리 가는 탁장사 뽑기 민속 경기가 열리고 있다.

4. 송천리 떡마을

이런 역사적인 인물을 기리기 위해 송천에서는 탁은기씨를 주축으로 온 마을이 떡 마을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신청하여 송천 떡 마을로 지정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 2003년 떡집 건물을 신축하고 10여 가지의 민속 떡을 생산 판매하고 떡 체험마을로 운영되고 있다.

국군의 날은 6·25전쟁 때 양양지역 38선을 최초로 돌파한 10월 1일로 정하다.

1. 북한의 남침준비

양양은 8.15해방 후 소련에 점령당하였고 현남면과 서면 일부만 남한에 속하게 되었다.

1948년 김일성은 수상으로, 남조선 노동당 지도자 박헌영을 부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이후 남침을 준비하기 위하여 김일성은 소련, 중국과 군사 비밀협정을 맺어 소련으로부터 탱크와 비행기 등 최신 무기를 도입하고 중공으로부터는 중국군에 참여하였던 조선의용군(화북지방에서 일본과 싸웠던 중국군 제팔로군) 2~3만명을 지원받아 인민군에 편입시켰다.

2. 북한군의 이동과 부대배치

북한군 제5사단은 함경남도 나남에서 동해북부선 기차를 이용하여 6월 20일 양양에 도착하였다. 북한군 제 5사단은 조선의용군 출신으로 중공군에 편입되어 일본군과 전투를 하였던 전투경험이 많은 사단이었다.

탱크는 남대천 아카시아 숲속에 감추어 두고 기마부대는 양양중고등학교에, 포병부대는 양양도서관 자리에 주둔 남침준비를 완료하고 남침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다.

3. 6.25당시 남한의 상황

영동지방 경비는 제8사단이 맡고 있었는데 1949년 6월 20일 제10연대와 21연대를 기간으로 강릉에서 창설된 부대로 현북면 기사분리에서 흑진동(인제)까지 26km를 담당하고 있었다. 병력은 6,866명으로 경비 구역이 넓어 군

인 2~3명에 지방 마을 청년들이 보조하여 경계하고 있었다.

1950년 6월 24일에는 전국 비상경계령을 해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이하 국군의 고위간부들은 저녁 6시부터 서울 용산 국군회관 낙성식 파티에 참석하여 일요일 새벽에 잠자리에 들었고 8사단에서도 교육을 위해 포대장, 선임하사 급은 대부분 포병학교에 파견 중이었고 대대장도 육군본부에 출장 중이고 부대원은 농촌모내기 도우라고 2주간 휴가를 보냈다. 이런 상황이니 새벽에 남침한 북한군을 막기에는 너무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4. 6.25전쟁 남침과 전투상황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사격과 더불어 북한군 주 공격부대가 현북면 기사문리 38도선을 돌파하여 주문진으로 진격을 개시하였고 또 다른 부대는 양양 영덕에서 서림지역을 공격하여 원일전리를 거쳐 남대천을 거슬러 강릉 소금강 지역으로 남하하였다.

(1) 잔교리 전투

국군 8사단 10연대 제2대대가 담당한 이 지역은 24일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로 경계진지주변의 시계가 매우 불량하였다. 잔교리 188고지에 포격이 시작되자 경계하던 제2대대는 전열을 가다듬을 겨를도 없이 혼란의 회오리 속에 말려들었다. 04시35분에야 북분리 제7중대장으로부터 '적의 공격이 개시했다.'는 급보가 왔다. 곧 이어 제5중대, 제6중대장으로부터 급박한 전황 보고가 잇따르자 이후 연대로부터 철수 명령이 내려져 후퇴하기 시작하면서 인구리 주민들의 피난을 도우면서 후퇴하였다.

(2) 정족산 -진흥동의 전투

이 지역은 제8사단 제10연대 1대대가 경계하던 지역으로 북한군 제1경비단이 서림리 제9중대 정면을 공격하여 왔다. 9중대는 적과 교전중 중대장이 중상을 입고 적의 포대 공격이 집중되면서 포위당하자 분산된 채 철수 하였다. 제 6중대도 분산되어 철수 하였다.



1950년 10월 8일 38도선을 넘어 북으로 진격하는 국군 행렬



진지를 향하여 포격을 실시하는 유엔군

(3) 명지리 일대의 전투(제8사단 10연대 5중대 제2소대장 이흥진 중위 증언)

1950년 6월 25일 우리 소대는 명지리 일대를 새벽 4시 자고 있는데 포격소리에 깨었더니 282고지에 포탄이 비오듯 쏟아진다는 보고였다. 133고지로부터 적이 새까맣게 공격해 온다는 것이었다. 20명의 예비 병력을 이끌고 출동하며 여성전 중대장에게 보고하였다. 05시에 적은 벌써 133고지를 탈취하고 만세를 부르고 있었다. 30여분간 일진 일퇴를 벌였는데 실탄이 거의 바닥나 후퇴하였다. 장리의 제3소대와 통신이 두절되었으나 나중에 여성전리에서 합세하였다.

4. 유엔군의 참전

1950년 6월 26일 4시(미국 25일 오후 2시) 유엔 안보리에 소집되어 북한군의 진격 중지와 38도선 이북으로 철수를 요구하고 6월 29일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과 38도선 이북 군사시설 폭격을 명령하였다. 7월 1일 미군 선발부대가 부산에 상륙하고 7월 5일 오산에서 첫 교전을 치루고 7월 7일 유엔이 유엔군 사령부를 설치하고 회원국들의 무력원조를 요구하여 미국을 비롯한 호주, 캐나다, 등 16개국이 참전하게 되었다. 8월 초(전쟁 47일차)낙동강 방어선까지 후퇴를 거듭하던 국군과 유엔군은 8월 11일(전쟁 48일차) 포항에서부터 북한군을 섬멸 격퇴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50년 9월 15일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국군과 유엔군은 북진을 계속하였다.



38도선 돌파하는 국군 (1950)

5. 양양 기사문리 38선 돌파한 날이 국군의 날

1950년 9월 29일 국군 제3사단은 삼척을 점령하고 9월 30일 38도 선상의 인구리에서 멈추고 북진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이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토통일이여야만 한다.’는 내용의 전문을 보내고 침략자를 격멸하고 통일을 달성해야 할 한국 국민의 권리가 있다고 그의 신념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UN군 사령부는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한 다음날 모든 부대는 진격을 멈추도록 명령하였다. 국군도 38도선인 인구리에 정지하고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정일권 육군참모총장에게 38도선을 돌파해 북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정일권 총장은 UN군과의 지휘체계상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미국의 위커장군에게 동해안 전선의 전술적인 상황



38도선 돌파(1950. 10. 1)

하에서 38도선 바로 북쪽의 고지를 점령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해 동의를 얻었다. 그리하여 국군 제1군단장은 9월 30일을 기하여 제3사단은 현재까지의 추격을 계속하여 38도 이북의 양양을 점령하라는 작전명령 제109호를 발하였다.

1950년 10월 1일 05시 경 제3사단 23연대를 선봉으로 북한 인민군 제5사단의 저항을 제압하고 역사적인 38도선 이북지역의 진격을 개시하였다. 그날 10시경 양양을 탈환하였다. 전쟁이 시작한지 99일만의 일이었다. 정부는 이날을 기념하여 1956년에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하였다.

양양지방의 바람 이야기

양양의 봄은 봄바람으로 시작한다. 양지쪽에 눈이 녹고 봄바람이 불면 새싹이 돋아난다. 그러다 강풍으로 돌변하면 많은 시설물을 파괴하고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 특히 산불이 발생하면 강풍으로 인해 불덩이가 날아다니며 이산 저산에 불을 옮겨 걷잡을 수 없이 엄청난 피해를 준다.

1. 양양의 풍신(영등신)

양양지방에서는 ‘바람님’이라 하여 풍신(風神)을 모시는 음력 2월 1일을 ‘영등날’, ‘영동날’, ‘바람님날’이라 부른다. 영등신은 할머니로서 2월 1일 내려왔다가 2월 15일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며 영등신을 따르는 수부신은 20일에 올라간다고 말한다. 이날은 새벽에 주부는 우물에 가서 정화수(井華水)를 길어 장독대에 놓고 소반위에는 오곡밥과 탕, 어물 등을 차려놓고 하늘에서 내려온 풍신 할머니에게 1년간 풍화(風禍)가 없도록 빌고 2월 15일은 풍신 할머니가 승천하므로 이날도 1일과 같이 차려놓고 빈다. 2월 초순에 비가 오면 ‘물영등’이라 하여 풍년이 들고 강풍이 불면 ‘바람영등’이 내려와 흉년이 든다고



석성산

했다. 영등할머니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머느리와 함께 오면 비가 오고, 딸을 데리고 오면 바람영등이라 한다. 그 이유는 비가 오면 머느리 옷이 젖어 밍게 보이게 함이고, 바람이 불면 다홍치마가 바람에 날려 예쁘게 보이기 때문으로 고부 갈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날 어촌에서는 출어를 하지 않고 영등신을 바람님, 풍신, 바람할머니라 부르며 제사를 지낸다.

2. 양간지풍 통고지설

서기 1751년 택리지에서 조선후기 실학자 이증환은 ‘통고지설 양간지풍 일구지난설(通高之雪 襄杆之風 一口之難說)’ 즉 ‘고성과 통천지역은 눈이 많이 오고 양양과 간성지역은 바람이 강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양양과 강릉지방에서는 통속적으로 양강지풍통고지설(襄江之風通高之雪)이라 불려왔다.

양간지풍의 특성은 ‘강한 바람’과 ‘고온건조’다. 양간지풍의 위력은 태풍을 능가한다. 봄철에 양양지방과 간성사이에서 부는 바람은 영서지방에서 영동지방으로 부는 국지풍으로 고온건조하고 풍속이 빠른 특징을 보인다. ‘양간지풍’은 산불이나 대형 화재의 원인으로 주목받아왔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에도 성종 20년(1489)의 대화재와 낙산사 화재 이후 양양, 강릉, 삼척 등 일대에 산악지역과 민가를 모두 태우는 봄철 대형 화재가 자주 발생했음이 기록되어 있다. 기록 가운데에 ‘산화폭발(山火爆發)’, ‘산화치열(山火熾烈)’, ‘화괴비무(火塊飛舞)’같은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국지적 돌풍이 화재의 확산에 바람이 큰 영향을 주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임천리(林泉里) 철수혈(鐵戛穴)의 전설



철수혈

어느 때인가 양양부사가 부임해 보니 어찌나 바람이 심하고 강한지 농작물이 제대로 크지 못할뿐더러 설사 결실은 했다 하더라도 바람에 다 떨어져 버려 농민은 1년 내 농사를 짓고도 굶어야 할 형편이었다. 새로 부임한 부사가 가만히 생각하니 이 고을 사람을 잘 살게 하자면 바람을 막을 수밖에 없으니 강풍의 진원지가 어딘지 알아보아야겠다고 정사에 앞서 바람의 근원을 찾아 나섰다.

사또가 바람이 불어오는 서쪽 방향으로 거슬

러 석성(石城)이 있는 녹문산(현재 임천리 석성산)의 정상에 올랐으나, 바람이 생겨나는 곳이 진원지가 어디인지 그 장소를 알 수 없다. 이리 저리 찾아보니 석성(石城)에는 10여 개의 혈(인근 동민은 철수혈이라 함)이 있다. 귀를 기우리고 자세히 들어보니 이 혈(穴: 구멍)마다 안에서 바람이 나오는 소리가 나기에 부사는 바람의 진원처가 바로 여기였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을 안 사또는 동민을 동원시켜 큰 바윗돌을 가져다가 10개의 혈을 다 막아버렸다.

그리고는 “이제 양양에는 큰 바람이 불지 아니 할 것이며 농사도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돌아왔다. 사또가 돌아오는 동안에는 바람이 잠잠하더니 부중(府中)에 돌아와 동헌(東軒)에 올라서니 전에 일찍이 겪지 못했던 큰 바람이 또 불기 시작했다.

혈의 당처에 바윗돌로 막아 이제 바람이 안불 터인데 이상하다고 행각한 그는 사람을 시켜 그곳에 가보라고 했더니 갔다 온 사람이 말하기를 “굴을 막았던 돌은 다 넘어지고 혈은 옛 모습대로 이었습니다.”하고 보고하기에 사또는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관원과 동민을 데리고 다시 그 굴에 가서 이번에는 혈을 막지 아니하고 제물(祭物)을 차려 혈마다 제사를 지냈다. 그 뒤로부터 바람이 잦다 한다. 이에 유래하여 양양에서는 큰바람이 불기만 하면 이곳 철수혈(鐵鬚穴)에 와서 제를 올렸다고 하며 이 혈을 신혈(神穴)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편 역사적 고찰에 의한 양양산불은 봄 4월에 국지강풍이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양양은 항상 불조심을 생활화하지만 특별히 봄에 불조심해야 한다. 그렇지만 양양의 바람은 해돋이 바람, 산 향기 바람, 여름은 피서 힐-링 바람, 가을은 오색단풍바람, 겨울은 흰 달빛 바람 모두 생기(生氣) 생거(生居)의 바람이다.

제4회 전국한시백일장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입선시

入選詩

제4회 전국한시백일장(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입선시

壯元

松汀 金 教 熙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2길 60
현대A 105동 206호

獨立精神起我東
襄陽呼應亦相同

獨立精神이 我東에서 일어나니
襄陽에서 呼應함도 또한 서로 같았다

糾彈勒約屯兵事
鼓吹尋權復國風

勒約하고 屯兵하는 일 糾彈했고
尋權하고 復國하는 바람 鼓吹했다

千代宣揚無愧赧
萬邦號訴有勳功

千代를 宣揚해도 愧赧이 없고
萬邦에 號訴하는데 勳功이 있었다

百周年遇奈何忘
報答先人南北融

百周年을 만나서 어찌 잊으랴
先人に 報答하는 것은 南北이 융화함이다.

次上

魯岩 曹 秉 烈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향교길 80, 신라연립A 303호

義舉黃羊擅我東
蠻行處處糾彈同

의거 황양은 오로지 우리 동역이요
만행 곳곳에 한가지로 규탄하다.

抗倭意志忠爭日
救國精神烈起風

항왜의 의지는 충성을 다투는 날이오
구국의 정신은 열이일어 나는 바람이라

動地喊聲餘偉積
衝天憤恨樹勳功

땅을 동하는 함성은 위적이 남아있고
충천하는 분한은 고흘을 심도다.

百周又歎鴻溝割
南北交流永合融

백주의 또 홍구 분할을 탄식하고
남북이 교류하니 길이 융합하도다.

次下

愚石 李 煥 植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공로 32번길 59-2

黃羊萬歲起吾東
熾烈襄陽生死同

기미년 만세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니
치열했던 양양이 생사를 같이했도다

下獄堪當遺正義
極刑不屈振威風

옥에 가두는 것을 감당하여 정의를 남겼고
형벌이 극한데도 굴하지 않고 위풍을 떨쳤네.

咸公殉國垂鴻蹟
樵老傳書樹大功

咸鴻基는 순국하여 홍적을 드리웠고
雪樵 李錫範은 선언서를 전하여 큰 공을 세웠네.

南北相爭何日息
分疆統合願和融

남과 북이 서로 다툼을 어느날에나 그칠고
나뉘진 강토 통합하여 화융하길 원하네

次下

和光 張 文 洙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03 삼성그린빌라
322동 103호

喊聲萬歲振吾東
抗日鬪魂天下同

만세함성이 우리나라에 떨치니
항일투혼은 천하가 같도다

決死儒林蜂起勢
捨生教友虎從風

죽기를 각오한 유림은 벌떼같이 일어나는 기세이고
생을 버린 교우들은 호랑이를 따르 품모로다.

趙娘大義成鴻業
李叟貞忠樹偉功

조화벽 낭자의 대의는 홍업을 이루었고
이석범공의 정충은 위공을 세웠도다.

己未精神誰敢忘
願言賴此郡民融

기미년의 정신을 누가 감히 잊을소냐.
원컨대 이에 힘입어서 군민이 융화하기를 바라노라.

參榜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景齋 金 鎮 善

경상북도 문경시 중앙로 170

黃羊運動振吾東
太極旗揚處處同

기미운동 우리나라에 떨쳤는데
태극기 드날림 처처 같네

救國忠心凌鐵壁
抗倭鬪志傲霜風

구국 충심은 철벽도 업신여기고
왜에 항거하는 투지는 서리 바람도 업신여기네

捨身取義餘鴻跡
捐命成仁樹大功

몸을 버리는 의를 취하였으나 큰 자취 남기셨고
목숨을 버리고 인을 이뤘으니 큰 공 세우셨도다.

百歲後今多有感
千秋史籍永年融

백년 후 지금 많은 느낌이 있는데
천추 사적에 영원히 밝으리라.

參榜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海巖 朴 再 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 67번길 15
신성A 106동 702호

喊聲己未闡吾東
義舉襄陽萬姓同

기미년 삼일운동 함성이 우리나라에 널리 퍼졌는데
양양의 의거는 만민이 함께했도다.

團結女男成偉業
喜參老少振威風

단결한 남녀는 위업을 이루었고
기쁘게 참석한 노소는 위풍을 떨쳤도다.

驅倭壯志千秋鑑
救國忠情百世功

왜적을 몰아내고자 하는 장지는 천추의 거울이로다.
나라를 구하고자하는 충전은 백세의 공이로구나.

回憶當時多有感
唯希南北太和融

당시를 돌이켜 생각하니 감회가 많이 있는데
오직 바람은 남북이 크게 화융하는 것일 뿐.

參榜

光元 朴 赫 善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로5길21 현대A 502호

襄陽義舉燦吾東
萬歲聲高怒濤同양양의 의로운 거사는 나라에 빛나니
만세소리 높아 성난 파도와 같았다.獨立達成基礎石
外侵排斥示威風독립을 달성하는데 기초석이고
외국의 침략을 배척하는 시위풍이었다.咸權授命遺鴻勳
李趙傳文樹大功함씨, 권씨 두분은 목숨바쳐 큰 공적을 남겼고
이씨, 조씨 두분은 독립선언문을 전달해 큰 공을
세웠다.回顧當時誰不惜
日人謝罪後相融당시를 회고하면 누구들 슬프지 않으랴.
일본인들의 사죄후 서로 화합하자.

參榜

靑江 尹 元 燮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4길 3, 301호

宣書入手下襄東
避檢奇謀兩不同독립선언서를 손에 넣고 양양동에 내려오니
검문 피한 기모가 두분이 같지 않았도다.李士藏胸成大志
趙娘隱襪振威風이사(이석범)는 가슴에 감춰 큰 뜻을 이루었고
조낭(조화벽)은 버선에 숨겨 위풍을 떨쳤도다.今人總賴驅倭德
後世焉忘救國功금인이 다 왜 몰아낸 덕을 힘입었는데
후세에 어찌 나라구한 공을 잊으리오.萬歲掀旗民幾殉
期頤三一恨難融만세하며 태극기 높이 흔들다가 백성이 얼마나
순국했는가.
기이(백년)된 삼월일일에 한을 녹이기 어렵구나.

參榜

幽香 尹 敦 援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8길 20-9, 201호

抗倭運動續關東
獨立宣言處處同

항왜운동이 관동까지 이어지니
독립으로 선언함은 처처가 같도다.

約法三章傳島賊
喊聲萬歲起韓風

삼장약법을 도적에게 전하고
만세함성은 한풍을 일으키네

權翁義血遺徽蹟
咸老忠屍振偉功

권옹의 의혈은 휘적을 남기고
함노의 충시는 위공을 떨쳤도다.

一百週年多感裡
圖謀光復共和融

일백주년의 많은 느낌속에
광복을 도모하니 함께 화융하리라.

參榜

松潭 李 昌 雨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 21길 49 103동 202호

獨立宣言振海東
當時懷顧感歎同

독립을 선언하니 우리나라가 진동하는구나
당시를 회고하니 감탄이 같구나.

抗倭氣魄衝天勢
護國精神蓋世風

항왜 기백은 하늘을 찌르는 기세는
호국의 정신은 세상을 덮을 만한 바람일세

半萬年間成偉業
三千里內樹豐功

반만 년간에 이룬 위업이요
삼천리 내에 가장 큰 품공을 세웠도다.

苦心先烈致光復
賴此繁孫祈暢融

고심한 선열들이 광복을 이루었으니
이에 힘입은 번손들 창융하기 원이로다.

參榜

然岩 張明韓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6길 3 동촌화성타운
101-301萬歲呼聲振我東
襄陽蹶起郡民東만세부르는 소리가 아동에 진동하니
양양에서도 군민이 함께 쫓기 했도다.李翁主導圖良策
趙女先驅引烈風이석범 선생은 양책(만세운동)을 도모하는데 주도했고
조화벽 여인은 열풍(만세운동)을 이끄는 선구가
되었도다.殉國英雄彰大義
抗倭志士樹元功영웅들은 순국으로 대의를 드러냈고
항왜하는 지사들은 으뜸의 공을 세웠구나.不忘三一一百周迓
忠節之鄉祈暢融잊을 수 없는 삼일운동 백주년을 마지하여
충절지향이라 찬양하기를 기원하노라.

參榜

清軒 鄭相鎬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모산골길 215-10

抗倭三一起吾東
今迓百周多感同왜놈항거 삼일운동 오동에서 일어나서
지금 백주년 맞이하니 많은 감정 같구나萬歲喊聲揚義氣
數章約法振威風만세함성에는 의기를 날렸고
두어장 약법에는 위풍을 떨쳤네.自由可護遺鴻業
獨立能成樹偉功자유를 지키는데 큰 업적 남겼고
독립을 이루는데 큰 공 세웠도다.烈士忠臣誰不仰
賴斯聖世舉民融역사와 충신들을 누가 우러르지 않을까
이에 힘입어 태평세월과 온 백성을 화합하네.

參榜

樂隱 趙 顯 道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1로 51번길 11, 휴먼시아A
201동 2403호

黃羊萬歲咸吾東
義舉襄陽老少同

기미년 만세 함성이 우리나라를 흔들고
양양에서의 의거에 노소가 함께 하였네

獨立追求興烈氣
自由渴望拂威風

독립을 우구하는 정신 열기를 일게하고
자유를 갈망하는 의지는 위풍을 떨쳤네

抗倭鬪志成鴻業
救國精神樹大功

왜구에 항거하는 투지는 크나큰 업을 이루었고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한결같은 정신은 대공을
세웠네.

緬憶當時多有感
願言南北摠和融

아득한 당시를 생각하니 유감이 많도다.
원하옵건데 남북이 다 함께 화합하기를
바랍니다.

參榜

錦泉 車 周 燮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68, 르메이에르
강남타운 1차 901호

未年運動起吾東
萬歲連呼舉族同

기미년 삼일운동은 내 나라에서 일어났으니
만세를 연호한 것은 온 겨레가 한 가지 였다.

獨立宣言揚義氣
平和主唱振仁風

독립을 선언하여 의로운 기개를 고양하였고
평화를 주창하여 인덕의 교화를 진작하였다.

抗倭偉跡千秋鑑
殉國精神百代功

왜적에 항거한 위대한 발자취는 천추에 귀감이요
나라에 목숨 바친 그 정신 백대의 공로로다.

欲慰靈魂何處是
此鄉長憶願孫融

영혼을 위로 하고저 하는데 어느 곳 이런 고
이 고장 양양을 기리 회억하며 그 자손 창성을
기원한다.

佳作

廉伯 金 枸 來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용호길 54-33

萬歲霆聲震海東
襄陽蹶起怒潮同만세의 천등소리 우리나라 진동시키니
양양에선 세찬 밀물과도 같이 쫓기했네鴻基大節燃烽火
錫範深謀惹颶風홍기의 대절은 봉화를 지켰으며
석범의 심모는 선풍을 일으켰다.鄉士笞刑心力義
郡民死鬪血誠功향사태형은 심력의 의지(義志)요
군민의 사투는 혈성에 공이로다殘痕日帝清全燒
懇願和平社稷融일제의 잔재는 말끔하게 모두 태워 치우고
화평한 사직이 융화 하기를 간절히 원하네

佳作

鶴山 金 道 根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211번길 50, 그린빌라
344동 203호襄陽運動著吾東
蹶起鄉民決死同양양의 삼일운동이 우리나라에 두드러지니
쫓기한 향민들의 결사함이 갈도다.毅勇驚天扶國氣
殫忠感地斥倭風하늘도 놀란 굳센 용기 나라를 붙잡은 기개요.
땅도 감동한 탄충은 왜놈을 배척한 품모로다.趙娘壯略成鴻業
李士雄謀樹偉功조낭(조화벽 학생)자의 장략은 큰 업적을 이루었고
이사(이석범 선생)의 응모는 위대한 공을 세웠도다.先烈喊聲回憶裏
精神及世盛和融선열들의 함성을 돌이켜 생각하는 속에
그 정신이 세상에 미쳐 화음이 창성하리라.

佳作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黃羊運動及西東
熾烈襄陽戰地同

闕起人波爭銃彈
示威隊列禦兵風

抗倭鬪志千秋業
救國精神萬世功

殉命先賢誰敢忘
慰靈祭典大和融

素蓮 金 光 順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 259번길 30, 만덕대성A
105동 1701호

기미년 운동이전 전국에 미치니
양양도 치열하게 전쟁터와 같더라

궐기하는 인파는 총탄에 맞았고
시위하는 대열은 병풍으로 막았도다

왜적을 막는 투지는 천추에 업이고
구국 정신은 만세에 공이로다.

순명하신 선현들 누가 감히 잊겠는가
영령을 위로하는 제전으로 크게 융화하리라.

佳作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倭夷侵奪痛吾東
三一精神抗戰同

萬歲喊聲如怒浪
空拳勇氣似狂風

郡民死鬪心魂奉
鄉士笞刑血淚功

恥辱千秋前轍鑑
文明強國日新融

東林 金 茂 豊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일출로 66

왜놈의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긴 분통함을
삼일정신으로 항전하기를 모두 같이하네

만세 함성 소리 성난 파도 소리 같고
맨손의 용기는 광풍 같네

군민 결사적으로 싸워 정신과 혼을 받쳐
시골사는 인사 태형을 맞으며 피눈물로 이겨냈네

수치와 모욕의 긴세월 역사로 거울삼아
문명강국되어 날로 새롭게 화락하세

佳作

晚松 金柄奭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126길 7-12 보성
105동 2001호萬歲黃羊振我東
襄陽蹶起士民同기미년에 독립만세가 우리나라에 떨쳤을 때
양양에서 곳곳마다 쫓기대회가 선비와 서민이
같이 함이라自由鬪志斥倭勢
獨立衷情扶國風자유를 수호하는 투지는 왜적의 세를 물리침이요
충정으로 독립을 보존함은 부국의 조짐이라李老宣言遺懿蹟
趙娘決死樹豐功이석범 선생은 독립선언서를 몸속에 간직하고
주도 계획하며 많은 의적을 남겼고
조화벽 학생은 결사적으로 선언서를 버선목에
숨겨 조직적인 계획과 공을 세웠노라.百週載迺今回顧
南北平和統一融삼일운동 백주년을 맞이하여 지금 회고해 보니
남북이 평화스럽고 화목한 통일이 창성하기를

佳作

靑泉 金昌奎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46번 마길 39 효산아파트
6동 306호襄陽萬歲振吾東
獨立宣言舉族同양양의 만세 소리가 우리나라에 떨쳤으니
온 민족이 다함께 독립선언을 하였다.決死鬪爭彰烈氣
捨生抗拒起威風결사투쟁하여 열기를 드러냈으며
사생항거하여 위풍을 일으켰네驅倭壯志成鴻績
救國忠心樹偉功구왜장지는 큰 업적을 이루었고
구국충심은 위대한 공을 이루었네一百周年多有感
懇望南北總和融삼일운동 일백주년에 다유감하니
남북 모두 화합하기를 간절히 바라도다.

佳作

無非不 金 忠 道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로 60 풍림아이원 106동
1901호

襄陽萬歲振吾東
一百周年感慨同

양양의 만세운동이 온 나라에 떨쳤으니
일백주년을 맞이하여 감개가 한가지로다

絶叫坊坊蜂起勢
喊聲處處虎從風

독립을 부르짖는 곳마다 봉기하는 기세요
만세 함성이 이는 곳마다 호종하는 모습이로다

捨生取義回天步
決死殫忠救國功

사생취의는 우리의 하늘을 되찾는 걸음이요
결사탄충은 구국의 공이었도다.

獨立精神承繼裏
黃羊壯舉願光融

삼일 독립 정신을 이어받는 가운데
기미년의 장거가 광융하기를 원하노라

佳作

靑湖 金 泰 元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78 신영지월B동 603호

宣言獨立闡吾東
萬歲高聲處處同

삼일 독립선언은 우리나라에서 밝혀서며
만세의 높은 소리가 곳곳에서 갈았다.

憤氣方皴爭狡日
義心暴發振狂風

분기가 바로 터져간 교한 일본과 다투었고
의심이 폭발하여 광풍을 떨쳤다.

趙娘襪內網通力
李老身邊書運功

조화벽 낭자의 버선목이 감시망을 통과한 힘이며
이석범 선생 신변에 문서를 운반한 공이로다.

際百周年誰不頌
終來解放總圓融

일백주년을 즈음하여 누가 아니 칭송하리오.
끝내 해방하여 모두가 원융하셨다.

佳作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松巖 金 滢 大

부산광역시 진구 동평로 325번길 24

萬歲黃羊翼嶺東
良民決意抗倭同기미년 만세운동 양양에서도 일어나니
어진백성들 마음모아 항왜함이 갈도다衝天義氣丈夫志
動地忠魂高士風하늘을 찢을 의기는 장부의 뜻이고
땅도 놀라는 충혼 높은 선비 품이네獅吼市場跳賊業
自鳴南水起龍功시장에서 도하는 소리에 도적이 달아나고
저절로 울리는 남대천엔 용이 일어나네百年已過心無忘
先烈雄圖獨立融백년이 넘었어도 마음에 잊을 수 없으니
선열들의 응도가 독립으로 응화되었네.

佳作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智巖 柳 東 烈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섬로 36길 19 현대A
801-1503호抗倭三一起吾東
萬歲喊聲都鄙同삼월일일항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
만세함성이 서울과 시골에서 같이했네獨立宣言舒勇氣
自由發意振威風독립선언 용기 있게 펼치고
자유발의 위풍을 떨쳤네趙娘智略欽鴻跡
李老忠情頌大功조화벽 남자의 지략 큰 자취 공경하고
이석범 선생의 충정 큰 공을 기리네先烈鬪魂光復得
主權享有永年融선열들의 투혼으로 광복을 얻어서
주권을 향유하면서 영년토록 화평하리라

佳作

松徑 朴 壬 義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경상북도 영주시 신재로 12번길 67 103-901호

萬歲喊聲搖海東
襄陽再現古今同

삼일만세 함성이 나라를 흔드니
양양 재현모습 고금이 다르지 않네

自由理念英雄氣
獨立精神敵愾風

자유추구 정신은 영웅의 기운이 있음이요
독립하고자 하는 정신 적에 분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네.

愛國學徒垂懿蹟
捐身烈士樹豐功

애국학도는 항거도 아름다운 자취 드리우고
몸바친 열사 역시 나라위한 공이 깊네

百年已過無忘史
三一忠魂永世融

백년이 지나가도 잊지 못할 슬픈역사
삼일정신 깃든 혼 영원히 융통하길...

佳作

松甫 徐 正 善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대구광역시 북구 매전로 73, 태전 휴먼시아 105동
2003호

宣言獨立闡吾東
萬歲高聲萬口同

독립을 선언할 때 우리나라를 밝혔으니
만세의 높은 함성은 많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와 한 가지네

救國丹忠開義世
抗倭鬪志起仁風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참된 마음의 충성은 의로운
세상을 열었고
일본에 항거하여 싸우고자 하는 의지는 어진 풍속을
일으켰네

平和政策成鴻業
光復民權樹偉功

평화 정책에 큰 업적을 이루었고
광복을 이룬 백성의 권리는 훌륭한 공훈을 세웠노라

三一精神承繼裏
共存自主永年融

삼일운동 정신을 이어 받는 속에
자주를 공존하여 영원히 화합하리다.

佳作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青廈 孫 重 根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2길 38

襄陽運動最吾東
萬歲嵩呼萬姓同양양의 운동이 오동에서 최고이니
만세소리 높고 온백성이 함께했네救國丹心如日月
抗倭壯志似霜風구국단심 해와 달과 같고
항왜장지 서되와 같도다.捨生取義成鴻業
捐命成仁樹大功생을 버리고 의를 취하여 흥업을 이루고
목숨을 버리고 인을 이루어 대공을 세우고十秩後今安樂裡
先賢景慕與天融백년뒤의 지금이 안락한 가운데
선현을 경모함에 하늘과 더불어 융화로우리다.

佳作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玉波 申 鉉 雄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제원로 3길 10-1

萬歲示威搖海東
郡民死鬪一心同만세의 시위가 해동을 흔든때
군민은 죽도록 싸울 것을 일심으로 같이했네抗倭熱氣疑鎔鑛
護國高聲起烈風항왜의 열기는 용관로를 의심하고
호국의 높은 소리 열풍을 일으켰네隱韎趙娘遺偉績
歸鄉李老樹鴻功버선에 숨긴 화벽 여사는 위적을 남겼고
귀향의 석범 선생은 흥공을 세웠네千秋不忘當時事
勝地襄陽願有融천추에 잊지 못할 당시의 일어나
승지 양양 땅 융화함이 있기 원합니다.

佳作

松巖 安 大 煥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서울특별시 은편구 서오릉로 108-8-B02

黃羊三一闡吾東
獨立宣言處處同

기미년 삼일운동이 우리나라에 열리니
독립선언이 곳곳마다 함께 행해졌네

抗日鬪爭殫勇力
開邦運動起飄風

일본에 대항하여 투쟁에 용맹스런 힘을 다하였고
나라를 새로 세운 운동에 회오리 바람 이르렀네

義人捨命成鴻業
烈士投身樹大功

의사들은 목숨버려 흥업 이루시고
열사는 몸던져 큰 공 세우셨도다

今顧百年多有感
先賢勞苦世沖融

이제 백년을 돌아보니 유감이 많은데
선현의 노고로 지금 세상이 온화하도다

佳作

靑岡 安 永 仁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로 53

未年運動闡吾東
襄郡坊坊萬歲同

기미년 삼일운동이 우리 나라에 드날렸는데
양양군은 마을마다 만세를 같이했네

救國精神行大義
驅倭氣魄振威風

나라를 구하려는 정신으로 대의를 행하고
왜를 몰아내려는 기백으로 위풍을 떨쳤네

咸公殉節餘芳躅
雪老投身樹顯功

함흥기 공은 순절하여 훌륭한 자취를 남기셨고
설초 이석범 선생은 투신하여 두드러진 공을
세우셨네

十秩今迎多有感
先賢懿德願光融

백년을 지금 맞이하여 느낌이 많으며
선현들의 아름다운 덕이 광융하길 원하네.

佳作

古虛 李 相 烈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 26, 현대아이파크 103동
1904호

抗倭憤怒震吾東

항왜분노가 우리나라를 진동케 하니

三一喊聲男女同

삼일 함성은 남녀가 같구나.

決死忠魂開義路

결사충혼은 의도를 열고

捨生氣魄起仁風

사생기백은 인풍을 일으켰네

受難昔日千秋業

석일에 수난을 천추업인데

慶祝今朝萬歲功

금조의 경축은 만세의 공이로다

獨立終成先烈績

독립은 마침에 선열이 이룬 쌓음인데

繁英祖國永光融

번영하는 조국 영원히 광융하리라.

佳作

東坵 李 定 栽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79, 대림A 106-1005호

熱呼萬歲振吾東

뜨겁게 외치던 만세 소리가 오동을 진동하였으니

回憶期前感慨同

일백년전을 돌이켜 생각하는 감개가 모두 같구나

秘計奇謀才女智

비계와 기모는 재주 많은 여성의 지혜였고

雄心壯志義人豐

용심과 장지는 의로운 사람의 모습일세

抗倭烈士遺徽蹟

항왜 열사는 아름다운 자취를 남겼고

救國賢遺樹偉功

구국현유는 크나큰 공을 세웠더라

獨立終成疆土斷

독립을 마침내 이루고 국토가 양단되었으니

懇祈統一勢沖融

간절히 바라기는 남북통일하여 기세가 넘쳐
흐르기를!

佳作

錦綱 李昌京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경상북도 영주시 원당로 19번길 14-35 영남맨션
102호

連呼萬歲震吾東
己未當時義舉同

연달아 만세를 불러 우리 동방을 진동하였으니.
기미년 당시에 의를 거행하기를 같이 하였네.

激憤倭讎侵略史
宣揚民族抗爭風

왜놈 원수의 침략한 역사에 격분하고
민족의 항쟁하는 바람을 선양하였도다.

自由理想推求志
獨立精神實現功

자유 의 이상을 추구하는 뜻이었고
독립할 정신을 실현한 공이었네

一百周年多感慨
賴斯國運益和融

일백주년이 되어서 감개함이 많으니
이에 힘입어 나라의 운수가 더욱 화하고 화하도다.

佳作

晚悟 李興鍾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경강로 4237-17
(유천1리 5반)

三一精神振我東
連呼萬歲舉民同

삼일정신이 진아동 하니
연호만세 거민동이라

喊聲動地排倭日
義氣衝天救國風

함성동지하니 배왜일이요
의기가 충천하니 구국풍이라

蹶起忠情扶社稷
抗爭號令樹勳功

궤기충정은 사직을 붓들었고
항쟁호령은 훈공을 심었네

百周以此分南北
對話雙方統合融

백주년이 되는 이제 남북이 나누어졌으니
대화 쌍방이 통합해서 융화되기 바라네.

佳作

德翁 李 熙 泰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경로 70 보성A 105동 806호

襄陽義舉冠吾東

양양의거는 우리나라 으뜸이며

兩教聯盟蹶起同

유교와 감리교가 연맹하여 같이 꺾기하다

萬歲連呼加熱氣

만세를 연호하면서 열기를 더하며

極旗續拂振威風

태극기를 연속 흔들며 위풍을 진작하다

抗倭授命垂徽蹟

항왜 수명으로 휘적을 디루고

救國捐身樹大功

구국 연신으로 대공을 세우다

三一精神何敢忘

삼일운동 정신을 어찌 감히 망각하라

百年已過恨難融

백년이 이미 지났으나 한을 녹이기 어렵다.

佳作

風水 林 培 日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은행나무길 58

獨立宣書賴我東

독립선언서에 양양이 힘입어

喊聲萬歲怒濤同

만세의 하성은 노도와 같았네

抗倭意志無窮藥

항왜의 의지는 무궁화의 꽃이고

救國精神太極風

구국의 정신은 태극풍을 일으켰네

壯節輝煌千古蹟

휘황하신 장절은 천고에 유적이고

貞忠凜烈百秋功

늠열하신 정충은 백추에 공이네

芳名不朽長長赫

불후한 방명은 길이 길이 빛나고

再現官民熱氣融

관민의 열기 융화로 추모 재현했네.

佳作

應良 張 星 天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 149 중흥 1901-1102

三一精神展我東
襄陽蹶起衆民同

삼일 정신이 아동에 펼쳐지는데
양양의 궤기를 증민과 함께 했다.

霜刀不屈揮旗幅
凶彈無搖振義風

상도에도 굴하지 않고 기폭을 흔들고
흉탄에도 흔들림없이 의풍을 떨치라

護國忠情遺懿蹟
斥倭壯志樹豐功

호국 충정은 의적을 남기고
왜를 물리치는 장지는 풍공을 심었다.

百周返顧多懷切
南北相通結合融

백주년 돌아보니 많은 회포 간절하되
남북 상통하여 화합을 결합하리

佳作

晁巖 田 喜 亮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67 수푸드

襄陽運動闡吾東
槿域儒林感慕同

양양지역 삼일운동이 우리나라에 빛나니
근역(지역)의 유림들이 감모함이 갈도다.

救國精神垂偉蹟
抗倭氣魄振威風

나라를 구하는 정신이 위업을 드리웠고
일본에 항거한 기백이 위풍을 떨쳤다네.

驚天壯志遺弘業
動地貞忠樹大功

하늘도 놀란 장한 뜻은 큰업적을 남기시고,
땅을 흔드는 곧을 충절은 큰 공을 세우셨네

殉節最多何不識
綿綿歷史願昌融

이 고장에서 제일 많은 순절을 어느 누가 어찌
알지 못할까?
끊임없는 우리의 역사가 융창하길 기원하노라.

佳作

三政 鄭 相 植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 391, 환호해맞이그린빌
113동 304호平和獨立願吾東
萬歲喊聲天下同평화적으로 독립을 원하는 우리나라에
만세함성이 전국이 같았다.男女參加彰意志
京鄉蹶起振威風남녀가 참가하여 의지를 드러냈고
경향에서 꺾기하여 위풍을 떨쳤다.國權復活傾全力
民主回生樹偉功국권을 부활하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였고
민주를 회생하기 위해 위대한 공을 세웠다.己未精神承繼裡
達成統一北南融기미정신을 승계하는 속에
남북이 융화하여 통일을 이루자

佳作

虛中 曹 圭 島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2길 60호

三一宣言起我東
襄陽昔日展開同삼일 독립 우동 선언이 기아동하니
양양 옛날에 한가지로 전개되었네群心憤氣似鯨浪
萬歲喊聲如疾風군심이 분기하니 경랑과 같았고
만세함성은 질풍과 같았네殉國衷情興活力
捐身壯志樹鴻功순국의 충정은 활력을 이르켰고
연신장지는 큰 공을 세웠네焉忘慘酷當時事
今百周迎恨未融어찌 잊으리오 처참했던 당시의 일을
일백주년을 맞이했어도 한미움이라.

佳作

大垣 曹 三 承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45, 청구장미A 103동
601호

黃羊義舉起吾東
獨立宣言翼峴同

기미년 삼일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서
대한 독립 선언을 양양군이 함께했네

救國衷情垂偉蹟
斥倭壯志振威風

구국 충정의 위적을 세웠고
왜척의 장지는 위풍을 떨쳤네

李公冒死成鴻業
趙女投身樹大功

이공의 모사는 큰 업적을 이루었고
조녀의 투신은 큰 공을 세웠네

緬憶當時多有感
賴斯邦命萬年融

삼일운동 당시를 돌이켜 생각하면 유감이 많지만
뢰사 방명은 만년토록 융성하리라.

佳作

靜山 崔 在 洛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도음로 821번길 18

襄陽萬歲闡吾東
獨立精神孰敢同

양양의 만세운동이 우리나라를 밝히니
독립 정신을 누가 감히 같이하리오

勇士堂堂彰大義
黎民烈烈振威風

용사들은 당당하게 대의를 드러냈고
백성들은 열렬하게 위풍을 떨쳤도다

趙娘懿蹟遺鴻績
雪老休蹤樹偉功

조화벽 남자의 아름다운 발자취는 큰 업적을 남겼고
이석범 선생의 아름다운 자취는 위대한 공을
세웠도다

緬憶當時多有感
英靈殉國仰欽融

면 당시를 생각하니 느낌이 많은데
순국한 영령들께 앙휼함이 창성하네.

佳作

冠山 秋 鍾 三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9-11 성창A 404호

萬歲聲聲激海東
襄陽熾烈怒潮同만세의 소리마다 우리나라 격렬했었으니
양양도 치열함이 세찬 조수와도 같았구나偕行氣魄衝天地
獨立精神報國風함께 행하는 기백은 천지를 찌르고
독립정신은 충성의 바람이었다.志士笞刑心力操
忠民死鬪血誠功지사는 태형을 심력으로 잡고
충민의 사투에는 혈성의 공이었다當時回顧悲哀史
統合鴻溝永遠融당시를 회고하면 슬픈역사이니
분단극토 통합하여 영원히 융합하자

佳作

石井 黃 在 權

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강원도 속초시 장안로 1길 18호

大韓獨立誥西東
亡國悲前孰慟同우리나라 독립함에 동서양에 알리노니
나라망함 슬픔앞에 누구 나가 통곡이라決死抗爭扶社稷
捨生排擊起民風죽기 각오 항재함은 나라 운명 붙잡이요
생을 버림 물리침에 백성기세 일어났다鴻基義膽無窮讚
寬順忠肝不朽功함흥기의 의로움은 오래도록 기림이고
유관순의 충성됨은 그의 공은 썩지 않아三一精神承繼裏
自由統合萬年融삼일의거 정신으로 이어지는 가운데에
자유 민주 통일하여 오래도록 화합하세

양양 서핑

YANG YANG SURF CITY



서프 시티 양양

SURFCITY YANGYANG

2009년 무렵 죽도 해변에 ‘블루 코스트’ 라는 서핑샵이 생겼을 때만 해도 죽도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다.

편의점, 카페, 횃집…… 이런 것은 기대할 수 없었다. 그해부터 서핑에 빠져 파도가 있건 없건 매 주말 찾았던 죽도의 어느 여름 최성수기, 라인업(서퍼들이 바다 위에서 파도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장소)에서 바라본 드넓은 모래 사장엔 어느 한 가족이 펼친 단 하나의 파라솔만이 있었다.

그때의 그 시원하고 깨끗한 해변의 느낌을 잊지 못한다.

10년이 지난 지금의 죽도 해변은 그때와 사뭇 다르다. 여름 성수기가 되면 수백 개의 파라솔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라인업에는 수천 명에 달하는 서퍼들이 똥똥 떠 있는 진풍경이 펼쳐지니까.

그렇게 죽도 해변이 서핑으로 유명해지는 동안 양양 전역, 동해, 아니 전국에 서핑 붐이 일기 시작했고, 이제는 TV만 틀면 유명 연예인들이 CM에서 서핑을 즐기거나 서핑을 주제로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다.

또한 2020년 도쿄 올림픽부터 서핑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한국도 국가대표팀이 구축되어 현재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양양에는 동서고속도로 개통이라는 호재가 겹쳐 수도권에서 양양을 찾는 길이 엄청나게 가까워졌다.

사실 ‘대한민국 서핑의 역사’를 논할 때 양양은 늘 ‘최초’란 타이틀을 갖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서핑 포인트로 주저 없이 양양을 꼽을 수 있는 이유는 짧은 시간 내에 파도에 미친 서퍼들이 전국에서 양양으로 모여들어 이 한적했던 시골 마을을 서프 시티화 시켜버렸고, 이제는 그곳으로 다시 서퍼가 되기를 꿈꾸는 이들이 모여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상천외한 변화는 파도와 서퍼들이 이루어낸 것이라 생각한다.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파도와 열정 있는 서퍼들이 이루어낸 서프 시티 양양에 대한 모든 스토리를 이 한 권의 책자에 담아내기엔 부족하지만 최대한 알짜배기 정보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

양양을 처음 찾는 이들에게는 양양 전역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이드북으로서, 수차례 찾은 마니아들에게도 숨은 명소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꼭 알아 두어야 할 서핑 용어 A to Z

- 스탠스(Stance) 서퍼가 라이딩을 위해 보드 위에 일어섰을 때 발의 위치를 뜻하며, 왼발이 앞인 레귤러(Regular)와 오른발이 앞인 구피(Goofy) 스탠스로 나뉜다.
- 패들링(Paddling) 서프보드에 누워 물살을 젓는 행동.
- 라인업(Line Up) 서퍼들이 바다에서 파도를 기다리는 곳.
- 테이크오프(Take-off) 서프보드 위에 일어서는 동작.
- 라이딩(Riding) 서퍼가 파도를 타는 것. 컷백 라이딩 중 턴을 하는 동작.
- 포인트(Point), 스팟(Spot) 서핑을 할 수 있는 해변.
- 페이스(Face) 부서지지 않는 파도의 경사면 일체. 국내에서는 글자 그대로 번역해 ‘면’이라고도 많이 부른다.
- 립(Lip) 파도의 꼭대기(Top).
- 피크(Peak) 파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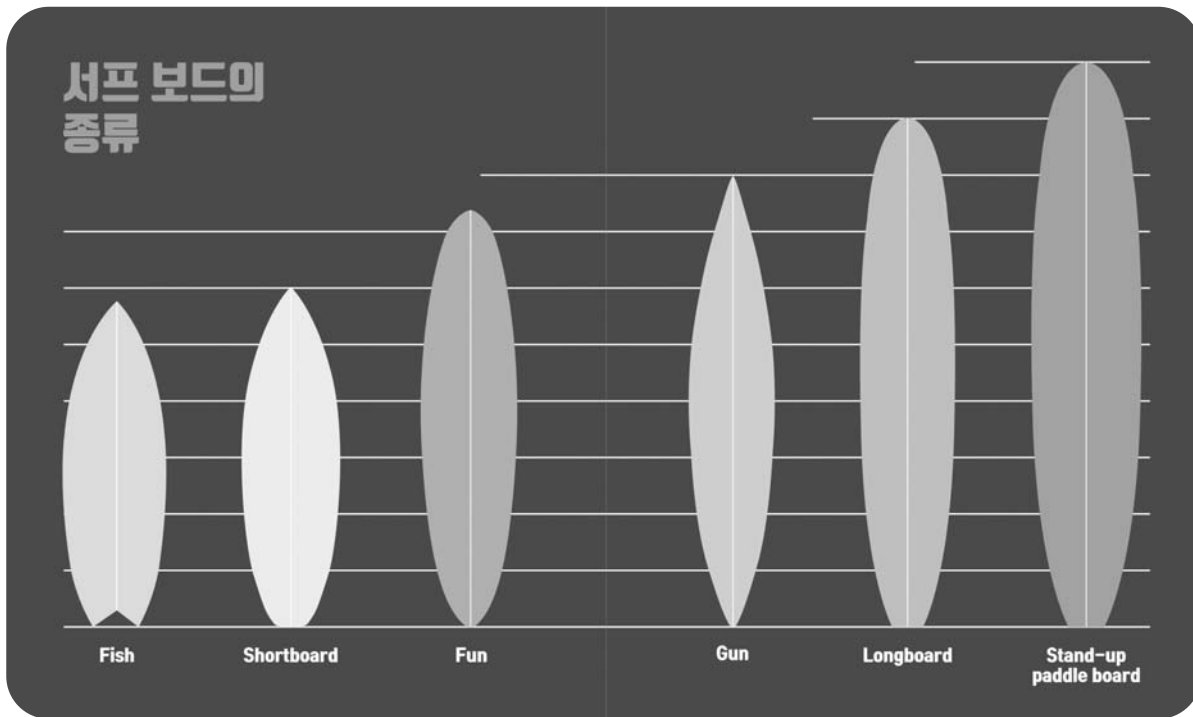
- **숄더(Shoulder)** 페이스에서 피크로부터의 측면 부분.
- **수프(Soup)** 파도가 무너져 거품이 되어 버린 부분. 국내에서는 통상적으로 '거품' 이라 한다.
- **배럴(Barrel)** 파도의 립과 페이스 사이에 동그랴게 생기는 공간. 튜브(Tube)라고도 부른다.
- **에이프레임(A-Frame)** 파도의 피크 부분부터 A자 형태로 그리면서 양방향으로 부서지는 파도의 형태.
- **클로즈아웃(Close out)** 파도가 한 방향으로 무너지지 않고 어느 한 지점에서 한꺼번에 부서지는 파도. 국내에서는 '덤프' 라고도 많이 부른다.
- **드롭(Drop)** 서핑은 피크에서 가장 가깝게 테이크오프를 하는 서퍼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이는 매우 중요한 룰이자 매너이다. 드롭은 피크에서 테이크오프를 한 서퍼의 파도에 끼어드는 비매너 행위를 뜻한다.



파도는 어떻게 생길까?

파도가 생기는 원리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중 바람이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일반적으로는 먼바다에서 바람에 의해 생성된 잔물결이 조류나 바람의 진행 방향을 따라가면서 주변의 잔물결들과 만나 크기를 키워 파도를 생성한다. 그리고 그 파도의 크기가 일정 수준을 넘어섰을 때, 혹은 계속 진행 중이던 해저 지형보다 유독 더 낮은 지형을 만나거나 툭 튀어나온 부분에 부딪힐 때 파도가 깨지게 된다.



■ 롱보드 Long Board

길이가 길고 부력이 높아 테이크오프가 빠르며, 안정감이 뛰어나고 부드러운 턴이 용이하다.

■ 펀보드 Fun Board

숏과 롱의 중간에 위치하며, 안정감과 회전감을 두루 느낄 수 있다.

■ 숏보드 Short Board

전체적으로 길이가 짧고 부력이 낮아 가볍기 때문에 퍼포먼스에 적합하다.

■ 피시보드 Fish Board

일반적인 숏보드보다 길이가 짧지만 뚱뚱해서 부력이 더 강하다. 테일 부분이 갈라져 있어 흡사 물고기를 연상케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 스탠드업 패들 Stand-up Paddle Board

따로 테이크오프 동작 없이 시작부터 보드 위에 서서 노를 이용해 패들해 서핑하는 보드.

■ 건보드 Gun Board

주로 해외의 쓰나미급 큰 파도에 적합한 보드로서, 빠른 회전보다는 안정감과 직진성에 특화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사용될 일이 거의 없다.



1. 이안류에 휩쓸렸을 경우 해변쪽으로 헤엄을 쳐서는 안되며 침착하게 이안류와 45도 방향으로 헤엄쳐서 빠져 나와야 합니다.
2. 수영경계선 밖에서는 해수욕을 금합니다. 다만 서핑을 하는 서퍼들은 서핑보드의 부력과 사람을 연결하는 리쉬코드를 착용 하였기에 수상레저밥상 수영경계선 외부에서의 레저 활동이 가능합니다.
3. 여름철 물놀이 구역에서 서핑을 할 경우 해수욕장법에 따라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과 부과되므로 물놀이 구역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4. 서핑 지역 내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안전을 위해 해리 200m 안에서는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응급상황시 안내전화

해양긴급신고(국민안전처) 122 / 안전신고센터 119 / 범죄신고 112 / 질병관리본부 1339



꼭!

서퍼라면 알아야 할 서핑룰!

한 파도엔 한 서퍼만

파크에 제일 가까이 있는 서퍼에게 그 파도의 우선권이 있으며 그 서퍼가 테이크오프를 하면 다른 모든 서퍼들은 파들링을 멈추고 다음 파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스네이킹 금지

파크에서 멀리 있던 서퍼가 파크 방향으로 파들링을 해서 파도를 가로채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며 이를 스네이킹이라 합니다.



관인업은 돌아 나가기

라이딩을 하는 사람의 전로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바다로 나갈 때는 B서퍼처럼 파도가 꺼지는 포인트에서 최대한 바깥쪽으로 돌아서 나가야 하며, C서퍼의 경우에는 A서퍼의 진행 방향으로 파들링해서는 안됩니다.



위치 알리기

파도를 탈 때는 콘소러로 자신의 진행 방향을 알립니다. 만약 내 위치가 우선권이 있는 서퍼를 방해하는 위치에 있을 경우 콘소러로 '죄송합니다'라고 외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보드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다른 서퍼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Respect for Local, Be humble!

서핑지역의 보존과 서핑문화 발전에 노력하는 로컬들을 존중합니다.

Take 3 for the sea!

퇴수 시 쓰러진 3개씩 들고 나오기! 비치클린은 서퍼들의 미덕입니다.





한눈에 보는 양양 서핑스팟





물치 해변은 양양 최북단에 위치한 해변으로, 북양양 IC에 인접해 있고 속초 시내와도 가깝다. 양양 대다수의 포인트보다 수심이 깊어서, 태풍 시기 등 큰 파도가 동해 일대에 들이닥칠 때에도 물치항 방파제에는 크지만 느린, 파도의 면이 다소 누운 듯한 안정된 모양의 파도가 들어친다.

물치의 바로 옆, 남대천 하구와 만나는 정암 해변은 강원도의 대표적인 리버 마우스(River Mouth) 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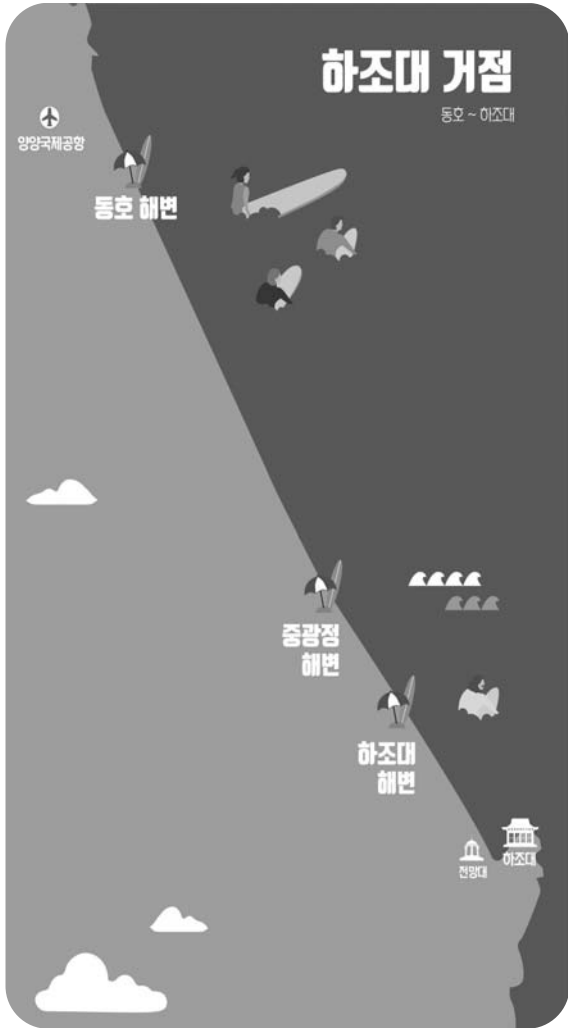
트다. 리버 마우스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으로, 해변 일부 구간이 자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물치에서부터 쪽 이어진 7번 국도를 타고 차량을 통해 이동하면서 파도를 체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설악 해변과 낙산 해변은 양양군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낙산사를 중심으로 좌우에 위치해 있다.

설악 해변은 수심이 얇아 작은 스웰이나 바람에도 영향을 받는 포인트로, 시즌에 따라 플리마켓 등이 진행되는 인근의 후진항에서 다채로운 이벤트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전국에서 가장 긴(1.8km) 해변 중 하나인 낙산 해변은, 이제까지 서핑 포인트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수심이 깊어서 양양의 다른 포인트에서 입수가 불가능한 시기에도 좋은 파도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단, 그만큼 파도가 크고 거세기 때문에 숙련되지 않은 서퍼는 위험할 수 있다.



동호 해변은 넓은 백사장에서 부대까지 않으며 서핑을 즐길 수 있는 포인트 중 하나다. 단 수심이 깊고, 파도가 클 때에는 조류가 심해지기 때문에 초심자의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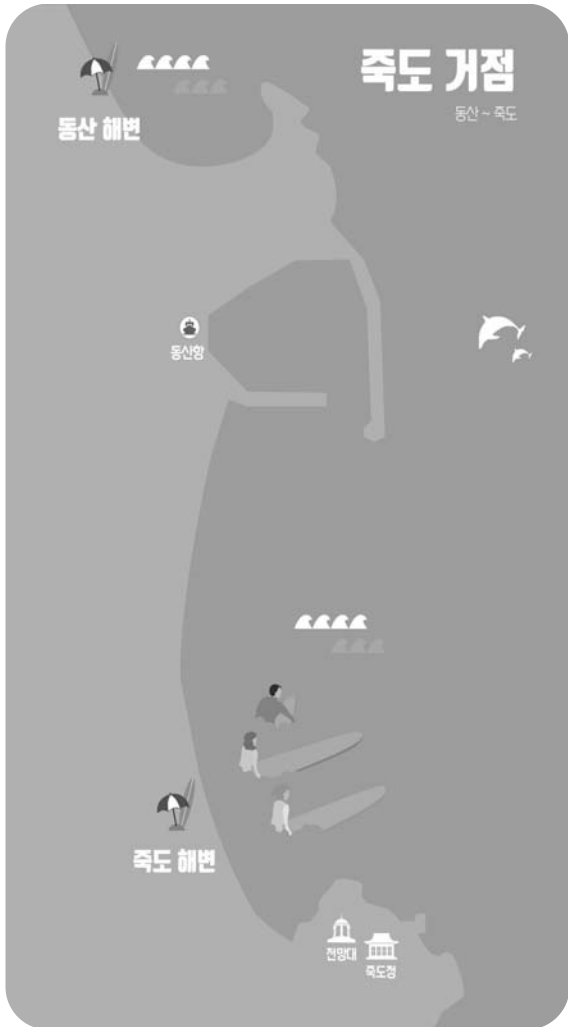
하조대 해변과 중광정 해변은 서울-양양 고속도로를 통해 하조대 IC로 나오면 바로 만날 수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서핑 스팟(해변)이 마을과 조금 떨어져 있어서 주말 밤이면 서퍼들의 파티가 분주하게 펼쳐진다.

하조대 해변과 중광정 해변은 연결되어 있어, 동호와 마찬가지로 넓은 해변에서 서핑이 가능하다. 한여름 라인업에 떠 있으면 해변 가득한 이국적인 구조물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7번 국도를 쪽 따라가다 보면 38선 휴게소와 함께 기사문 해변을 만날 수 있다. 기사문 해변은 동해안 최초의 서핑샵이 생긴 포인트로써, 강원도 서핑 문화의 발상지라 할 수 있다. 해변 좌측으로 보이는 등대를 따라 패들해 나가다 보면 비교적 손쉽게 라인업에 도달할 수 있어 아주 쾌적한 서핑을 할 수 있는 포인트 중 한 곳이다. 파도의 질과 힘을 느끼고 싶은 서퍼라면 눈 쌓인 겨울의 기사문을 추천한다.

잔교리 해변은 불과 얼마 전까지 군부대의 철책에 가로막혀 있어, 서핑을 즐기기에 제한이 있는 포인트였다. 하지만 이제는 철책이 모두 철거되어 보다 많은 서퍼들이 방문해 즐기기에 편해졌다. 너무 빠르거나 거칠지 않은 완만한 파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롱보드를 타기에 적합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죽도 해변은 2009년 서핑 스쿨이 생겨나면서부터 서핑 교육, 서퍼들이 묵을 수 있는 숙박을 비롯한 음식, 패션, 미디어 등 각종 서핑 문화들이 빠르게 번져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서핑 포인트다. 또한 수심이 얕아서 초심자들이 서핑을 즐기기에 부담이 없고, 연간 좋은 파도가 들어와서 항상 많은 서퍼들로 북적인다.

동산 해변은 죽도와 가깝지만 전혀 다른 속성의 파도가 찾아온다. 또한 한적한 라인업을 자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죽도의 북적임에 지친 서퍼들에게 대안이 되어 주는 포인트다.



인구리는 트렌드에 예민한 서퍼들이 발 빠르게 자리 잡아 차린 다양한 맛집과 멋집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한적한 시골 해변 마을 구석구석에 위치해 있는 이런 숨은 매력의 가게들을 찾는 것 또한 양양을 즐기는 방법 중 하나가 되어 준다.

인구 해변은 해변의 크기가 다른 해변들에 비해 좁지만, 죽도 해변과 비슷한 빈도로 파도가 찾아오고 파도가 비교적 느리게 깨지기 때문에 편안한 서핑을 즐길 수 있다.

또한 겨울이 찾아오면 대관령의 설경을 라인업에서 바라볼 수 있는 로맨틱한 포인트라 할 수 있다.



갯마을 해변은 완만한 파도가 천천히 깨지는 것으로 유명해 롱보더들에게 사랑받는 포인트 중 한 곳이다. 또한 연중 라인업이 붐비지 않아 한적한 서핑을 즐길 수 있다.

남애 3리 해변은 모래 유실 방지를 위해 새롭게 방사제를 설치해 수심이 얕아졌다. 그로 인해 다양한 실력의 서퍼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라인업이 생겨났으며, 주변 포인트들에 비해 정리된 파도가 찾아오는 빈도가 높아졌다.

남애 1리 해변은 해변의 넓이에 비해 서핑샵이 많지 않아 사람이 붐비지 않는다. 양양의 숨은 포인트 중 하나로, 부지런한 서퍼들이라면 꼭 체크하는 곳이기도 하다. 비교적 수심이 깊어서 큰 스웰이 찾아올 때 파도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메인 포인트는 초심자들이 접근하기 어렵지만, 초심자들에게 적합한 포인트도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



한국 서핑의 역사

1990년대 초 제주와 부산 등지에 다양한 계기로 서핑을 시작하게 된 일부 서퍼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1995년 5월 제주도에 최초의 서핑 클럽이 창단했고, 이와 비슷한 시기 부산과 동해에도 서핑 클럽이 생겨나며 각자의 서핑을 이어갔다.

그리고 2009년, 부산과 제주 등지에서 서핑을 접한 스노우보더들이 양양 죽도 해변에 서프숍을 오픈하게 되면서 서핑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한 시발점이 된다. 그렇게 강원도 양양에서 서핑을 즐기는 서퍼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서프숍 역시 하나둘 늘어나며, 서핑 외 식사, 숙박 등 서퍼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제반 시설들이 생겨나며 지금의 서프시티 양양이 만들어지게 된다.





■ 한겨울에 더욱 뜨거운 서퍼들

서핑은 보통 한여름에 즐기는 운동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1년 내내 즐길 수 있는 종목이다. 최근에는 슈트나 드라이슈트 등 추위를 극복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개발되어 한겨울의 서핑을 즐기기도 더욱 수월해지고 있다.

더군다나 강원도 동해 양양에서 파도가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모든 로컬 서퍼들은 입을 모아 겨울이라 답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겨울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엄두가 안 나는 서퍼들을 위해, 모두 함께 모여 실력도 모를 추구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겨울에만 진행되는 'STC 윈터 서핑 프로그램'이 그것으로, 올해로 3기째를 맞아 새로운 참가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서프 트레이닝 센터(STC) 윈터 서핑 프로그램
<https://cafe.naver.com/surftrainingcenter>



복막염



복강 및 복강 내 장기를 덮고 있는 얇은 막인 복막에 발생한 염증 혹은 자극

진료과

외과, 응급의학과

관련 신체기관

복막

관련 질병

위궤양 천공, 샘창자궤양 천공, 막창자꼬리염, 장티푸스, 자궁 외 임신의 천공

정 의

복강 및 복강 내 장기를 덮고 있는 얇은 막인 복막에 발생한 염증 혹은 자극 증상으로, 국소적 혹은 복강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으며 경과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나눈다. 급성인 것은 중독 증세를 나타낼 때가 많으며, 위궤양-샘창자궤양의 천공, 막창자꼬리염-장티푸스에 의한 장의 천공, 자궁 외 임신의 파열 등이 원인이 된다. 천공 때는 순간적으로 심한 복통이 일어나고, 쇼크 증세를 나타낼 수 있다. 만성인 것은 결핵과 암에 기인하는 일이 많으며, 간경화의 말기에도 많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결핵성 복막염이고, 그 밖에 암성 복막염도 흔히 볼 수 있다.



복막염은 크게 감염성 복막염과 비감염성 복막염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감염성 복막염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무균 상태의 복막강 내로 세균이 침입하여 복막에 염증이 유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의미하며 감염성 복막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장관의 천공에 의한 것이다. 비감염성 복막염은 무균 상태의 체액, 즉 혈액이나 담즙, 소변 등에 의해 유발되거나 무균 수술 후에 발생한 복막의 염증을 말한다.

1) 감염성 복막염

- 하부 식도, 위(궤양, 위암), 십이지장(궤양), 소장 및 대장(충수돌기염, 대장 계실, 맹장 계실, 염증성 장 질환, 장 허혈, 감돈, 대장 및 직장암, 태변), 담낭 등과 같은 복강 내 장기가 천공된 경우
- 복막의 연속성 소실: 외상, 수술 창상, 복막 투석, 복강 내 항암 치료 등에 의해 정상적으로는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복강 내와 복강 외 사이에 교통이 발생한 경우
- 복수에 세균이 증식하여 발생하는 자발성 복막염
- 결핵과 같은 전신 감염에 의한 경우

2) 비감염성 복막염

- 혈액(자궁내막증, 외상), 담즙(간 생검), 소변(외상), 췌장액(췌장염), 난소 낭종 등의 무균성 체액이 복강 내로 유출된 경우
- 무균 상태의 복강 내 수술: 수술 후 이물반응(foreign body reaction) 이나 섬유성 유착 등에 의해서 발생 가능함
- 그 외 포르피린증,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혈관염 등

주된 증상은 급성 복통, 복부 압통(통증 부위를 누를 때 심해지는 통증) 및 반발통(통증 부위를 손으로 눌렀다가 떼 때 느껴지는 통증)으로 기침이나 허리를 구부리는 등 복막의 움직임을 증가시키

는 동작에 의해 통증이 악화된다. 증상이 나타나는 위치는 복막염이 국소적인지 복강 내 전반에 걸쳐 발생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통증은 주로 지속적이다. 천공에 의한 복막염인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심한 복통이 일어나고 쇼크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구역 및 구토, 복부 팽만, 심박수 및 호흡수의 증가, 체온 상승, 혈압 저하 등이 동반된다.

진단/검사

임상 증상에 의한 진단할 수 있다. 복막염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추가 검사없이 수술을 고려할 수 있으나, 진단을 돕고 복막염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진단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증가, 전해질 이상, 산혈증 등의 소견을 보일 수 있다. 원인균에 대한 적절한 항생제 투약을 위하여 혈액 배양 검사를 시행한다. 복막염의 원인이 되는 복강 내 장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흉부 및 복부 X선 촬영, 복부 초음파,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 등의 영상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외에 복수 천자, 복강 내 세척 등을 시행하여 얻은 검체로 백혈구 수, pH(산도), 단백질 등을 검사해서 세균성 감염인지 비세균성 감염인지 등을 구분할 수 있다.

치 료

조기에 어떤 감염원에 의한 것인지 파악하고 그에 대한 치료가 시행되어야 한다. 치료방법은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다. 비수술적 치료는 금식, 수액 공급, 항생제 투여 및 경피적 배농, 내시경적 스텐트 삽입(일례로 담즙의 누출에 의한 복막염의 경우 내시경적으로 담도에 스텐트 삽입술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담즙의 누출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 등이 주를 이룬다. 수술적 치료는 원인에 따라 수술 방법 및 수술 범위가 달라진다.

경과/합병증

원인에 따라 경과와 합병증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 증상이 심하지 않고 생체 징후가 안정적인 경우에는 수액 및 항생제 투여로 호전될 수 있으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복막염이 진행하면서 체액 및 전해질 불균형, 패혈증, 쇼크, 급성신부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할 수 있다.

예방방법

특별한 예방방법은 없으며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

식이요법/생활가이드

복막염 증상이 발생한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 복막염이 의심되는 경우 원인 및 치료 방침이 확립될 때까지 음식 섭취를 해서는 안 된다.

관련질병

위궤양 천공, 샘창자궤양 천공, 막창자꼬리염, 장티푸스, 자궁 외 임신의 천공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2019

양양문화원 언론홍보현황

〈편집실〉

양양문화원 정기총회

2019.01.31.(목) 강원일보 사회포토뉴스



양양문화원(원장:윤여준)은 30일 일출웨딩홀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기획 3·1 운동 100주년 '100년후에도 인정안돼'...양양만세 주도한 '이석범' 선생

2019.2.26 강원영동CBS - 전영래·유선희 기자



[지역에서도 들끓은 만세운동③] 이념떠나 '항일운동' 대의로 규합 버선에 독립선언서 숨겨 양양으로 가져와 양양서 6일 동안 12명 사망, 70여 명 부상
양양 만세운동은 지역에서 일어난 기미 독립

이석범 선생. (사진=양양문화원 제공)

만세운동 중 가장 치열했던 곳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설초(雪樵) 이석범 선생이 있었다.

1919년 4월 양양지역에서 울려 퍼진 만세운동을 기록한 국가보훈처의 '독립운동사'에서 원로 학자들도 "극단적이라는 공통성이 보수든 혁신이든 항일운동이라는 공동목표에 집약돼 치열한 3.1 운동을 일으켰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미년(1919년) 3월 고종이 일본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풍문이 나돌며 민족감정이 격앙되고 있었다. 당시 양양지역 유림세력의 대표였던 이석범 선생은 61세의 나이로 유림 10여 명과 함께 고종 인산(因山)에 참례했다.

이석범 선생은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만세운동을 직접 목격하고, 삼엄한 검문검색 속에서 소변을 보는 척 하다 버선 속에 독립선언서를 몰래 숨기는 기지를 발휘해 무사히 귀향한다.

이후 동생 이국범과 두 아들, 그리고 임천리 문중의 이교완, 이교정을 비롯해 조국의 독립을 열망하는 지역유림, 양양보통학교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에 있는 3·1운동 유적비(사진=양양문화원 제공)

졸업생, 양양감리교회 신문화 세력 등과 함께 장날이었던 4월 4일 양양 만세운동을 모의 주도한다.

이 과정에서 비슷한 시기에 독립선언서를 몰래 들여 온 여성운동가 조화벽 지사, 양양감리교회 청년부 김필선 선생 등과 규합하면서 규모는 더욱 커졌다. 이들은 서로간 이념을 달리했지만, 항일운동이라는 대의 아래 뜻을 모았다.

하지만 만세운동 계획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다. 만세운동을 위해 수일간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숨어서 만들던 중 만세운동 하루 전인 4월 3일 당시 군수였던 이동혁 등에 발각된다. 결국 이석범 선생 등 주도자 22명은 대사를 하루 앞두고 체포됐으며, 인쇄기와 태극기 374매도 압수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시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함흥기 열사를 포함한 군중들은 경찰서로 달려갔다. 경찰서 안에서 이석범 선생 등의 석방을 요구하며 항의하던 함흥기 열사가 양팔이 잘린 채 숨지자 '양양 3·1 만세운동'은 그 어느곳보다 활활 타올랐다.

실제 양양지역은 임천리와 물치, 기사문 등 양양지역 6개면 82개 동리에서 남녀노소 6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4~9일까지 6일 동안 이어졌다.

이 기간 12명의 사망자와 7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구금이나 수형자 172명,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태형을 받으면서 지역 만세운동 중 가장 격렬했던 곳으로 기록되고 있다. 만세 운동을 주도한 이석범 선생은 원산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같은 해 11월 풀려났으며, 동생 이국범과 두 아들도 투옥돼 혹심한 고초를 겪었다.

이후 이석범 선생은 지난 1913년 '쌍문서숙'을 설립해 후진 양성과 항일 애국함양에 전념했다. 이어 일제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만세운동 당시 이석범 선생이 주로 활동했던 양양군 임천리 마을. (사진=유선희 기자)

1926년 6월 10일 순종 국장에 참례하고, 1927년에는 월남 이상재 선생이 주도한 민족협동전선운동인 신간회 운동에 참여해 양양지회의 초대회장을 맡는 등 조국의 독립에 여생을 바쳤다.

이처럼 양양의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양양 유림의 대표 인물로 평생을 항일운동에 바쳤지만, 그의 공헌은 1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석범 선생의 동생 이국범 지사의 훈장증.

만세운동으로 당시 실형을 살았던 이석범 선생의 장남 이재훈과 동생 이국범에게는 지난 1990년과 2005년에 각각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하지만 만세운동 이후 구금은 됐지만 실형을 받지 않았다는 것과 만세운동 직전까지 도촌면장을 지냈던 이석범 선생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양양향토문화원 김양식 연구원은 "각종 기록과 증언 등이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지난해 8월 다시 독립유공자 신청을 한 만큼 이번에는 이석범 선생님의 항일정신과 헌신이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양 문화학교 개강

2019.03.05.(화) 강원도민일보- 최훈기자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개강식이 4일 일출웨딩홀에서 열렸다.

9명의 피로 만들어진 만세고개... 양양만세 주도한 이석범·조화벽

2019.3.12. 동아일보 양양=김갑식문화전문기자



양양 만세운동의 요람이 됐던 양양 감리교회.
양양=김갑식 문화전문기자

‘...현북면사무소 일부 관리들의 만류로 옥신각신하다가 그 계획을 변경하여 기사문리 주재소를 공격키로 하고 약 천 명의 군중이 관고개(關峯) 길을 따라 넘어 선두는 이미 기사문리 주재소 앞에서 왜경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천지가 진동하는 만세를 연호하고 있었다. 이때 언덕 밑 계곡 숲 속에서 미리 잠복하고 있던 일제 수비대와 경찰이 무차별 발포하여 현장에서 9명이 피살되고 20여 명이 중경상을 당하였으니 그 참상은 천인이 공포할 만행이었다.’

7일 찾은 강원 양양군 ‘만세고개’ 한쪽에서 있는 비에 적힌 글의 일부다. 양양군은 1919년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이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기 위해 시위의 현장 만세고개에 유적비를 세웠다. 태극기를 새긴 타원형의 주비(主碑)에는 만세를 부르는 주민들의 군상이 조각돼 있다. 왼쪽 비에는 만세고개 유래, 오른쪽

비에는 당시 상황과 희생된 애국지사들 이름이 새겨져 있다.

● 9명의 피로 만들어진 만세고개

이 시위는 양양군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다. 양양의 기미만세운동은 4월 4일 양양의 장날부터 결행돼 남녀노소 종파신분의 구별 없이 일심동체가 되어 진행됐고, 요원의 불길처럼 각 면으로 확산됐다. 4월 9일 현북면에서도 꺾기대회가 끝난 후 양양읍 장마당에서 군중과 장꾼들이 합세해 만세운동을 벌일 계획이었다. 유학자 박원병 형제와 감리교회 청년 오세옥 이응렬 등이 손을 잡고 면내의 유지 임병익 오정현과 합세했고, 각 마을의 구장(이장)들이 큰 역할을 했다. 이날 각 마을 구장들이 인솔해 하광정리 면사무소에 모인 1000여 명의 시위대는 소리 높이 만세를 부르고 기사문리에 있는 주재소로 향했다. 일제는 현북면 일대의 치열했던 당시의 시위를 이렇게 기록했다. ‘4월 9일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주재소를 습격한 폭민(暴民)은 면장을 협박하기를 심히 하여 면장은 부득이 일시 사무를 중지하고 피난 중이다.’

미리 시위 정보를 입수한 일제 경찰은 언덕에서 군중을 향해 총을 겨누다 일제히 발포했다. 사망자 9명, 부상자가 20여 명이 발생하고 시위 현장은 피바다가 됐다. 전원거 임병익 홍필삼 고대선 황응상 김석희 문중상 진원팔 이학봉 등이 희생됐다. 현재 만세고개에는 도로가 생기는 등 변화가 커 옛 흔적을 찾기 어렵다. 아트막한 오르막길의 느낌만 남아 있다.

양양군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도 규모나 내용에서 3·1운동이 전개된 지역 가운데 가장 치열했던 곳 중 하나로 꼽힌다. 양양 군에 따르면 4월 4일을 첫 시작으로 9일까지 6일 동안 1만 5000명이 넘게 시위에 참여했다. 당시 군 인구는 3만 6000명으로 추산된다. “시위 때 집집마다 한 사람은 나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만세운동의 열기가 뜨거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13명의 사망자, 5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체포자는 부지기수였다.

특히 4월 5일 대포항 만세시위에는 1000여 명이 모여 시위를 하자 경찰이 완전히 굴복하고 사죄했고, 군중은 다음날 양양읍에서 다시 모이기로 하고 해산했을 정도다. 또 4월 6일 시위대가 제지하는 군대를 밀어내고 읍내 경찰서로 몰려가자 경찰서장이 “일본은 물러갈 테니 만세만 부르고 돌아가 달라”고 애원해 군중이 만세시위만 벌이고 저녁 때 돌아가기도 했다.

● 유림의 이석범과 기독교(개신교)의 조화벽

양양은 동학농민운동 때 반(反)동학군이 결성될 정도로 유림 영

향력이 강하고 보수적인 곳이었다. 보수적인 이곳에 1906년 남궁역이 군수로 있으면서 현산학교를 설립했다. 이 학교는 학생수가 200명에 이를 정도로 급속히 발전했다. 신문화 바람과 함께 양양면 성내리와 강현면 물치리, 현북면 상광정리에 교회가 들어왔다. 그중 양양 감리교회는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전달하는 등 큰 역할을 한 조화벽(1895~1975)의 아버지 조영순 전도사가 이끌던 교회로 많은 청년들이 모여들었다. 개화 바람이 커지자 반 동학군을 주도했던 이석범(1859~1932)은 쌍천학교를 세워 유교적 사상과 문화를 지키고자 했다. 이처럼 양양은 유교와 기독교 세력으로 나뉘었으나 나라를 되찾자는 대의에 하나로 뭉쳤다. 두 세력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했던 것이 현산학교와 쌍천학교, 양양보통학교의 초기 졸업생들이었다.

이석범은 고종 황제의 인산(因山·장례)에 참여하고 돌아올 때 독립선언서를 가져온 뒤 거사를 추진했다. 그는 아들 이능렬과 김영경 장세환 등 쌍천학교의 졸업생들에게 주요 임무를 맡겼다. 이석범은 문종의 큰 부자였던 이교완의 집을 본거지 삼아 최인식 등 30세 전후의 청장년층을 모았다.

3월 말경 조화벽은 개성에서 돌아올 때 독립선언서를 버선 속에 숨겨 들어왔다. 개성 호수돈여학교에 다니던 그는 기숙사생으로 구성된 비밀결사대원으로 활동하다 일제의 휴교 조치로 고향으로 향했다. 이 선언서는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교회 청년 김필선에게 전해졌다. 김필선은 같은 양양보통학교 졸업생이자 교우(敎友)들이인 김재구 김규용 김계호 등을 모았다. 이들은 면사무소 등 사판을 이용해 독립선언서를 복사하고 교회 인근 상여 보관처에 숨어 태극기를 만들었다. 그러던 중 최인식과 연락이 닿아 합동으로 거사를 추진하게 됐다.

하지만 4월 3일 일본 관헌들이 급습해 태극기를 만들던 사람들과 총지휘자 이석범을 비롯한 22명을 체포했다. 체포를 피한 최인식 김필선 등은 거처를 옮겨 밤새 준비했고, 4월 4일 계획대로 큰 시위가 벌어졌다.

조화벽은 훗날 유관순 열사의 오빠인 유우석과 부부의 연을 맺었고, 항일 독립운동으로 구금과 석방을 되풀이한 남편의 옥바라지를 한다. 3·1 운동 6년 뒤 양양으로 돌아온 조화벽은 정명학원을 설립해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헌신한다. 이 학교는 일제 탄압으로 1944년 폐교되기 전까지 6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양양문화원 부설 이철수 향토사연구소장은 “양양 만세운동을 주도한 유림과 기독교 세력은 정서적으로 물과 기름의 관계일 수도 있었지만, 국권회복을 위해 그 차이를 뛰어 넘어 하나로 뭉쳤다”라며 “청년 그룹이 두 세력을 연결하며 핵심 역할을 했다”고 밝

혔다.

지도자 그룹이 대거 검거되면 운동이 지리멸렬해지기 쉽지만 양양의 만세운동은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양양은 지금의 서울보다 큰 면적이기 때문에 연락이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전 군에 걸쳐 만세운동이 격렬하게 벌어진 것은 유림을 앞세워 구장(리장)까지 가담시킨 치밀한 조직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 함흥기 열사, 서장에게 화로를 던지려다 순국

4월 4일은 양양 장날이었다. 양양읍에 들어오는 통로 5개를 따라 인근 각지에서 만세 군중과 장꾼들이 모여 들었다. 읍내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들에 나가 있던 농부들도 모여들었다. 점심 때에 이르러 만세 군중은 더욱 불어났고, 특히 경찰서와 군청주변은 물론 뒷산에도 군중이 모여 독립만세를 외쳤다.

군중은 경찰서와 군청을 에워싸고 임천리에서 체포한 22명을 비롯한 감금자를 석방하고 일본 관헌은 자기 나라로 물러가라고 요구했다. 몇 사람은 경찰서에 들어가 경찰서장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손양면 가평리 구장 함흥기는 일본 경찰서장에게 화로를 들어 던지려다 일본 경찰 두 명에게 양팔이 잘린 후 목을 찢려 죽었다. 그의 시신은 경찰서 내 복도에 가마니에 덮여 있다가 10여 일 뒤 가족에게 인계됐다. 마을 주민이 모인 뒤 장례를 치렀으나 일본 경찰은 동네 주민이 모여 울었다는 이유로 하관 직후 파헤치고 관을 깨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당시 양양의 만세운동에는 유림과 기독교 세력 뿐 아니라 천도교와 불교도 만세운동에 가세했다. 일제의 기록과 당시 증언 등에 따르면 4월 7일 오후 2시 반 천도교도를 중심으로 약 300명의 군중이 운동을 개시하여 양양읍내에 들어오자 일제 경찰은 주모자 4명을 체포했고, 시위대는 해산됐다. 낙산사 승려들도 이날 오후 7시 바라소리와 더불어 전 승려들이 등불을 들고 만세운동을 펼쳤다.

▼ 강원도 최초의 교회 ‘양양 감리교회’는… ▼

조화벽 지사가 활동한 곳으로 유명한 양양 감리교회는 기독교계에서 민족구국제단을 표방하는 대표적 교회다.

7일 방문한 이 교회 입구 표지석에는 ‘이곳은 1901년 10월 5일 하디 선교사가 설립한 교회로서 한국의 초대교회를 계승한 민족구국제단이며 1919년 양양 만세운동의 발상지입니다’라고 새겨



져있다.

설립 당시 이곳은 강원도 최초의 교회였다. 70㎡(20평) 남짓한 기와집으로 시작했다 여러 번 개축을 거쳐 2011년 지금의 6층 교회건물이 들어섰다. 내부에서는 이 교회가 겪어온 역사를 엿볼 수 있다. 1층에는 조화벽 기도실, 2층에는 3·1운동 당시 담임 목사의 이름을 딴 김영학홀, 3층에는 본당인 하디 예배실이 있다.

황해도 금천군 출신의 김영학 목사(1877~1932)는 교인, 주민들과 함께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 서대문형무소에서 4년이나 옥고를 치렀다.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문서에서는 그에 대해 '민족 절대독립주의, 배일사상을 지닌 자'로 규정하고 있다. 1922년 출감한 그는 연해주 선교사역에 나서지만 1930년 러시아 공산당에 의해 반동분자로 체포됐다. 신앙을 버리라는 배교(背敎)를 거부하던 그는 1932년 시베리아에서 강제노동 중 사망했다.

송정근 목사(1895~1950)는 1926~1929년 담임 목사로 재직 중 사회주의자들을 비판하다 고난을 당하고, 친일 행위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사직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1945년 평양 남산현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그는 공산당 반대에도 1946년 교파 연합의 3·1절 기념행사를 주도했고, 한국전쟁 와중에 공산군에 의해 순교했다.

이 교회 이재풍 장로는 “본당 제대 앞에는 옛 교회당의 돌들을 가져다 놓았다”라며 “교회가 신앙 뿐 아니라 구국을 위한 제단이었음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양문화제 6월 개막 확정

문화제위 총회서 일정·예산 확정 체육대회·민속 시연 등 행사 진행

2019.03.23.(토) 강원도민일보 - 최훈기자

양양군의 향토문화축제인 양양문화제가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간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문화제위원회는 지난 21일 문화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올 문화제 일정과 세부계획, 예산안 등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5월 농번기와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열리는 제54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일정 등을 고려해 전년도

와 같은 시기에 문화제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에따라 올 문화제는 6월 20일 개막식에 이어 21,22일에는 주민 결속과 화합을 위한 읍·면 대항 체육대회와 민속 시연 및 체험을 진행된다.

한편 양양문화제는 국민안과 풍농풍어를 기원하는 지역대표 향토문화축제로 매년 바쁜 농사일이 마무리되는 6월에 개최해오고 있다.

【양양】3·1운동 100주년 기념 양양 만세운동 재현

2019.4.4.(목) 강원일보-박기용 기자

【양양】양양군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4일 오전 10시 군청 앞 사거리에서 양양의 3·1만세운동 재현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영동지역에서 가장 치열했던 양양장터 3·1만세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선열들의 호국 독립정신을 계승해 양양인의 애국·애항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군청 앞 사거리를 중심으로 만세운동 재현 연극과 한풀이춤 등의 퍼포먼스를 펼친 후 행사 참여자 전원의 만세 삼창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서는 8군단 군장병을 대상으로 군장병과 함께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의 콘서트이 열린다. 윤여준 양양문화위원장은 “이번 100주년 행사를 통해 양양 기미독립만세운동으로 희생된 순국선열의 넋을 위로하고 양양군 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며 나아가 나라사랑의 정신을 계승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4일 시작된 양양지역 '3·1 만세운동'... 재현행사 개최

2019.04.04. 강원영동CBS - 유선희 기자



4일 오전 군청 앞 사거리에서 3·1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펼쳐졌다(사진=양양군청 제공)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강원 양양지역에서는 실제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4일 재현 행사가 펼쳐졌다.

유족과 주민, 사회단체 등 천여명은 4일 오전 군청 앞 사거리에서 '양양의 3·1 만세운동'을 재현하고 '그날'의 함성을 되짚었다.

또 이들은 만세운동 재현 연극과 만세 삼창, 한풀이춤 등 퍼포먼스도 펼쳤다.

기미년(1919년) 4월 4일 양양 장날에 일어난 '양양 3·1 만세운동'은 전국 지방에서는 가장 극렬하게 일어난 독립운동으로, 남녀노소 관계없이 모두 1만 5천여 명이 참가해 6일 동안 계속됐다.

양양문화원 등 기록에 따르면 이 기간 12명의 사망자와 7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구금이나 수형자 172명,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태형을 받았다(CBS노컷뉴스 2월 22일, 25일, 26일, 28일).

이번 행사는 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재발견하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양문화원 윤여준 원장은 "100주년 행사를 통해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애항심 정신을 계승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양문화제 시가행진

2019.6.21.(금) 강원일보 포토뉴스



제41회 양양문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대규모 시가행진이 20일 시

내 일원에서 지역 주민과 학생, 각급 기관·사회단체, 군부대 등 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취타대 농악대를 선두로 펼쳐졌다.

설악권 문화계 원로 고경재 전 양양문화원장 영면

지난 17일 87세 일기로...가평리 선산에 안장 / 오산리선사유적 발굴·향토문화 창달 기여

2019.7.29. 설악신문 - 김주현 기자

설악권의 문화계 원로였던 고경재 전 양양문화원장이 지난 17일 8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오랫동안 숙환으로 자택에서 치료를 받던 고 전 원장은 이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았으며, 지난 19일 손양면 가평리 선산에 안장돼 영면에 들어갔다.

'강원도 향토문화와 오산리선사유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거명되는 인물이 바로 '고경재 원장'이라고 할 정도로 향토문화의 산증인으로 불려왔다. 36년이란 긴 세월을 양양문화와 고락을 함께해 온 고인은 지난 2006년 6월 72세로 양양문화원장을 퇴임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1933년생인 고 고경재 원장은 양양 손양면 송전리에서 태어났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양양고급중학교를 수료하고 1958년부터 1961년까지 서울신문사 기자로 활동하며 38선 분단 지역이었던 양양군의 통일·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열정을 불태웠다.

문화적 소양과 열정이 남달랐고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견지해온 고인은 1971년 양양문화원 창립의 실무업무를 도맡아 초대 사무국장에 취임했고 1987년까지 16년간 양양문화원의 기틀을 다지는데 노력해왔다.

고인이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시기(1965년부터)에 대한불교조계종 종찰인 진전사 3층석탑과 선림원지, 낙산사, 영혈사 등 불교문화 유적이 문화재로 등록됐고, 동아시아에서 최고 오래된 선사유적인 양양 손양면 오산리 선사유적(1977년)이 발굴돼 고고학계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양양문화원 사무국장을 마친 고인은 1987년 양양문화원장에 취임한 후 오산리 선사유적공원 조성과 진전사지 중창복원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업적을 꽃피우며 양양문화의 황금기를 이끌었다.

오산리선사유적·불교문화 발굴 업적

동아시아 최고의 선사유적인 양양 손양면 오산리 선사유적 발굴은 고인이 고고학자인 서울대 임효재 교수와 함께 연구 및 조사해온 결과로,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개관의 주춧돌을 놓았다.



고 고경재 양양문화원장.



당시 고인은 본지와 의 인터뷰에서 “국내는 물론 세계고고학사에 큰 획을 긋는 오산리선사유적지는 양양문화의 뿌리와 근간을 이루는 역사”라며 “선사인들의 유적을 통해 현대인들이 시공간을 초월해 아득한 우리 조상을 만나는 타임머신 같은 신비롭고 생생한 문화역사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인의 예상대로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선사시대를 체험하기 위한 학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며 수확여행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고인의 또 다른 업적 중 하나는 불교문화유적 발굴 및 홍보이다. 불교문화 전문가인 정영호 박사와 함께 1965년 진전사지 3층 석탑을 시작으로 선림원지, 낙산사, 영학사 등 지역에 산재한 불교유적을 찾아 널리 알려왔다. 선종의 효시인 도의국사가 창건한 선종의 본산인 진전사지를 발굴하고 복원하는 기초를 닦았다. 진전사는 현재 2차 발굴을 통해 우리나라 불교문화의 큰 축으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또 3.1만세운동 등 총절의 고장인 양양군의 향토축제 활성화를 위해 현산문화제를 만들어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 현재는 양양문화제로 변경해 개최하고 있으며, 고치물제, 장군성황제, 양주방어사행차, 대포만포수군, 오산리 선사인 가장행렬 등 당시 고인의 치밀한 고증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고인은 양양군의 지명 유래를 알아보기 위해 중국 양양구 연구에도 열정을 보였고, 후배 문화인들과의 왕성한 교류에 나서 문화계에서도 귀감이 됐다.

“진정한 향토사학자이자 문화계 원로”

지난 2006년 양양문화원장 퇴임 후에도 자택에 머물며 저술활동을 했던 고인은 당시 “문화는 생활의 연속이며, 주민들이 살아가는 진솔한 이야기가 모여 만들어진 역사적 산물이다. 거짓된 조장으로는 절대 생성되지 않는 것이 문화이고, 그렇기에 더욱 값지고 소중한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피력하며 향토문화의 소중함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윤여준 양양문화원장은 “고경재 원장님이야말로 우리지역이 배출하고 시대가 낳은 진정한 향토사학자이자, 문화계의 원로”라며

“고향 선산에서 편하게 영면하시기를 모든 지역 문화인들과 함께 기도 드린다”고 말했다.

80세가 넘어서도 20대 청년정신을 간직한 채, 저술활동에 몰입했던 고인은 영원히 ‘청년 고경재’로 기억되길 바라며, 지난 17일 자연의 섭리에 따라 자택에서 고이 눈을 감았고, 그토록 애정을 쏟았던 오산리선사유적지가 지척에 바라다 보이는 선산에 잠이 들었다.

한편, 유족들은 고인의 향토문화사랑 정신을 기려 소장해온 책과 자료 등을 평생 고인이 몸담았던 양양문화원에 기증할 계획이다.

1997년 국제선사문화심포지엄이 끝난 후 진전사를 찾은 고인(가운데), 오른쪽이 오산리선사유적지를 발굴한 임효재 서울대 교수.

제9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양양문화원 23~24일 개최 / 3개 부문 10개 팀 시상 / 통합대상 상금 3백만원

2019.08.12. 설악신문 - 김주현 기자

전국 소리꾼들의 등용문인 제9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오는 23~24일 이틀간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대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양양문화원(원장 윤여준)이 주최하고 양양군이 후원하는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는 지난 2017년 전국 대회로 격상돼 올해 3번째로 열린다.

올해 대회는 일반 단체부와 개인부, 학생부로 나뉘 열린다. 단체부·개인부·학생부별로 최우수·우수·장려 각각 1팀씩 9팀과 통합 대상 1팀 등 총 10팀을 시상한다. 통합 대상은 300만원, 나머지 수상팀에게는 최소 3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상금이 수여된다.

참가부문은 농요와 어요, 노동요 등 전통민요(신민요 제외)로 공고일 기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상 수상자와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전년도 동구리 경창대회 통합대상 수상팀은 대회 취지를 고려해 참가할 수 없다.

경연시간은 곡당 5~7분 이내이다. 교수 및 반주는 출전 측에서 준비해야 한다. 3~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하며,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개인은 연장자순, 단체는 참가 인원이 많은 순으로 정한다.

양양 동구리 경창대회는 조선왕조실록 중 세조실록 권38의 세조대왕 강원도 순행일지 기록에서 유래됐다. 이 기록에 따르면 세조 12년(1466년) 세조가 강원도를 순행하기 위해 양양 낙산사를 지나 연곡리에 머무를 때, 왕이 직접 명하여 농가를 잘 부르는 이를 모아 장막 안에서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그 중 양양관노 ‘동구리’의 실력이 가장 뛰어났다고 한다. 이에 세조는 동구리가

관노임에도 불구하고 악공의 예로 어가를 따르도록 했다. 양양군은 이에 주목해 지난 2001년부터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를 열고 있다.

도 단위 대회로 개최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62개 팀, 1,022명의 소리꾼이 참가했고, 두 번째 전국대회로 치러진 지난해에는 역대 대회 가운데 가장 많은 53개팀, 138명의 소리꾼이 참가해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의 위상을 드높였다.

윤여준 양양문화원장은 “올해 대회도 전국 소리꾼들의 수준 높은 등용문으로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구리 경창대회가 인재발굴과 함께 전통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 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오는 23일부터 양양에서 막이 오른다.

오는 23일부터 제9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2019.08.22 업코리아 - 김정호 기자

일반부 단체 13팀, 일반부 개인 43팀, 학생부 6팀 등 62개 팀 참여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서 ‘제9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개최된다. ‘동구리 경창대회’는 관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조선 세조로부터 ‘악공의 예’로 대우받은 양양지역의 소리꾼 동구리를 기리고, 우리 음악을 보전·전승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개최해온 민요 경창대회이다. 그동안 양양문화원이 주관하는 지역 행사로 개최해오다 지난 2011년부터 도 단위 대회로 격상했으며, 타 지역 경창대회와는 다르게 역사적 사실에 근거했다는 것을 고려해 2017년부터는 전국 단위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번 경창대회에서는 일반부 단체와 소리꾼이 참여해 농요와 노동요, 어요 등 전통민요를 통해 일반부 단체 13팀, 일반부 개인 43명, 학생부 6팀 등 전국 62개 단체가 실력을 겨룬다. 23일 예선과

24일 본선을 통해 통합대상 1팀과 일반부 단체 최우수·우수·장려팀 3팀, 일반부 개인 최우수·우수·장려팀 3팀, 학생부 최우수·우수·장려팀 3팀 등 총 10팀을 시상할 예정이다. 24일 본선 경연에서는 전년도 우승자인 송종석, 여울소리민요단, 한가람풍물패, 심사위원, 국악인 김소희, 이능경, 문도희 등이 초청공연을 펼친다. 또 경연에 앞서 세조대왕의 행차를 복원·재현하는 행사를 거행하는 등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해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의 역사적 유래를 알려 나가기로 했다. 윤여준 양양문화원장은 “대중적 명창보다는 전국 곳곳에 산재한 진정한 소리꾼을 발굴하는 행사로 동구리 경창대회를 진행한다”며, “이번 경창대회를 통해 국악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의 문화콘텐츠로 확대·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리 경창대회는 지난 18년 동안 우리 조상들의 생활감정이 담긴 농가·어가·노동요 등 민족의 소리를 보존·전승하는 데 일조해 왔다. 특히 도 단위 대회로 개최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262개 단체, 1,022명의 소리꾼이 참가하는 등 민요의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평가다

강원도에 피워낸 항일정신, 100년후 민주주의를 꽃피우다

[되살려보는 100년전 3·1운동]

2019.09.18. 강원도민일보 - 김여진, 김진형 기자

지난 3월 도청사 전면에는 안중근 의사가 쓴 ‘대한독립’ 태극기를 중심으로 도출신 독립운동가 10명의 초상이 대형 현수막으로 걸렸다. 권인규·류인석·남궁억·윤희순·이소응·박용만·민공호·조화벽·이강훈·



▲ 1933년 3월 17일 거행된 육삼정의 거로 백정기 의사와 함께 체포돼 중국 상하이 일본 영사관 감옥에 투옥된 이강훈 지사.(사진 왼쪽)

함께 등장, 감동을 선사했지만 ‘이름조차 처음 듣는다’는 도민들의 반응들도 적지 않았다. 3·1절 100주년이 되어서도 잊혀진 이름들... ‘20세기 마지막 독립운동가’로 불리는 철원 출신 이강훈 지사, 버선목에 독립선언서를 숨겨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양양 만세운동의 불씨를 지핀 양양 출신 조화벽 지사의 이름을 다시 소환해 그 결기를 되살려 본다.



■ 독립운동사 기록에 일생을 바치다

청리 이강훈 지사

김좌진 장군과 항일투쟁 활동 1933년 천황사절단 암살 모의 해방후 윤봉길 의사 유해 송환 “통일돼야 진정한 독립” 강조



▲ 이강훈 지사의 모습.



▲ 이강훈 지사 영결식 모습.



▲ 1946년 2월 18일 원산공원 환영민중대회에서 연설하는 이강훈 지사



지난 2003년 100세를 일기로 별세한 청리 이강훈 지사는 3·1 운동부터 김좌진 장군과의 항일투쟁, 4·19혁명, 광복회를 거치면서 굵직한 현대사의 한 가운데에 있었고, 눈감을 때까지 자신의 안위보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을 걱정했다.

1903년 김화에서 종2품 참판 이기원의 아들로 태어난 이강훈 지사는 1919년 16세에 고향에서 일어난 3·1운동에 적극 참여했고 이듬해 북간도를 통해 상하이로 망명, 임시정부 총리실에서 사무직으로 1년간 일했다. 1924년 북간도 사범학교를 졸업한 이 지사는 백두산 근방의 신창학교 교사로 후진양성에 전념하다 만주 일대에서 김좌진 장군이 벌였던 항일투쟁 활동에 참여했다.

이후 1929년 한족총연합회에 가입, 동북만에서 활약한데 이어 해림에서 북만민립중학기성회를 개최해 민립중학 설립에 참여하는 등 교포 청소년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시키는 운동을 벌였다.

1930년 김좌진 장군이 암살당하자 상하이로 건너간 이 선생은 '재중국 조선 아나키스트연맹'을 개편한 '남화한인청년연맹'에 가담, 이들의 행동단체인 '흑색공포단'을 결성했다.

1933년 3월 17일에는 백정기 의사 등과 일본 천황의 사절 아리

요시를 암살하기로 모의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제공한 도시락형 폭탄을 휴대하고 백정기 의사와 함께 거사현장에 도착한 이 선생은 미리 준비하고 있던 일본 경찰들에 의해 체포된 후 그해 7월 일본 나가사키 형무소에 압송돼 15년형을 언도받았다.

같이 의거를 도모했던 백정기 의사가 나가사키 형무소에서 옥사하고 이 지사는 일본이 패망한 후인 1945년 10월이 돼서야 출옥할 수 있었다. 이 선생은 일본에 거주하며 김구 선생과 연락해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선생의 유골을 1946년 5월 국내로 송환해 효창공원에 안장하기도 했다.

광복 이후 재일한국거류민단 부단장으로 일하다 1960년 귀국해 한국사회당 총무위원으로 활동한 이 지사는 1961년 백범김구선생시해 진상규명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등 민주화활동을 하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3년간 옥고를 치른 후 다시 일본으로 떠났다.

1967년 재귀국한 이 지사는 독립운동사 기록에 일생을 바쳤다. 1979년까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조사실장, 연구실장, 편찬실장 등을 역임하며 10권에 달하는 '독립운동사'와 20권이 넘는 '독립운동사 사료집'을 편찬했으며 '해외독립운동사', '항일독립운동사', '무장독립운동사', '대한민국임시정부사' 등을 집필했다. 이같은 공을 기려 정부는 지난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서훈했다. 또한 이 선생은 1988년부터 5년간 제10·11대 광복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고령에도 왕성하게 활동했다. 이 선생은 광복회장 시절 "통일이 안되고서는 독립이라고 할 수 없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뜻을 이어받는 것이 제2의 독립운동"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임병순 철원 향토사연구소장은 이 지사가 업적에 비해 조명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김화군이 남북으로 갈려 철원군으로 합병되면서 주민들의 관심이 다소 소홀했었다"며 "철원읍의 박용만 선생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분만큼 이강훈 지사 선양사업은 꼭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 목숨 걸고 들여온 독립선언서(조화벽 지사)

양양 조화벽 지사

- 10대때 독립선언서 양양에 전파
- 1925년 유관순 오빠와 결혼해
- 개성·원산서 항일운동 본격 투신
- 1975년 별세·1990년 건국훈장



조화벽 지사



남편 유우석 지사 (유관순 열사 오빠)



조화벽 지사와 가족들의 모습.



938년 3월 22일 양양정명학원 1회 졸업식의 모습. 사진의 둘째줄 맨왼편 한복차림이 조화벽 지사다.

양양은 강원도내에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3·1운동이 뜨겁게 이어졌던 곳이다. 가장 오랜기간 치열하게 일어났으며 신교육을 받은 청년세대와 보수적 지역사회가 결합, 조직적으로 진행돼 그 강도 측면에서도 다른 지역을 압도한다. 이곳 3·1운동의 불씨를 지핀 인물이 바로 10대 당시 독립선언서를 목숨걸고 비밀리에 들여온 조화벽 지사다. 그는 사회참여에 눈을 뜨기 시작한 당대 여성들을 대표하는 여성운동가인 동시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노동운동가였고, 애국계몽에 투신한 교육자였다.

1895년 양양 남문리의 개신교 집안에서 무남독녀로 태어난 조화벽 지사는 원산성경학교와 루씨여학교를 거쳐 개성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 호수돈여학교 비밀결사대에서부터 활동했다. 개성 만세운동에 참여한 그는 조선총독부가 학생들의 3·1운동 참여를 막기 위해 휴교령을 내리자 양양으로 향했다. 고향에도 시국상황을 알려야 한다는 일념이었다. 일본군 감시를 피해 독립선언서를 숨긴 곳은 버선목 숨 사이, 경원열차와 뱃길로 대포항에 도착한 그는 경찰에 끌려갔지만 독립선언서가 발견되지 않아 그대로 고향에 갈 수 있었다.

이를 시작으로 피어난 양양 만세운동은 유교와 기독교 등 각 조

직을 합치는 계기가 됐다. 양양의 군중속에서 사촌동생 조연벽, 친구 김정숙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일본군의 검거가 시작되자 농촌 아낙으로 위장하고 한계령을 넘어 양구로 피신해 누에 고치를 치기도 했다. 이후 다시 개성으로 가서 호수돈여학교를 졸업한 그는 공주 영명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유관순 열사의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유관순 일가와 연을 맺었다. 이미 유관순은 이화학당 진학하기 전인 어릴 적 양양으로 시집 간 고모 집에 놀라갔을 때 조 지사를 만난 적이 있다고 한다. 배화여학교로 발령받았을 때 부모를 잃은 유 열사 동생 인식·관석형제와 함께 경성행 기차에 오르기도 했다. 이렇게 오랜기간 이어진 조 지사와 유 열사 가족과의 인연은 유 열사가 숨진 후인 1925년 오빠 유우석과 개성에서 결혼하면서 더욱 깊어졌다. 교사 급여 일부를 상해 임시정부 자금으로 지원하는 등 항일운동에도 본격 투신한다. 아들을 얻은 후 시동생들과 함께 양양으로 거처를 옮겨 양양을 유관순 가족에게 제2의 고향으로 만들어주기도 했다.

원산 거주 당시에는 선박노동자를 위한 해원상구회 부회장을 맡고, 노동자 거주비 인하를 촉구하는 등 노동권익 옹호에 앞장섰고, 1932년 고향으로 돌아온 후 아동교육시설 정명학원에 나서는 등 교육사업에 집중했다. 광복 이후 유관순 전기가 영화화, 국민적 존경을 받자 남편과 함께 기뻐하기도 했다. 남편과 아들 셋을 모두 앞세워 보낸 후 1975년 별세할 때까지 며느리 김정애씨와 지낸 그는 1990년이 되어서야 남편 함께 사후건국훈장을 받고 애족장에 추서됐다. 며느리 김정애도 3·1운동 여성동지회장으로 활동하며 시부모의 유지를 이어갔다. 양양감리교회에는 지금도 조화벽의 기도실이 남아있다.

이철수 양양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은 “조 지사 이외에도 유림대 표로 양양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이석범 선생을 비롯한 지역 독립운동가들이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 이 선생의 경우 유공자 신청을 했는데도 제외된 상황”이라면서 “지난달 양양 3·1만세운동을 발간하는 과정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도내 한 문화원 관계자는 “도 출신 독립운동가들이 전국 단위 독립운동에 미친 중대한 역할과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나 자료 등이 부족하다”며 “정부나 중앙단위 기관 등에서도 정확히 고증, 선양할 수 있도록 지역 향토사 측면에서 먼저 집중 연구하고 그 위상에 맞는 대우를 받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준 문화원장 등 지역원로 3명 식발 “부동의 결정 철회 때까지 투쟁하겠다”

2019.10.14. 설악신문 - 김주현 기자

윤여준 양양문화장을 비롯한 지역원로 3명은 이날 오전 11시 50분 남대천 고수부지에 마련된 단상에 올라 삭발하며 환경부의 잘못된 부동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며 식발식을 가졌다. 윤여준 양양문화원장은 “정명 600년의 무궁한 역사를 지닌 우리 양양군민들은 물론 강원도민들을 무시하는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환경부는 즉각 해체하고 조명래 장관은 주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부동의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삭발한 전용우 양양군노인회장도 “우리 노인들을 기만하고 약속을 뒤엎은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우리 노인들도 부동의 철회와 오색케이블카 정상 추진을 위해 모든 사력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윤여준 양양문화원장을 비롯한 지역원로



3명이 삭발하며 오색케이블카 정상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해안권 문화원장협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철회 촉구”

2019.10.18.(금) 강원도민일보 김진형기자
 강원도동해안권문화원장협의회(회장 주기창)가 17일 고성에 모여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7월 창립된 강원도동해안권문화원장협의회는 이날 류중수 도 문화원연합회장과 주기창 고성문화원장, 김계남 속초문화원장, 윤여준 양양문화원장, 최돈설 강릉문화원장, 오종식 동해문화원장, 김대화 삼척문화원장 등 동해안권 6개 문화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개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환경부가 요구한 보완점을 여러 해 걸쳐 진행, 결과물을 제출했는데도 환경단체들의 입장만 받아들인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부동의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형

양양 농협 취약농가 주거환경 봉사

2019.11.20.(수) 강원도민일보 최훈기자



NH농협 양양군지부(지부장 고영배)와 속초조법지원센터(소장 최승학), 양양문화원(원장 윤여준)은 19일 현북면 한 농가에서 도배, 장판교체 등을 했다.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작품전시회

2019.12.04.(수) 강원도민일보 - 최훈기자

양양문화원(원장 윤여준)은 3일 문화원과 일출예식장에서 문화학교 수료식과 작품전시회를 개최했다.



▲ 양양문화원(원장 윤여준)은 3일 문화원과 일출예식장에서 문화학교 수료식과 작품전시회를 개최했다



편/집/후/기

2020년 경자년(庚子年) 밝은 태양을 가슴에 안고…

지난 한해도 최선을 다해 달려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문화가족 여러분들의 큰 도움으로 1년 동안 여러 사업과 행사를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2020년 경자년 쥐의 해를 맞아 새로운 시도와 도전 그리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즐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에는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양양문화제, 전국한시백일장, 전국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등 여러 사업이 많았지만, 특히나 3.1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문화원에서는 양양 만세운동을 재현하고자 4월 4일 시내 일원에서 군민 1500여명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재현 행사를 통해 선열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본받고,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애국심과 민족정기를 선양함은 물론, 양양인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원에서는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조사하고 발굴하여 유공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입니다.

그리고 양양문화원 임·직원은 여러 행사를 잘 기획하고 열심히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 입니다. 문화가족 여러분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9년에 다사다난했던 모든 순간들이 의미 있는 순간이었길 바라며, 2020년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행복하고 웃음 가득한 해가 되시기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양양문화원 사무국장 김진하

양양문화 제31호

2019年 12月 23日 印刷

2019年 12月 26日 發行

발행인 : 윤 여 준

편집인 : 김 진 하

발행처 : 襄陽文化院

인쇄처 : 대양프리컴



대한불교조계종

꿈이 이루어지는 낙산사

낙산사 대중일동



무산사(양양포교당)

낙산유치원	강원파라미타청소년협회
낙산사 템플스테이	낙산사 불교대학
낙산사 불자마을(용호리, 낙산, 사천리, 손양면)	

무산복지재단

낙산요양원	노인복지센터
양양군노인복지관	의상도서관
무산지역아동센터	1318무산지역아동센터
양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